KIET 경제·산업 전망 2024-01(1)

ISSN 2983-0338

2024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KIET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2024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KIET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차례

요 약 ····· 9

제1장 거시경제 전망 ····· 23

1. 국내 경제 동향 ····· 23
2. 대외 여건 전망 ····· 27
3. 2024년 국내경제 전망 ····· 35
〈참고〉 수출의 구조적 요인의 영향 변화 분석과 시사점 ····· 51

제2장 13대 주력산업 전망 ····· 59

1. 2024년 상반기 13대 주력산업 동향 ····· 59
2. 2024년 하반기 대내외 여건 변화와 산업별 영향 ····· 68
3. 2024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 ····· 78
〈참고〉 2024년 글로벌 IT산업의 주요 동향과 전망 ····· 100

표 차례

〈표 1-1〉 세계 권역별 및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와 전망 ····· 28
〈표 1-2〉 세계 주요 권역 및 주요국별 경기선행지수(CLI) 추이 ····· 29
〈표 1-3〉 2024년 국제유가 전망(국내경제 전망을 위한 전제) ····· 34
〈표 1-4〉 2024년 원/달러 환율 전망 ····· 35
〈표 1-5〉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 36
〈표 1-6〉 민간소비 추이 ····· 37
〈표 1-7〉 민간소비 전망 ····· 39
〈표 1-8〉 설비투자 추이 ····· 39
〈표 1-9〉 부문별 설비투자 추이 ····· 40
〈표 1-10〉 설비투자조정압력 추이 ····· 42
〈표 1-11〉 설비투자 전망 ····· 43
〈표 1-12〉 건설투자 추이 ····· 44
〈표 1-13〉 건설투자 전망 ····· 46
〈표 1-14〉 산업별 수출 증가율 ····· 49
〈표 1-15〉 가공단계별 수입 ····· 49
〈표 1-16〉 2024년 수출입 전망 ····· 50
〈표 2-1〉 2024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세계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69
〈표 2-2〉 2024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전망 ····· 71
〈표 2-3〉 2024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해외 생산 전망 ····· 73
〈표 2-4〉 2024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국내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74
〈표 2-5〉 2024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공급능력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 77
〈표 2-6〉 2024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증감 요인 ····· 81
〈표 2-7〉 2024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증감 요인 ····· 85
〈표 2-8〉 2024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증감 요인 ····· 88
〈표 2-9〉 2024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증감 요인 ····· 92
〈표 2-10〉 2024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전망(달러 기준) ····· 94
〈표 2-11〉 2024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전망(물량, 원화 기준) ····· 95

〈표 2-12〉 2024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전망 ····· 96
〈표 2-13〉 2024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전망 ····· 97
〈표 2-14〉 2024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전망(달러 기준) ····· 98
〈표 2-15〉 2024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전망(물량, 원화 기준) ····· 99

그림 차례

〈그림 1-1〉 실질GDP 성장률과 부문별 성장 기여도 추이 ····· 24
〈그림 1-2〉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추이 ····· 25
〈그림 1-3〉 반도체 생산활동 및 수출물가 ····· 25
〈그림 1-4〉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및 물가 상승률 추이 ····· 26
〈그림 1-5〉 전 세계 및 권역별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 27
〈그림 1-6〉 OECD 산업생산과 G20 경기선행지수 변화율 추이 ····· 29
〈그림 1-7〉 세계 주요국의 산업생산과 경기선행지수 변화율 추이(월별) ····· 30
〈그림 1-8〉 세계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및 근원 소비자물가 변화율 추이(분기별) ····· 31
〈그림 1-9〉 세계 주요국의 기업신뢰지수 및 소비자신뢰지수 추이(월별) ····· 32
〈그림 1-10〉 국제유가 추이 ····· 33
〈그림 1-11〉 원/달러, 달러인덱스 추이 ····· 34
〈그림 1-12〉 재화별 소매판매 추이(전년동기비) ····· 37
〈그림 1-13〉 민간소비와 실질GNI(전년동기비) ····· 37
〈그림 1-14〉 취업자 추이 ····· 38
〈그림 1-15〉 고용률 추이(4월) ····· 38
〈그림 1-16〉 소비자 심리지수 ····· 38
〈그림 1-17〉 가계부채 및 대출금리 ····· 38
〈그림 1-18〉 설비투자 추이 ····· 40
〈그림 1-19〉 설비투자 선행지표 추이 ····· 41
〈그림 1-20〉 재고율과 자본재수입 ····· 42
〈그림 1-21〉 건설투자와 건설기성액 추이 ····· 44
〈그림 1-22〉 건물건설 인허가 · 착공 추이 ····· 45
〈그림 1-23〉 건설투자 선행지표 추이 ····· 46
〈그림 1-24〉 수출입 증가율과 무역수지 추이 ····· 47
〈그림 1-25〉 수출 물량 및 단가, 금액지수 추이 ····· 47
〈그림 1-26〉 지역별 수출 증가율 ····· 48
〈그림 2-1〉 2024년 상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증감률 추정 ····· 59

〈그림 2-2〉 2024년 상반기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증감률 추정 ····· 62
〈그림 2-3〉 2024년 상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증감률 추정 ····· 65
〈그림 2-4〉 2024년 상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증감률 추정 ····· 67
〈그림 2-5〉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증감률 전망 ····· 79
〈그림 2-6〉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증감률 전망 ····· 84
〈그림 2-7〉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증감률 전망 ····· 87
〈그림 2-8〉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증감률 전망 ·····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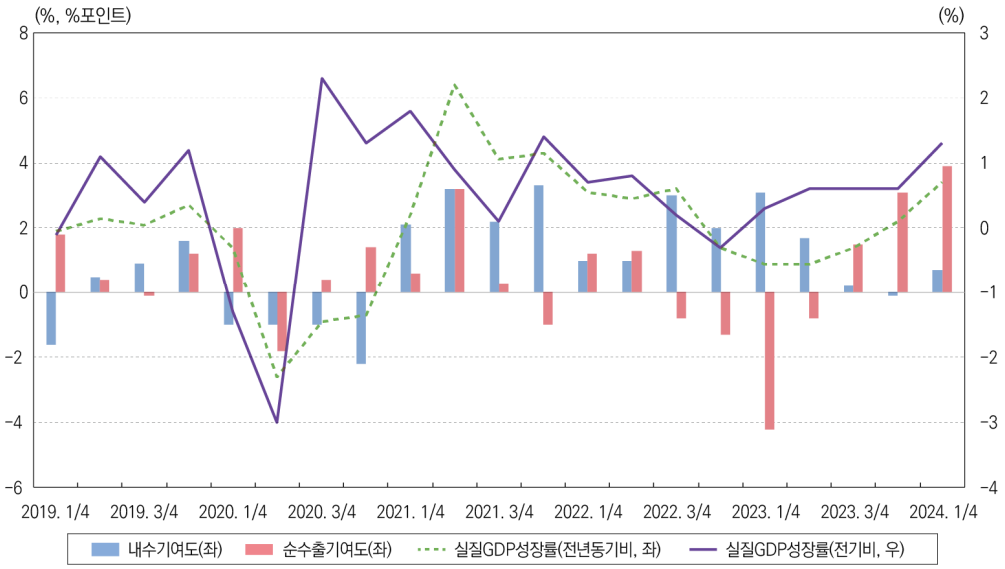
요 약

제1장 거시경제 전망

□ 현 경기 판단: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이 성장을 주도

○ 국내 실물경기는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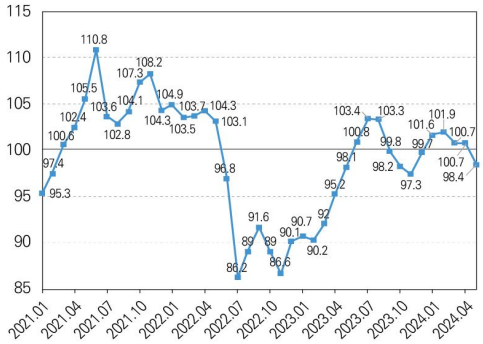
실질GDP 성장률과 부문별 성장 기여도 추이



자료: 한국은행.
주: 내수는 민간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의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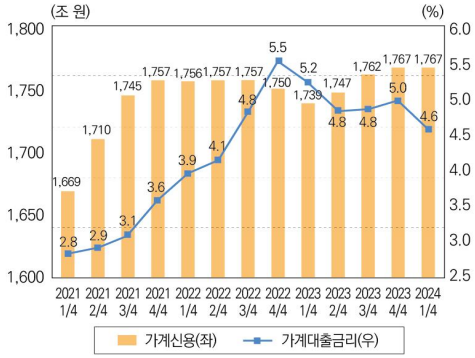
- 민간소비는 오랜 기간의 고물가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장기간의 고금리 유지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

소비자 심리지수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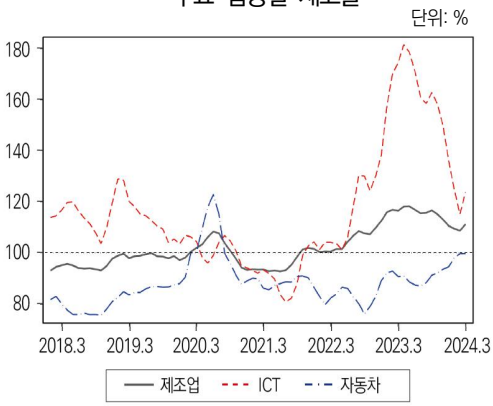
가계부채 및 대출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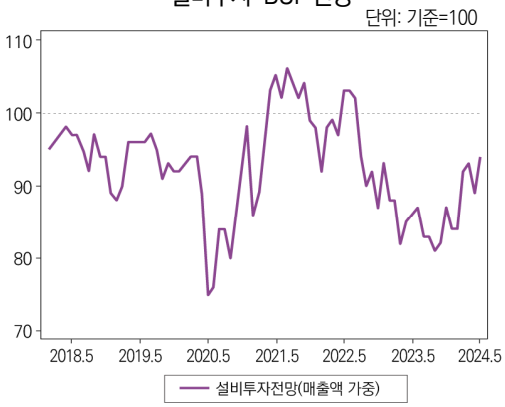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설비투자는 올해 초 반도체 부문에서 일시적 증가가 있었으나, 높은 조달 금리, 경기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 그리고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전반적으로 부진

주요 업종별 재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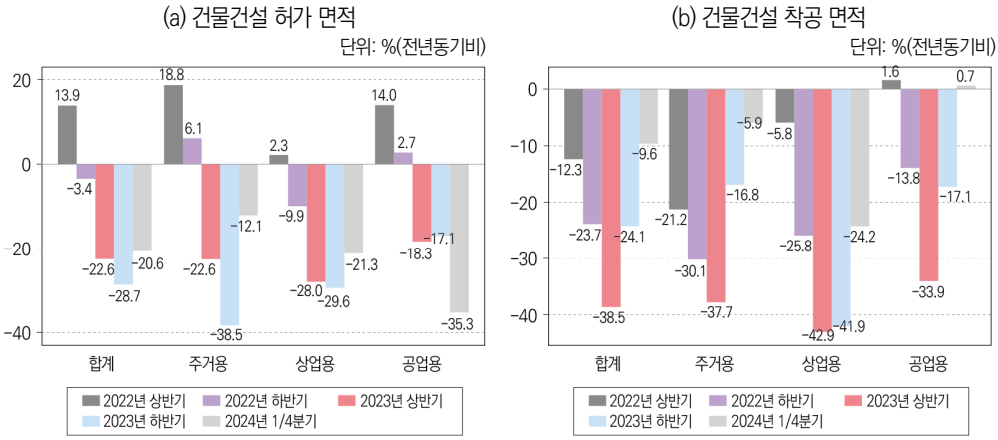
설비투자 BSI 전망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재고율=(계절조정재고지수/계절조정출하지수)*100, 2) 재고율은 3개월 중심항 이동평균, 3) 제조업 설비투자 전망은 다음 달 전망.

- 건설투자는 지난해 건설자재 가격 안정화에 힘입어 올 초 일시적 반등을 보였으나,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 부진과 PF 부실 우려 등으로 침체가 이어지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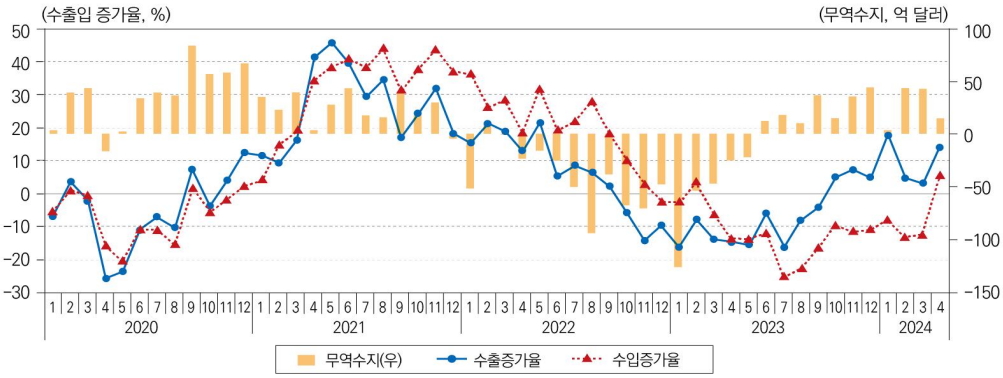
건물건설 인허가·착공 추이



자료: 통계청.

- 수출(통관기준)은 반도체의 호조 속에 자동차와 조선 등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수입의 증가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면서 무역수지는 올 4월까지 11개월 흑자 지속

수출입 증가율과 무역수지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 (전제) 2024년 세계경제: 주요국들의 경기 안정화 노력에 완만한 성장

○ 2024년 세계경제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공급망 불안과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주요국들의 정책 전환 시점을 지연시키고 있으나, 주요국들이 경기 안정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도 수준의 상대적으로 완만한 성장 흐름이 예상

세계 권역별 및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와 전망

단위: %, 전년동기비(전기비 연율)

	2022	2023					2024	2024 전망치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IMF (24.4월)	OECD (24.5월)	UN (24.5월)
전 세계 실질GDP[1]	3.5					3.2		3.2	3.1	3.1
선진권[2]	2.6	1.6	1.5	1.5	1.6	1.6	-	1.7	-	1.6
미국[3]	1.9	1.7 (2.2)	2.4 (2.1)	2.9 (4.9)	3.1 (3.4)	2.5	3.0 (1.6)	2.7	2.6	2.3
유로존	3.5	1.3	0.6	0.1	0.1	0.5	0.4	0.8	0.7	0.8
일본	1.0	2.6	2.3	1.6	1.2	1.9	-0.2	0.9	0.5	1.2
신흥권	4.1	3.4	4.9	4.0	4.1	4.3		4.2	-	4.1
중국	3.0	4.5	6.3	4.9	5.2	5.2	5.3	4.6	4.9	4.8
세계교역(재화)	3.2					-0.9		2.8	-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UN World Economic Situation & Prospects 등.
주: 1) 전 세계는 PPP 환율 적용 기준. 2) 선진권과 신흥권의 분기별 수치는 세계은행 추산 기준. 3) ( ) 안의 수치는 전기비 연율 기준.

□ (전제) 2024년 유가 및 환율: 유가 83달러 내외, 환율 1,320원대 예상

○ 국제유가는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원유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비OPEC 국가들의 원유 공급이 일부 이루어지면서 현 수준(두바이유 기준, 82~83달러)을 중심으로 형성될 전망

2024년 국제유가 전제

단위: %(전년동기비), 달러/배럴, 기간 평균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두바이유	79.1 (-22.4)	85.1 (-6.3)	82.1 (-14.8)	83.4 (5.5)	82.8 (-2.7)	83.1 (1.2)

주: 1) 2024년 상반기는 5월 17일 현재 기준.

○ 원/달러 환율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요인들이 강달러를 지지하다, 수출 회복 등의 원화 강세 요인과 맞물리면서 차츰 약세로 전환되면서 완만히 하락할 전망

2024년 원/달러 환율 전제

단위: 원/달러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1,295.3 (5.1)	1,316.7 (-2.5)	1,306.0 (1.1)	1,344.5 (3.8)	1,313.3 (-0.3)	1,328.9 (1.5)

주: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단위 %.
2) 2024 상반기는 5월 17일 현재 기준.

□ 2024년 국내경제: 연간 성장률 2.5% 전망

○ 2024년 국내경제는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이 내수 부문의 성장세를 제약할 전망이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자동차, 조선 등의 주력산업의 수출 호조세가 전체 경제 성장을 주도하면서 연간 2.5% 성장할 전망

- 대외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진정 여부와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 시점, 전쟁 등의 지정학적 갈등,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등이 주요 리스크 요인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억 달러

	2022	2023			2024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GDP	2.6	0.9	1.8	1.4	2.8	2.2	2.5
민간소비	4.1	3.1	0.6	1.8	1.4	2.1	1.8
설비투자	-0.9	5.3	-3.9	0.5	0.2	4.5	2.3
건설투자	-2.8	1.8	0.8	1.3	-1.3	-1.8	-1.5
통관기준 수출	6,836 (6.1)	3,070 (-12.4)	3,252 (-2.4)	6,322 (-7.5)	3,345 (9.0)	3,503 (7.7)	6,848 (8.3)
통관기준 수입	7,314 (18.9)	3,333 (-7.7)	3,093 (-16.4)	6,426 (-12.1)	3,208 (-3.7)	3,305 (6.8)	6,513 (1.4)
무역수지	-478	-263	159	-103	137	198	335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주: 2024년부터는 산업연구원 전망치.

□ 2024년 민간소비: 1.8%의 미약한 증가세

○ 2024년 민간소비는 고물가의 장기간 지속에 따른 실질 구매력의 약세와 고금리 기조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등의 영향으로 미약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하반기에는 안정적 물가와 수출 확대에 따른 소득 여건 개선에 힘입어 부진이 다소 완화될 전망

□ 2024년 설비투자: 2.3%의 제한적 증가세

○ 2024년 설비투자는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다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고금리 기조 유지에 따른 높은 자금조달 비용 부담과 여전히 큰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제한적인 증가세를 보일 전망

□ 2024년 건설투자: 1.5% 감소하면서 부진한 흐름

○ 2024년 건설투자는 건설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지만, 금리 인하 시점 지연, 부동산 경기 둔화와 신규 인허가·착공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지난해보다 감소할 전망

□ 2024년 수출입 전망: 수출 8.3%, 수입 1.4% 증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연간 무역흑자 달성 전망

○ 2024년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호조세에 힘입어 전년 대비 8.3% 증가하고, 수입은 하반기 수출 업황 개선에 따른 중간재 수입 증가로 연간 1.4% 늘어날 전망

- 무역수지는 수입을 상회하는 수출의 견조한 증가에 힘입어 연간 335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3년 만에 연간 흑자 달성 기대

제2장 13대 주력산업 전망

1. 2024년 상반기 13대 주력산업 동향

□ 수출: 주요 IT 제품 단가 개선 및 대미 수출 호조세에 따라 11.8% 증가

○ 2024년 상반기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인플레 압력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 등 IT 제품의 수출단가가 개선되고 대미 수출 호조세의 지속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11.8% 증가하며 전년동기의 실적 부진을 만회할 전망

- (기계산업군) 대미 수출 호조세와 공급제약의 개선에 따라 자동차(2.0%), 조선(35.2%), 일반기계(0.8%) 모두 증가하여 기계산업군 전체로는 전년동기비 5.3% 증가

- (소재산업군) 수출 물량은 회복되고 있으나 수출단가 약세로 철강(-7.4%)과 섬유(-3.4%)의 수출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소재산업군 전체 수출은 전년동기비 0.8%의 제한적 증가 예상

- (IT신산업군) 글로벌 IT 수요의 개선세, 주요 수출 제품(SSD,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단가 상승에 따라 산업군 전체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28.7% 증가하며 국내 수출 증가를 견인

□ 내수: 소비심리 위축, 부진한 투자로 주력산업의 내수 위축세 지속

○ 조선, 정유,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등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감소세(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가 심화되거나 감소 전환(자동차, 섬유, 정보통신기기, 이차전지)하는 등 2023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내수 부진이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모습

- (기계산업군) 국내 해운사의 인수물량 확대로 조선 내수는 확대 추세이나 국내 소비심리 위축과 설비투자 둔화 영향으로 자동차(-11.1%) 및 일반기계(-7.0%) 내수는 부진

- (소재산업군) 국내 수요산업의 위축 영향으로 정유(1.4%)를 제외한 철강(-2.5%), 석유화학(-10.7%), 섬유(-1.8%)의 상반기 내수는 부진할 전망

- (IT신산업군) 고금리·고물가 지속에 따른 국내 내구소비재 수요 부진과 전기차 판매 위축 영향으로 바이오헬스를 제외한 대다수 산업의 내수는 전년동기비 감소 또는 부진 예상

□ 생산: 수출 확대 영향 수출의존도 높은 IT신산업군의 생산은 확대 추세, 내수 부진에 따른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 등 기계 및 소재산업군 주요 산업의 생산은 위축

- (기계산업군) 조선(20.4%) 생산은 인력 부족 완화로 증가 추세가 지속, 자동차(-3.9%) 및 일반기계(-3.3%)는 내수 부진 영향으로 감소

- (소재산업군) 석유화학(0.7%)과 정유(0.5%)는 수출 물량 확대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철강(-0.6%)과 섬유(-3.8%)는 국내외 수요 부진으로 생산물량 감소

- (IT신산업군) 수출 회복과 국내외 수요 확대 영향으로 반도체(50.2%) 및 바이오헬스(15.5%) 생산의 높은 실적 예상, 이차전지(-24.0%) 생산은 국내외 전기차 성장 둔화 영향으로 큰 폭 감소를 기록할 전망

2. 2024년 하반기 대내외 여건 변화와 산업별 영향

□ 대외 여건 변화: 글로벌 IT 수요의 회복과 주요국의 인프라 투자는 지속될 전망이나, 거시경제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보호무역 확대 기조는 부정적 여건

○ (세계 수요 여건) 하반기에는 주요 IT 제품의 교체주기 도래, 글로벌 기업의 IT 관련 설비투자 확대로 세계 ICT 시장의 확대가 예상, 주요국 인프라 투자의 증가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 회복 지연, 국제정세 불안 등의 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및 수출 경쟁의 심화는 부정적 외부 환경

- 코로나19 시기에 이뤄진 전자제품 판매 급증은 최근 2년간의 수요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나, 보유 제품의 교체시기 진입에 따라 IT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AI 기능(온디바이스 AI)을 탑재한 스마트 신제품, 새로운 웨어러블 기기, 혁신 신약 등의 신기술 및 신제품 출시는 시장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중국 내 자국 제품 선호 현상에 힘입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등 첨단분야에서의 제품경쟁력이 강화되고 석유제품, 화학, 철강 등의 생산능력 확대 추세는 선진국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 심화, 남미 등 신흥 시장에서의 점유율 축소 등 우리 기업의 잠재적 위협요소로 작용할 전망

○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전망) 2024년 하반기 주요 수출국의 수요 여건은 디지털 및 인프라 구축과 ICT 수요 확산 영향으로 미국, EU,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수요 확대가 기대되나 주요국 제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라 수출 확대가 제한될 가능성도 존재

○ (해외 생산 전망) 2024년 해외 생산의 연중 확대 기조 속에서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라 하반기에는 특히 반도체(미국), 가전(미국, 신흥국), 일반기계(미국, 신흥국), 조선(베트남) 산업에서의 해외 생산이 보다 확대될 전망

□ 국내 여건 변화: 소비심리 위축의 부정적 영향은 지속되나 IT 수요 및 설비투자가 회복되고 친환경·유망 분야로의 미래를 대비한 투자는 지속

○ (국내 수요 여건) 하반기 IT 제품 수요가 확대되고 국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 관련 투자 및 수출 증가는 국내 수요를 진작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산가치 하락, 고물가 및 고금리 지속에 따른 미약한 소비 증가세가 본격적인 회복의 제약 요인

- 자동차, ICT 수출 호조에 따라 설비투자가 증가하면서 일반기계, 석유화학, 철강 등의 내수가 점진적으로 개선 흐름을 보일 전망이나 고물가 및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 영향으로 기업의 금융조달 부담이 가중되고 건설투자 부진의 심화 등으로 대규모 투자 수요 및 내수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국내 기업들의 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 투자, AI 도입 등 디지털 전환 투자와 IT 신제품 출시는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등의 내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공급능력 여건) 생산시설 확충에 따른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의 공급능력 증가가 예상되며 철강, 정유, 섬유, 반도체 등에서 미래 유망 분야 경쟁력 강화 목적의 설비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3. 2024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

□ 수출: IT산업군 수출의 고성장, 자동차 등 기계산업군의 수출 호조세 지속과 소재산업 수출의 회복세 전환에 따라 하반기 수출도 높은 증가세(9.3%) 시현 예상

○ 2024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글로벌 IT 수요 확대, 주요 수출국 경기 및 수출단가의 개선에 따라 정유와 이차전지를 제외한 대다수 산업에서 증가하여 상반기(11.8%)의 증가 추세가 하반기(9.3%)에도 지속될 전망이며, 이에 13대 주력산업의 2024년 수출은 전년 대비 10.5% 증가 예상

- (기계산업군) 미국 등 주요 수출시장 수요의 견조한 성장으로 하반기 수출은 전년동기비 3.8% 증가할 전망, 특히 자동차(3.3%)는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조선(11.5%)은 하반기에도 증가 기조를 이어가 전년에 이어 높은 연간 수출 증가율(21.5%) 기록 예상

- (소재산업군) 수출단가 개선에 따라 정유(-0.9%)를 제외한 철강(3.5%), 석유화학(4.8%) 등 대부분 산업의 하반기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거나 상반기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어 산업군 전체로는 전년동기비 2.3% 증가할 전망

- (IT신산업군) 글로벌 수요 확대, IT 제품 단가 상승 영향으로 정보통신기기(16.6%), 반도체(26.3%), 바이오헬스(24.9%) 등 대다수 산업의 수출이 상반기 대비 개선됨에 따라 IT신산업군의 수출은 하반기 19.6%,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23.7% 증가 전망

□ 내수: 하반기 설비투자 회복, 수출 확대, 신수요 발생 영향으로 소재 및 IT신산업군의 내수가 전년동기 대비 개선될 전망이나 자동차, 이차전지는 하반기에도 역성장세 지속 예상

- (기계산업군) 스마트 및 친환경 설비투자 수요 확대로 일반기계(-0.3%) 감소세가 둔화될 전망이나 자동차(-4.8%)는 구매여건 악화에 따라 하반기에도 내수 감소세 지속 예상

- (소재산업군) 하반기 전방산업의 회복세에 따라 철강(1.7%), 석유화학(0.3%), 섬유(1.2%) 내수의 소폭 성장이 예상되나, 정유(-0.4%)는 환경규제 영향 등으로 감소 전망

- (IT신산업군) IT 교체수요와 수출 호조로 정보통신기기(8.4%), 반도체(10.3%)의 내수가 회복되고 신약 공급 확대 영향 바이오헬스(6.1%) 내수의 성장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

이며 이차전지(-3.1%) 내수는 하반기에도 역성장세는 지속되나 감소세는 둔화 예상

□ 생산: 수출 증가와 내수의 점진적 회복 영향으로 IT신산업군의 생산 호조와 소재산업군 생산의 소폭 증가 예상, 조선은 공급이슈가 개선되며 큰 폭 성장 기대

- (기계산업군) 내수 부진 및 기저효과로 자동차(1.4%) 생산은 성장세 둔화 예상, 일반기계(-0.1%)는 내수 개선에 따라 생산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고, 조선(24.7%)은 외국인 근로자 숙련 향상에 따라 큰 폭의 생산 확대가 가능할 전망

- (소재산업군) 신증설 및 수출 증가 영향으로 석유화학(2.4%) 생산은 증가세 확대, 철강(0.7%)과 정유(0.2%)는 전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나 섬유(1.1%)는 하반기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기반 약화 영향에 따라 연간 생산은 감소할 전망

- (IT신산업군) 국내외 수요 회복으로 정보통신기기(15.4%), 반도체(24.1%), 바이오헬스(20.0%) 생산의 고성장 전망, 이차전지(1.8%)도 신증설 및 수요 둔화세 완화에 따라 하반기 생산은 증가 전환 예상

□ 수입: 수출 증가, 환율 영향 단가 상승 및 저가 수입재 진입 등에 따른 반도체, 자동차 및 기초소재의 수입 확대로 전년동기비 7.9% 증가할 전망이며 연간으로는 3.0% 증가 예상

- (기계산업군) 조선과 자동차는 수입단가 상승 및 부품 수입 확대로 큰 폭 증가, 일반기계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며 기계산업군 전체로는 하반기 7.6%, 연간 -0.3% 증가 전망

- (소재산업군) 저가 범용재 확산, 중국 직구업체의 공격적인 시장 확대 영향으로 하반기 5.9% 증가, 연간으로는 2.9% 증가 전망

- (IT신산업군) 국내 IT산업의 수출 및 내수 확대, 중국 제품의 국내시장 진입 등의 요인으로 9.1% 증가 전망이나 이차전지 및 바이오헬스 수입은 단가 하락 및 국내외 수입 여건 악화로 감소가 예상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산업전망 기상도(하반기)

		수출	내수	생산	수입
기계 산업군	자동차	☁	☂	☁	☼☼
	조선	☼☼	☼☼	☼☼	☼☼
	일반기계	☁	☂	☂	☁
소재 산업군	철강	☁	☁	☁	☼
	정유	☂	☂	☁	☁
	석유화학	☁	☁	☁	☼
	섬유	☁	☁	☁	☁
IT 신산업군	정보통신기기	☼☼	☼	☼☼	☼
	가전	☁	☂	☂	☁
	반도체	☼☼	☼☼	☼☼	☼☼
	디스플레이	☁	☼	☁	☼
	이차전지	☂	☂	☁	☂☂
	바이오헬스	☼☼	☼	☼☼	☂

주: 1) 전망: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2) 내수와 생산의 경우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3) 수출과 수입은 모든 업종에서 달러화 가격 기준.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산업전망 기상도(연간)

		수출	내수	생산	수입
기계 산업군	자동차	☁	☂	☂	☂
	조선	☼☼	☼☼	☼☼	☼☼
	일반기계	☁	☂	☂	☂
소재 산업군	철강	☂	☂	☁	☁
	정유	☁	☁	☁	☼
	석유화학	☁	☂	☁	☁
	섬유	☁	☂	☂	☁
IT 신산업군	정보통신기기	☼☼	☁	☼	☁
	가전	☁	☂	☂	☂
	반도체	☼☼	☼	☼☼	☼☼
	디스플레이	☼	☁	☁	☼☼
	이차전지	☂☂	☂☂	☂☂	☂☂
	바이오헬스	☼☼	☼	☼☼	☂

주: 1) 전망: 전년 대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 이상.
2) 내수와 생산의 경우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3) 수출과 수입은 모든 업종에서 달러화 가격 기준.

제1장

거시경제 전망

제1장 거시경제 전망

1. 국내 경제 동향

□ 현 경기 판단: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이 성장을 주도

○ 국내 실물경기는 고물가·고금리의 영향으로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주도

- 소비는 오랜 기간의 고물가로 인해 구매력이 저하되고, 장기간의 고금리 유지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

- 설비투자는 올해 초 반도체 부문에서 일시적 증가가 있었으나, 높은 조달 금리, 경기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 그리고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전반적으로 부진

- 건설투자는 지난해 건설자재 가격 안정화에 힘입어 올 초 일시적 반등을 보였으나,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 부진과 PF 부실 우려 등으로 침체가 이어지는 모습

- 수출(통관기준)은 반도체의 호조 속에 자동차와 조선 등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수입의 증가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면서 무역수지는 올 4월까지 11개월 흑자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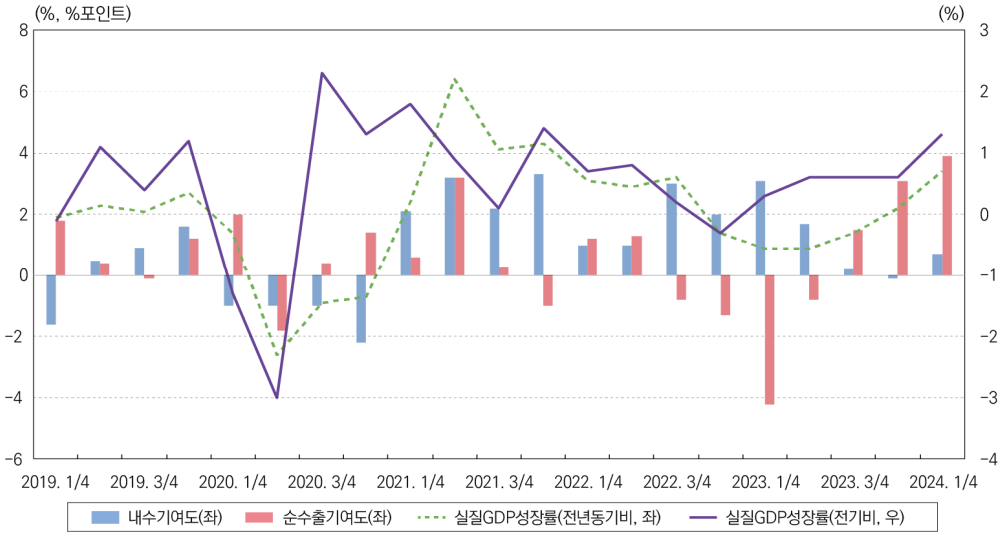
  · GDP(전기비, %): (2023. 2/4) 0.6 → (3/4) 0.6 → (4/4) 0.6 → (2024. 1/4) 1.3

  · GDP(전년동기비, 이하 동일, %): (2023. 2/4) 0.9 → (3/4) 1.4 → (4/4) 2.2 → (2024. 1/4) 3.4

  · 민간소비(%): (2023. 2/4) 1.6 → (3/4) 0.2 → (4/4) 0.9 → (2024. 1/4) 1.1

- 설비투자(%): (2023. 2/4) 4.7 → (3/4) -4.2 → (4/4) -3.6 → (2024. 1/4) 0.6
- 건설투자(%): (2023. 2/4) 1.7 → (3/4) 3.8 → (4/4) -1.9 → (2024. 1/4) -0.6
- 통관수출(%): (2023. 2/4) -12.0 → (3/4) -9.7 → (4/4) 5.6 → (2024. 1/4) 8.3
- 무역수지(억 달러): (2023. 2/4) -34 → (3/4) 64 → (4/4) 95 → (2024. 1/4) 90

〈그림 1-1〉 실질GDP 성장률과 부문별 성장 기여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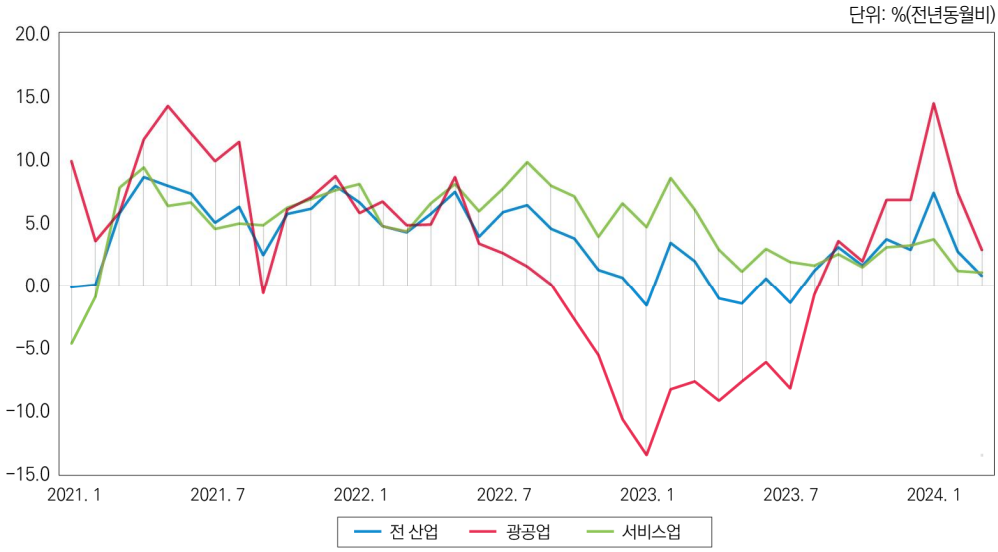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주: 내수는 민간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의 합.

○ (산업활동 동향) 전 산업 생산은 2023년에 상반기까지 부진했던 광공업 생산의 회복세에 힘입어 지난해 8월부터 전년동기비 플러스 성장을 유지 중

- 제조업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는 2023년 하반기부터 성장세가 나타나면서 2024년 1분기 들어 생산과 출하가 전년동기비 각각 45%, 39%나 증가하고, 재고는 17% 감소하는 등 제조업 경기 개선에 크게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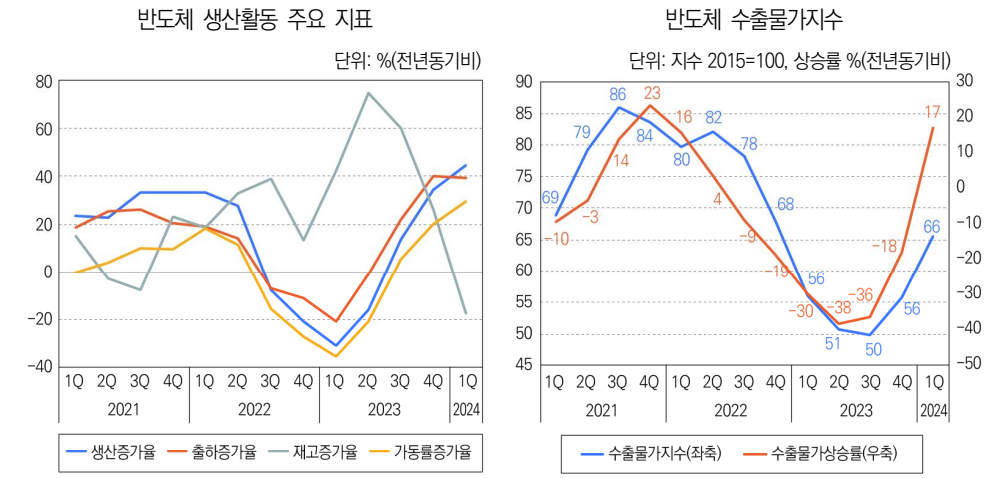
- 반도체의 수출물가는 2023년 2분기 이후 하락폭이 축소되다가, 2024년 1분기에 전년동기비 17%로 큰 폭 상승하였지만, 수출 물가 수준(2024년 1분기 66)은 여전히 반도체 호황기(약 80 이상)에 못 미치는 수준

〈그림 1-2〉 산업생산지수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1-3〉 반도체 생산활동 및 수출물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물가 및 금리: 물가 기조적 둔화,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불확실

○ (기조) 물가 상승률은 기조적인 둔화 추세에도, 목표 수준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통화 당국은 성장세 개선 및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 통화정책 운용의 차별화, 환율 변동

성,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 양상 등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하면서 긴축 기조 유지(2023. 2월부터 11번 연속 금리 동결, 2024. 5. 23 금통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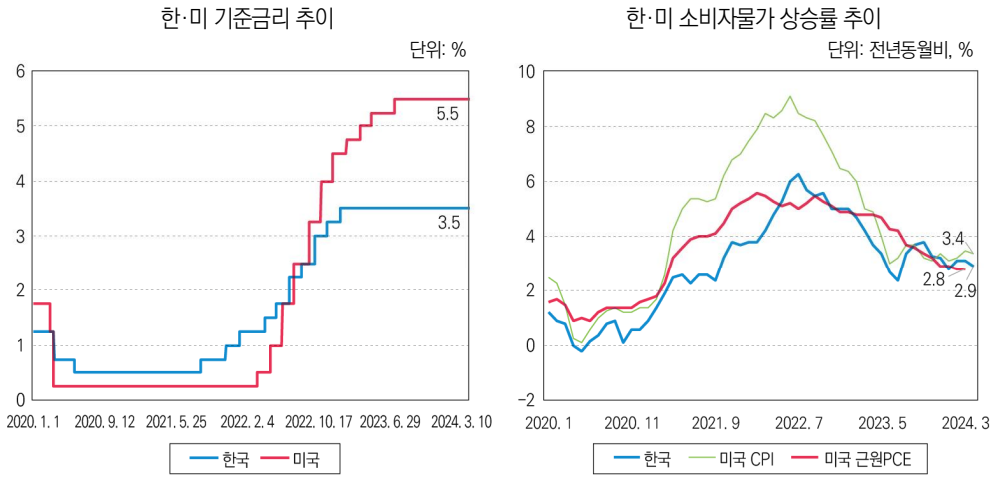
○ (한국) 물가 둔화세가 유지되는 반면, 최근 한국경제의 성장세 개선과 환율 변동성 확대로 물가 상방 리스크가 커지면서 현재의 긴축 기조 유지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

· 1분기 GDP 실질 성장률이 1.3%로 시장 컨센서스 0.6%를 상회

○ (미국) 미 연준은 향후 ① 물가 상승률의 추가 둔화와 ② 노동시장의 추세적 둔화 두 가지를 확인하기 전까지 현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

- 최근 물가 상승세를 견인해 온 노동시장의 둔화 흐름이 향후 2~3개월간 추세적으로 이어지는지가 금리 인하 시점을 결정할 전망

〈그림 1-4〉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및 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주: 1) 기준금리는 2024년 5월 24일 현재(미국은 상단 기준).
2)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국 2024년 4월 현재, 미국 2024년 3월(근원PCE)/4월(CPI) 현재 기준.

2. 대외 여건 전망

(1) 세계경제

□ 2024년 초 동향: 선진권·신흥권 경기의 동반 약세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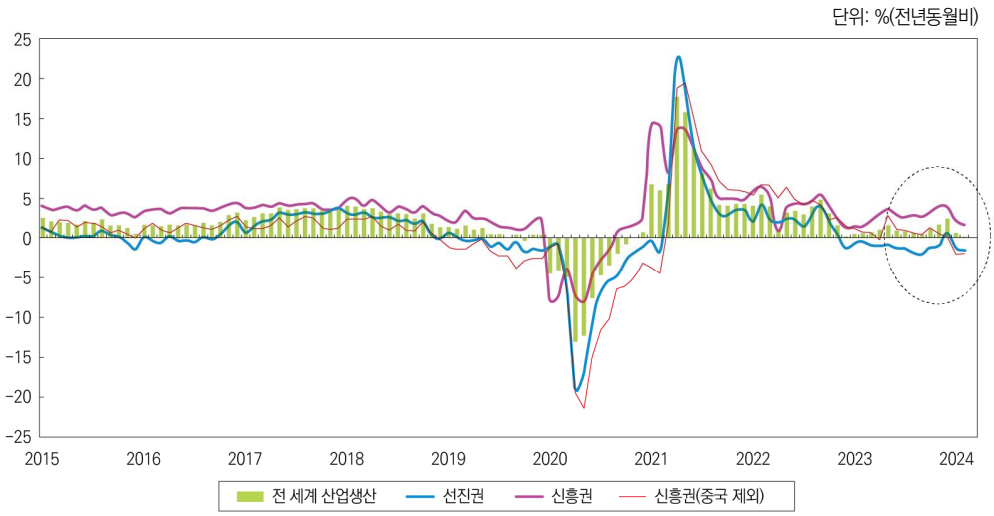
○ 세계 실물경기가 2023년 고인플레와 통화긴축의 여파로 특히 선진권 중심의 미약한 흐름을 보이고, 하반기에 일시적 반등을 보인 이후, 2024년 들어 다시 약세 국면으로 진입

- 선진권은 미국이 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2023년 하반기 연 3%대 이상의 고(高)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일본과 유로존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흐름을 보이고, 2024년 들어 동반 약세

- 신흥권에서는 중국이 코로나 국면을 벗어난 데 힘입어 2023년 중 연 5% 이상의 성장률을 회복하고, 러시아(3%대)를 비롯해 인도(7%대)와 브라질(약 3% 수준) 등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 2024년 들어서는 성장 모멘텀의 약화로 약세 국면

  · 전 세계 산업생산(전년동기비): (2023년 상반기) 0.9% (2023년 하반기) 1.2% (2024년 1~2월) 0.4%
  · 선진권 산업생산(전년동기비): (2023년 상반기) -0.8% (2023년 하반기) -1.1% (2024년 1~2월) -1.4%
  · 신흥권 산업생산(전년동기비): (2023년 상반기) 1.6% (2023년 하반기) 2.9% (2024년 1~2월) 2.4%

〈그림 1-5〉 전 세계 및 권역별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 2024년 전망: 주요국들의 경기 안정화 노력에 완만한 성장

○ 2024년 세계경제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공급망 불안과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고 있으나, 주요국들이 경기 안정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도 수준의 완만한 성장 흐름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교역은 흑해 연안 지역을 둘러싼 운송 차질 우려 등으로 당초 예상(연 3%대)보다 약화 예상

- 미국경제는 코로나 이후 서비스 수요 확대와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노동시장의 과열 완화와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인한 수요 둔화세가 이어지면서 성장률이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이 예상

- 일본경제는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 전환과 기시다 정부의 경기부양 한계 등으로 미약한 성장 흐름이 예상되고, 유로존도 역내 인플레 둔화세로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면서도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따른 내·외수의 미약한 흐름이 지속 예상

- 중국경제는 코로나 국면의 종료에도 부동산 경기침체 등 여파로 내수 약세가 이어지고, 서방 국가들의 수출제한 조치로 외수 약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 등으로 전년(5.2%)보다 약간 낮은 성장률(4% 후반)이 예상

〈표 1-1〉 세계 권역별 및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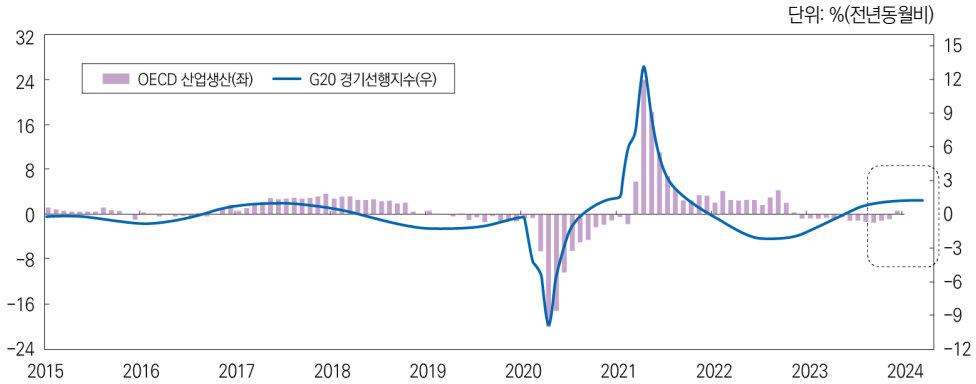
단위: %, 전년동기비(전기비 연율)

	2022	2023					2024	2024 전망치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IMF (24.4월)	OECD (24.5월)	UN (24.5월)
전 세계 실질GDP[1]	3.5					3.2		3.2	3.1	3.1
선진권[2]	2.6	1.6	1.5	1.5	1.6	1.6	-	1.7	-	1.6
미국[3]	1.9	1.7 (2.2)	2.4 (2.1)	2.9 (4.9)	3.1 (3.4)	2.5	3.0 (1.6)	2.7	2.6	2.3
유로존	3.5	1.3	0.6	0.1	0.1	0.5	0.4	0.8	0.7	0.8
일본	1.0	2.6	2.3	1.6	1.2	1.9	-0.2	0.9	0.5	1.2
신흥권	4.1	3.4	4.9	4.0	4.1	4.3		4.2	-	4.1
중국	3.0	4.5	6.3	4.9	5.2	5.2	5.3	4.6	4.9	4.8
세계교역(재화)	3.2					-0.9		2.8	-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UN World Economic Situation & Prospects 등.
주: 1) 전 세계는 PPP 환율 적용 기준. 2) 선진권과 신흥권의 분기별 수치는 세계은행 추산 기준. 3) ( ) 안의 수치는 전기비 연율 기준.

- 세계경기 향방의 주요 변수로는 중동지역과 우크라이나 등지를 둘러싼 전쟁의 전개 양상과 함께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전환 시점 및 강도, 연말로 예정된 미국 대선의 결과 및 파급 영향, 경기부양을 위한 국제적인 정책 공조 여부 등이 관심사

〈그림 1-6〉 OECD 산업생산과 G20 경기선행지수 변화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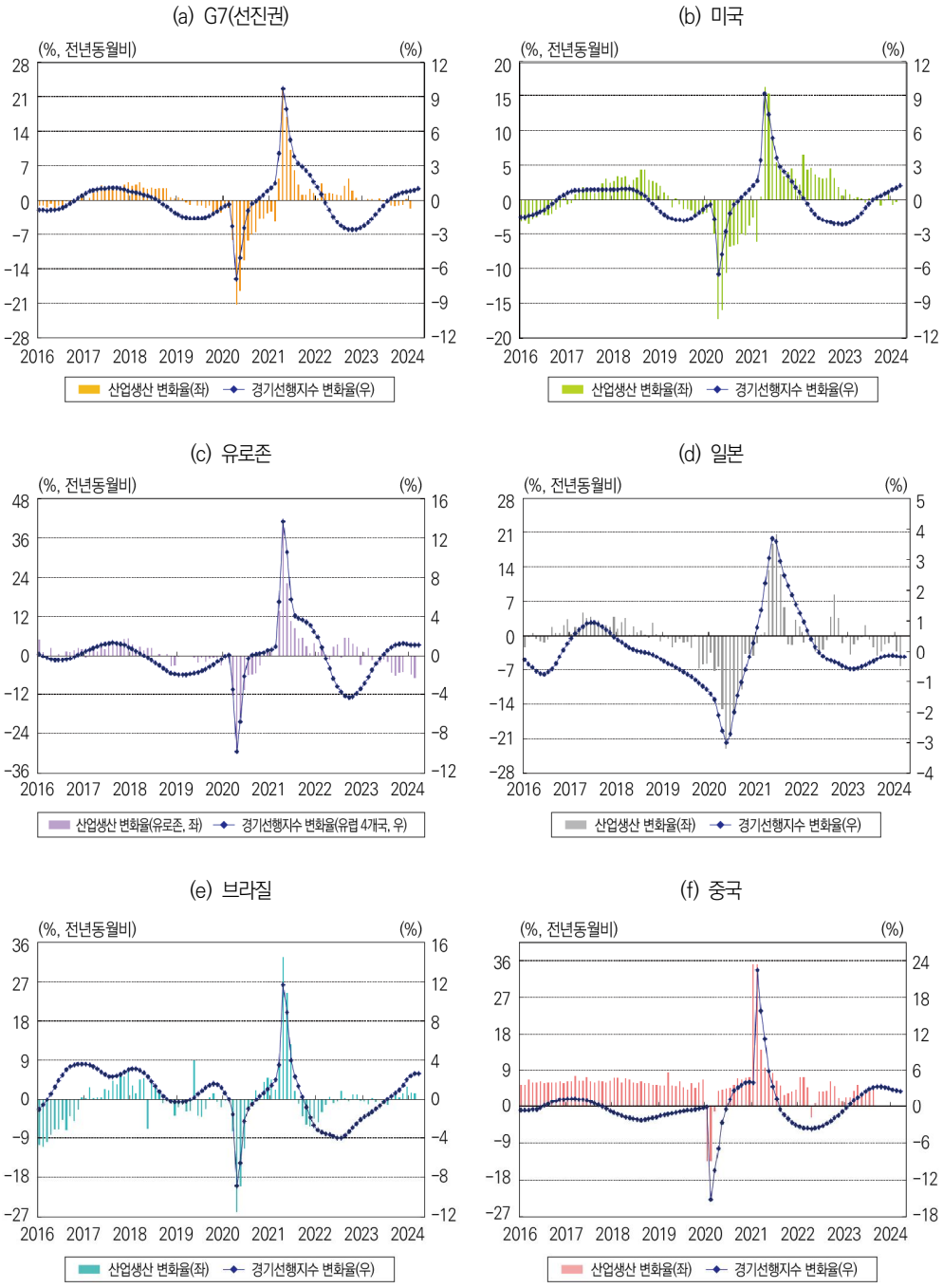
자료: OECD.

〈표 1-2〉 세계 주요 권역 및 주요국별 경기선행지수(CLI) 추이

	경기선행지수[1](장기추세=100)						전월비 변화율(%)						전년 동월비
	2022	2023				2024	2022	2023				2024	2024
	12월	3월	6월	9월	12월	3월	12월	3월	6월	9월	12월	3월	3월
G20개국	98.92	99.28	99.64	99.86	100.10	100.51	0.05	0.36	0.36	0.22	0.24	0.41	1.24
G7(선진권)	98.87	99.01	99.19	99.36	99.56	99.97	▲0.13	0.14	0.19	0.16	0.21	0.41	0.97
유럽 4개국[2]	98.46	99.03	99.20	99.32	99.65	100.13	0.24	0.57	0.17	0.12	0.34	0.47	1.10
아시아 5개국[2]	98.81	99.37	99.94	100.31	100.57	100.95	0.20	0.56	0.56	0.37	0.26	0.38	1.57
미국	98.86	98.82	99.07	99.33	99.55	100.01	▲0.28	▲0.04	0.26	0.26	0.22	0.46	1.19
독일	99.43	99.78	99.40	99.07	99.19	99.54	0.08	0.34	▲0.38	▲0.33	0.12	0.35	▲0.23
프랑스	98.99	98.78	98.69	98.84	99.11	99.41	▲0.27	▲0.21	▲0.09	0.15	0.27	0.30	0.63
영국	96.55	98.10	99.43	100.32	101.17	102.11	0.76	1.55	1.33	0.89	0.85	0.94	4.01
일본	100.04	100.00	100.09	100.10	99.89	99.81	▲0.26	▲0.04	0.09	0.01	▲0.21	▲0.08	▲0.19
브라질	99.44	99.32	99.86	100.47	101.40	101.97	▲0.43	▲0.12	0.54	0.61	0.93	0.58	2.65
중국	98.10	99.19	100.05	100.65	101.10	101.70	0.66	1.09	0.86	0.60	0.45	0.61	2.51
인도	99.87	99.69	99.64	99.65	99.69	99.81	▲0.29	▲0.18	▲0.05	0.00	0.04	0.12	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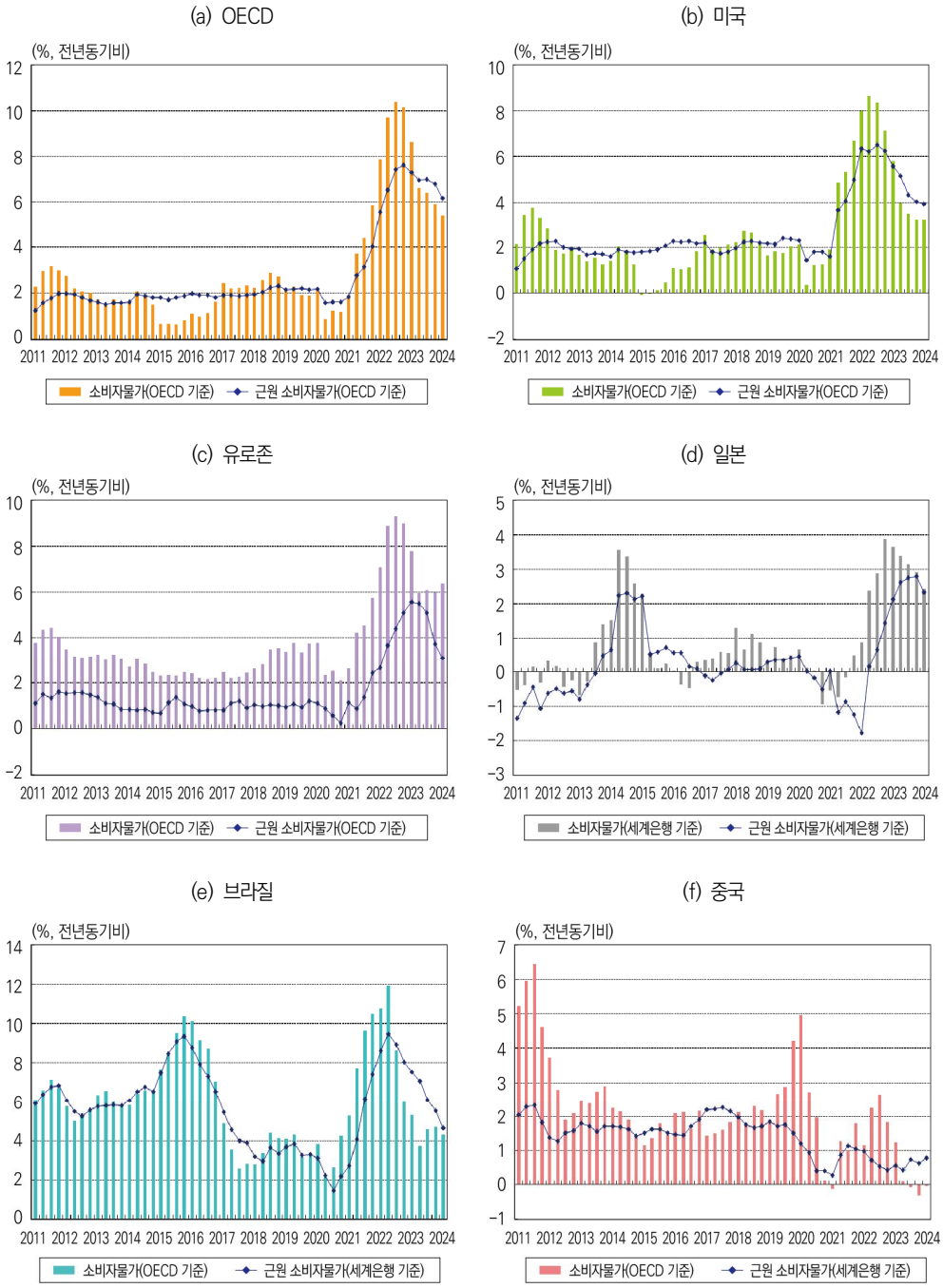
자료: OECD.
주: 1) 지수가 100 이상에서 상승(또는 하락) 시 경기 확장(또는 수축), 100 미만에서 상승(또는 하락) 시 경기 회복(또는 하강)을 의미.
2) 유럽 4개국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아시아 5개국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등. 3) ▲는 마이너스를 의미.

〈그림 1-7〉 세계 주요국의 산업생산과 경기선행지수 변화율 추이(월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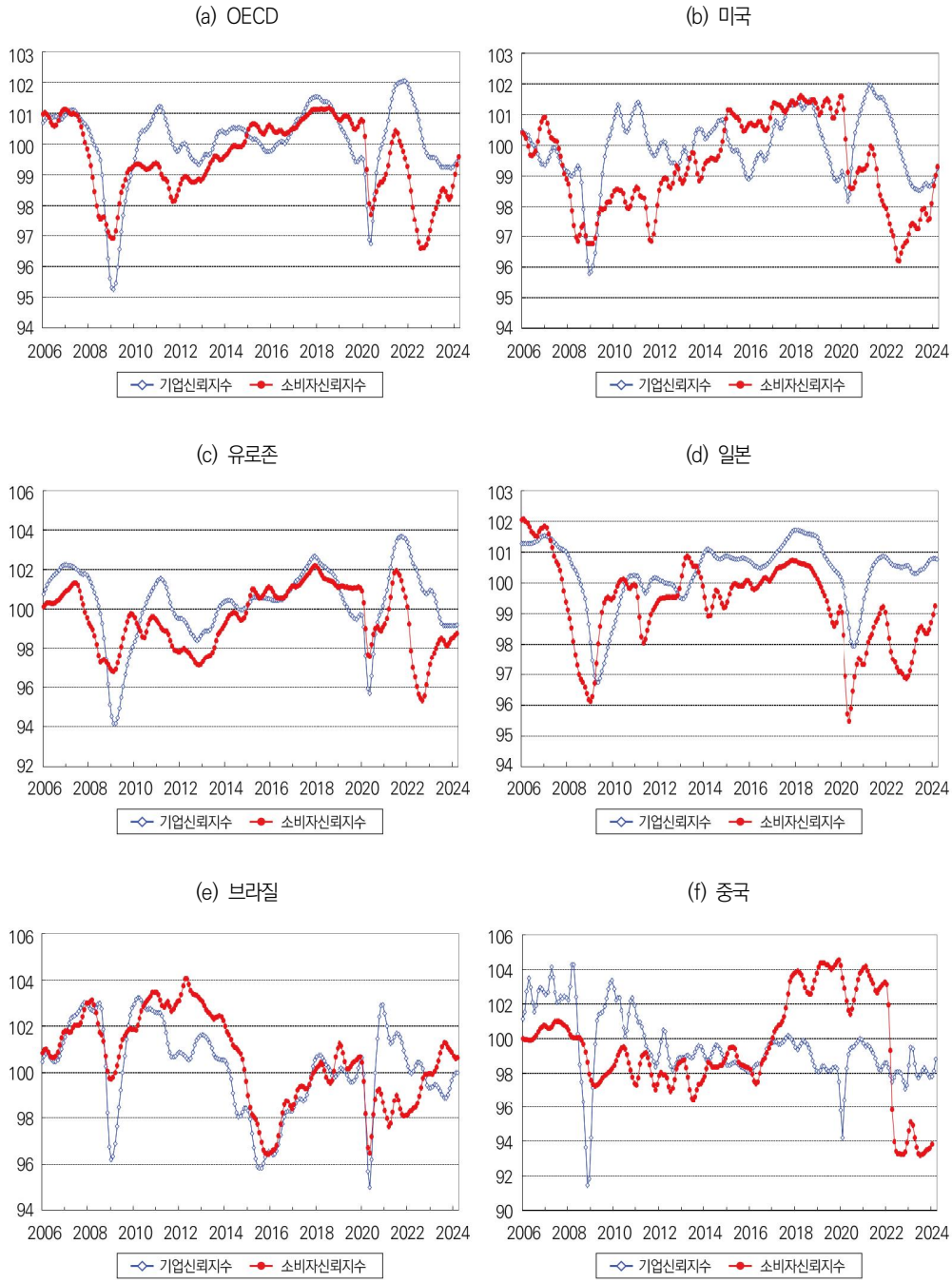
자료: OECD.

〈그림 1-8〉 세계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및 근원 소비자물가 변화율 추이(분기별)



자료: OECD; World Bank.

〈그림 1-9〉 세계 주요국의 기업신뢰지수 및 소비자신뢰지수 추이(월별)



자료: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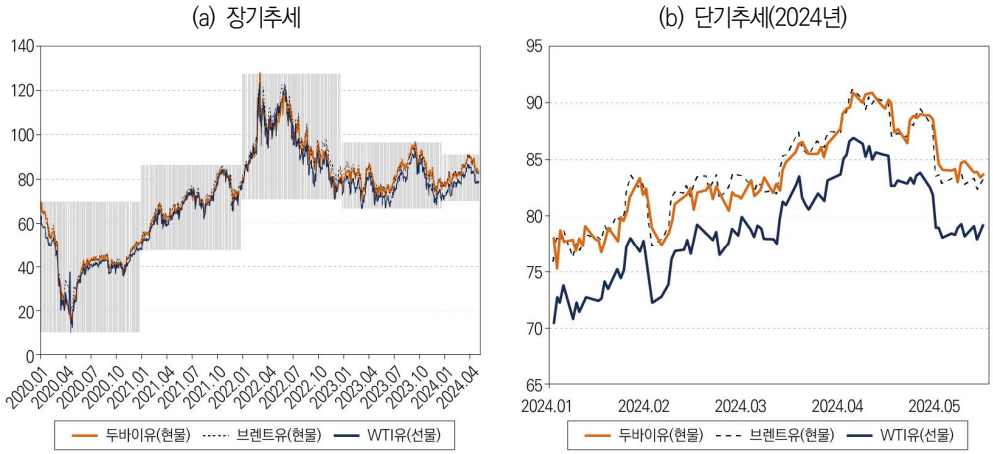
(2) 유가: 2023년과 비슷한 수준(연평균 83달러 내외) 예상

○ 2024년 상반기 국제유가는 중동지역의 지정학 리스크 확대, 미국 원유 생산 차질 등 공급 요인과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상향,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상승하다 최근 중동지역의 긴장이 완화되면서 안정세를 찾으며 80달러 초반대 유지

- 중동정세 불안은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하며 국제유가 상승을 견인하면서 한때 국제유가는 4월 중 91.2달러/배럴(4.5일, 브렌트유 기준)을 기록하며 연고점을 갱신

- 이후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완화로 다소 안정세를 찾으며 80달러 초반대 유지

〈그림 1-10〉 국제유가 추이



자료: 한국석유공사.
주: 1) 음영 부분은 연간 변동 범위(최솟값~최댓값)임.
2) 2020. 4. 20. WTI유 가격은 배럴당 -37.6달러를 기록.

○ 2024년 국제유가는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원유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비OPEC 국가들의 원유 공급이 일부 이루어지면서 현 수준(두바이유 기준, 82~83달러)을 중심으로 형성될 전망

- 두바이유 기준 2024년 유가는 상반기 평균 83.4달러(전년동기비 5.5% 상승), 하반기에는 82.8달러(전년동기비 2.7% 하락)로 예상하고, 연평균 83.1달러(전년 대비 1.2% 상승)로 전망

〈표 1-3〉 2024년 국제유가 전망(국내경제 전망을 위한 전제)

단위: 달러/배럴, 기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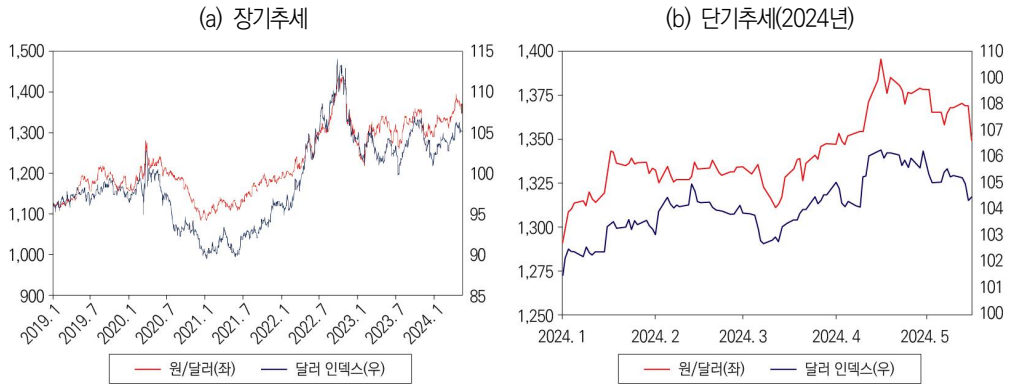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두바이유	79.1 (-22.4)	85.1 (-6.3)	82.1 (-14.8)	83.4 (5.5)	82.8 (-2.7)	83.1 (1.2)

주: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단위 %.
2) 2024년 상반기는 5월 17일 현재 기준.

(3) 환율: 달러 강세가 지속되며 1,320원대 예상

○ 2024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연초 미국 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와 중동지역의 리스크 확대로 한때 1,400원을 상회한 이후, 유럽과 일본 등 주요국 통화의 약세 전환, 지정학적 불안 지속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 등으로 1,300원 초중반대에서 횡보

〈그림 1-11〉 원/달러, 달러인덱스 추이



자료: ICE Data Services, 한국은행, Data Stream.

○ 원/달러 환율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 및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요인들이 강달러를 지지하다, 수출 회복 등의 원화 강세 요인과 맞물리면서 차츰 약세로 전환되면서 완만히 하락할 전망

- 원/달러 환율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요인들이 강달러를 지지하다 수출 회복 등의 원화 강세 요인과 맞물리면서 차츰 약세로 전환되며 완만히 하

락할 전망

- 원/달러 환율의 주요 변동 요인은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기대감 변화, 미국 대선 결과, 중동 지정학적 위험 요소의 확대 여부 등

〈표 1-4〉 2024년 원/달러 환율 전망

단위: 원/달러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1,295.3 (5.1)	1,316.7 (-2.5)	1306.0 (1.1)	1,344.5 (3.8)	1,313.3 (-0.3)	1,328.9 (1.5)

주: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단위 %.
2) 2024년 상반기는 5월 17일 현재 기준.

3. 2024년 국내경제 전망

(1) 경제성장

○ 2024년 국내경제는 내수 부문에서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이 성장세를 제약할 전망이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자동차, 조선 등의 주력산업의 수출 호조세가 전체 경제 성장을 주도함에 따라 2.5% 성장할 전망

-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진정 여부와 주요국들의 금리 인하 시점, 전쟁 등 국가 간 대립으로 인한 지정학적 갈등,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등이 대외적 리스크 요인

○ 2024년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고물가로 인한 실질 구매력의 약세와 고금리 기조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등의 영향으로 미약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하반기에는 안정적 물가와 수출 확대에 따른 소득 여건 개선에 힘입어 부진은 다소 완화될 전망

○ 2024년 설비투자는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다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고금리 기조 유지에 따른 높은 자금조달 비용 부담과 여전히 큰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제한적인 증가세를 보일 전망

○ 2024년 건설투자는 건설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지만, 금리 인하 시점 지연, 부동산 경기 둔화와 신규 인허가·착공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지난해보다 감소할 전망

○ 2024년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전년 대비 8.3% 확대되고, 수입은 하반기 수출 업황 개선에 따른 중간재 수입 증가로 연간 1.4% 증가 전망

- 무역수지는 수입을 상회하는 수출의 견조한 증가에 힘입어 연간 335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3년 만에 연간 흑자 달성 기대

〈표 1-5〉 국내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억 달러

	2022	2023			2024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실질GDP	2.6	0.9	1.8	1.4	2.8	2.2	2.5
민간소비	4.1	3.1	0.6	1.8	1.4	2.1	1.8
설비투자	-0.9	5.3	-3.9	0.5	0.2	4.5	2.3
건설투자	-2.8	1.8	0.8	1.3	-1.3	-1.8	-1.5
통관 수출	6,836 (6.1)	3,070 (-12.4)	3,252 (-2.4)	6,322 (-7.5)	3,284 (7.1)	3,561 (9.5)	6,848 (8.3)
통관 수입	7,314 (18.9)	3,333 (-7.7)	3,093 (-16.4)	6,426 (-12.1)	3,149 (-5.5)	3,364 (8.8)	6,513 (1.4)
무역수지	-478	-263	159	-103	138	197	335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주: 2024년부터는 산업연구원 전망치.

(2) 부문별 전망

1) 민간소비

○ 소비는 오랜 기간 유지되고 있는 고물가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높은 금리로 인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으로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

- 민간소비는 2023년 4분기 전년동기비 0.9% 성장한 후, 2024년 1분기 전년동기비 1.1% 증가하며 성장세가 소폭 확대

- 실질총소득(GNI)은 수입물가 하락과 교역조건 개선 등에 힘입어 2023년 2분기 전년동기비 0.8% 증가한 후, 3분기 3.0%, 4분기 2.9%로 증가세가 확대

  · 수입물가 변화율(전년동기비, %, 달러기준): (2023. 3/4) -9.0 → (4/4) -4.8 → (2024. 1/4) -4.1

  · 소득교역조건 변화율(전년동기비, %): (2023. 3/4) 3.7 → (4/4) 9.8 → (2024. 1/4) 11.1

-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의 감소세가 전분기에 비해 확대되었고,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 및 내구재 판매의 감소세도 지속되면서 전년동기비 1.8% 감소

〈표 1-6〉 민간소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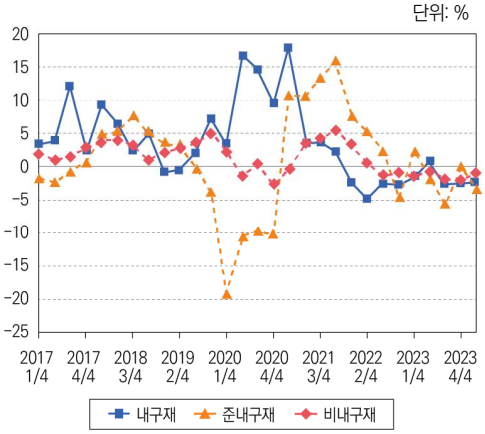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비, %

	2022	2023					2024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민간소비	4.1	4.6 (0.6)	1.6 (-0.1)	0.2 (0.3)	0.9 (0.2)	1.8	1.1 (0.8)
소매판매액지수	-0.3	-0.8 (0.6)	-0.7 (-0.5)	-2.7 (-1.9)	-1.9 (0.4)	-1.5	-1.8 (-0.2)
실질 GNI	-0.7	0.6 (-6.8)	0.8 (3.1)	3.0 (2.1)	2.9 (4.8)	1.8	-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 ) 안은 계절조정 자료의 전기비.

〈그림 1-12〉 재화별 소매판매 추이(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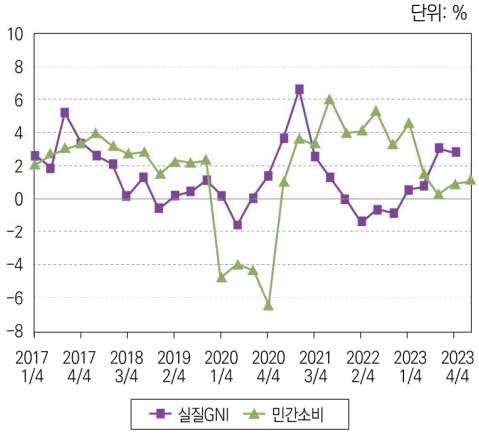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그림 1-13〉 민간소비와 실질GNI(전년동기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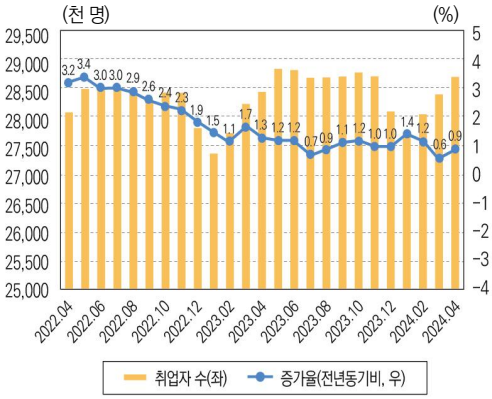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취업자 수 증가세는 작년에 비해 둔화한 모습을 보이지만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고용률 또한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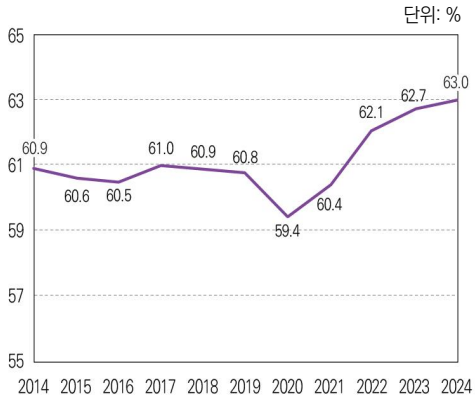
- 취업자 수는 2024년 4월 기준 전년동월비 0.9% 증가한 2,869만 명 수준이고 고용률 역시 전년(2023년 4월 62.7%)보다 0.3%포인트 높은 63.0%를 기록

〈그림 1-14〉 취업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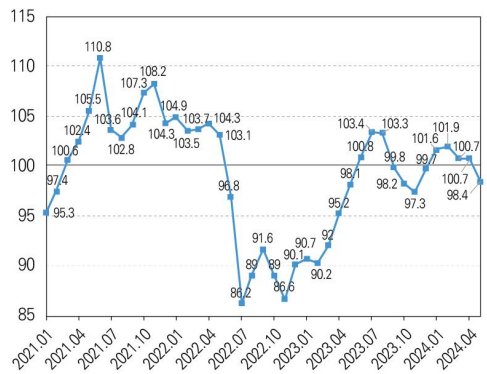
〈그림 1-15〉 고용률 추이(4월)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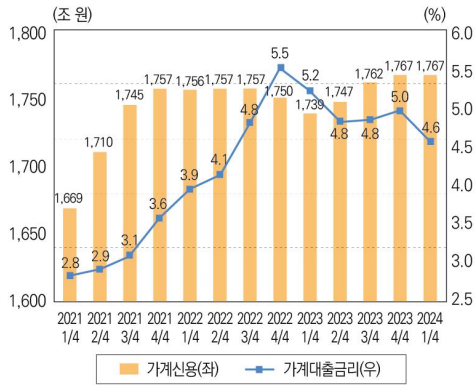
○ 소비자 심리지수는 올 2월 101.9까지 상승한 이후 5월까지 하락하면서 소비심리가 약화되는 모습이며, 2024년 1분기 가계대출금리는 4.6%로 2023년 4분기에 비해 0.4% 하락

〈그림 1-16〉 소비자 심리지수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그림 1-17〉 가계부채 및 대출금리



자료: 한국은행.

○ 2024년 민간소비는 고물가의 장기간 지속에 따른 실질 구매력의 약세와 고금리 기조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등의 영향으로 미약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하반기에는 안정적 물가와 수출 확대에 따른 소득 여건 개선에 힘입어 부진이 다소 완화될 전망

- 최근 가계대출의 증가폭 축소, 대출금리 안정, 수출개선 등의 긍정적 요인은 하반기 민간소비 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표 1-7〉 민간소비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민간소비	3.1	0.6	1.8	1.4	2.1	1.8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주: 2024년부터 산업연구원 전망치.

2) 설비투자

○ 설비투자는 올해 초 반도체 부문에서 일시적 증가가 있었으나, 높은 조달 금리, 경기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 그리고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전반적으로 부진

- 최근 설비투자는 반도체 등 IT 경기 회복세로 2024년 1분기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전년동기비 0.6% 증가였으나, 금리 인하 시점 지연, 지정학적 리스크 등과 관련된 불확실성의 확대 등이 회복세를 제약하는 모습

〈표 1-8〉 설비투자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2022	2023					2024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설비투자	-0.9	5.9 (-5.0)	4.7 (0.5)	-4.2 (-2.2)	-3.6 (3.3)	0.5	0.6 (-0.8)
기계류	1.7	7.5 (-6.3)	7.1 (1.0)	-5.1 (-4.7)	-8.5 (2.1)	0.0	-
운송장비	-9.4	-0.5 (0.4)	-3.2 (-1.0)	-0.8 (7.3)	13.9 (7.5)	2.7	-

자료: 한국은행.
주: 1) 2024년 1분기는 속보치.
2) ( ) 안은 계절조정계열의 전기비 증감률.

○ 2024년 1분기 설비투자지수는 지난해(-5.4%, 연간)보다 하락폭(-0.9%)이 현저하게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표 1-9〉 부문별 설비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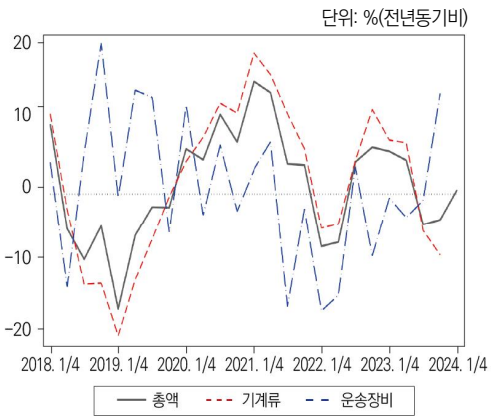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비, %

		2023					2024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1월	2월[1]	3월[1]
부문별	총지수	-5.4	-1.0	-0.9	-10.7	-8.5	-0.9	3.8	-0.9	-4.8
	기계류	-7.5	-1.8	-3.4	-13.6	-10.9	-0.5	7.5	-0.1	-7.6
	일반기계류	-9.5	-2.1	-1.9	-18.9	-14.6	0.0	10.9	3.2	-10.7
	전기 및 전자기기	1.7	-3.8	-8.8	-4.3	-5.5	0.9	7.6	-5.8	0.5
	정밀기기	-2.4	6.9	-1.5	-8.1	-6.4	-3.0	-3.4	-1.7	-3.7
	기타기기	-4.8	-8.0	-6.3	-2.9	-1.5	-5.6	1.7	-8.3	-9.6
	운송장비	1.0	1.3	6.4	-1.7	-1.7	-1.8	-7.4	-3.0	4.2
	자동차	-1.4	13.9	10.2	-12.7	-13.5	-17.9	-20.9	-14.2	-18.2
	기타운송장비	4.5	-15.3	1.0	15.2	15.8	26.6	17.7	13.8	5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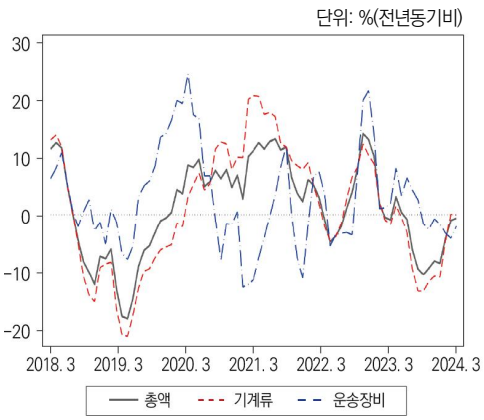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주: 1) 잠정치.

〈그림 1-18〉 설비투자 추이

(a) 설비투자 증감률(한국은행)



(b) 설비투자지수 증감률(통계청)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설비투자지수 증감률은 3개월 중심항 이동평균.

- 기계류 투자는 1월에 일반기계류(10.9%)와 전기 및 전자기기(7.6%)가 큰 폭 증가하면서 잠시 회복세를 보였으나, 3월에 일반기계류(-10.7%)와 기타기기(-9.6%)가 크게 감소

- 운송장비는 올해 1분기 기타운송장비(26.6%)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자동차(-17.9%)가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이면서 지난해 하반기에 시작된 감소세가 이어지는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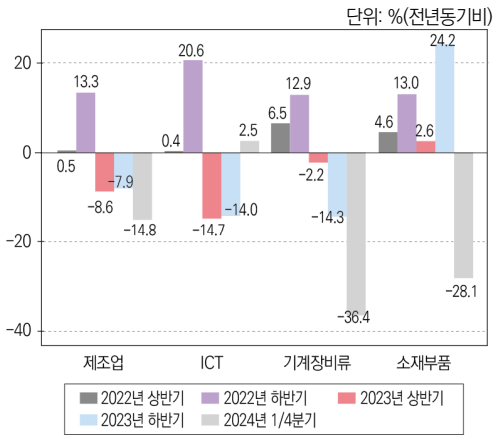
○ 설비투자 선행지표를 보면, 제조업 기계수주액이 2024년 1분기 ICT(2.5%)가 증가세로 전환됨에도 불구하고, 기계장비류(-36.4%)와 소재부품(-28.1%)이 크게 부진하면서 전년 동기비 14.8%나 감소

- 설비투자 전망 BSI는 올해 들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치(2024년 1월~6월 평균 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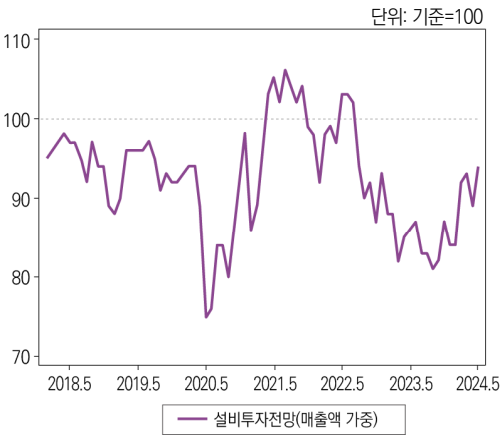
· 2009년 1월~2019년 12월 기간 (매출액 가중) 설비투자 BSI 전망치의 평균은 96.2

〈그림 1-19〉 설비투자 선행지표 추이

(a) 수요자별 기계수주액(선박 제외) 증감률



(b) 제조업 설비투자 전망 BSI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제조업 설비투자 전망은 다음 달 전망.

○ 제조업 설비투자조정압력은 2024년 1분기 ICT(23.8%포인트)에서 상승하였으나, 최근 3월에는 ICT를 제외한 모든 주요 업종에서 하락하는 모습

- 최근 3월 지표의 흐름은 향후 설비투자의 수요 회복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

〈표 1-10〉 설비투자조정압력 추이

단위: %포인트

		2023					2024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1월	2월[1)]	3월[1)]
제조업		-2.6	-7.8	-5.4	-0.2	3.0	4.5	12.3	3.5	-1.2
ICT		-6.1	-28.6	-15.4	4.8	15.0	23.8	23.8	37.2	13.6
기계 장비류	자동차	7.9	17.6	11.7	2.8	-0.2	-1.7	15.4	-10.0	-7.7
	기타운송장비	7.2	9.2	5.3	9.1	5.1	3.9	18.3	-2.7	-1.2
	일반기계	-8.3	3.5	-6.8	-15.3	-14.6	-4.6	3.1	-9.8	-6.1
소재 부품	석유정제	0.1	0.9	2.2	-8.2	5.5	3.4	5.5	6.6	-1.7
	화학제품	-7.2	-16.6	-12.6	-2.2	2.4	-3.7	2.9	-6.7	-7.1
	1차금속	0.7	-7.0	-3.0	0.5	12.4	-0.1	10.9	-4.0	-6.2
	섬유제품	-5.9	-5.0	-6.5	-6.7	-5.5	-7.7	0.6	-13.9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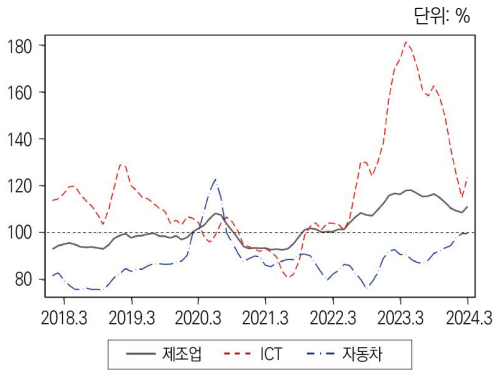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주: 1) 잠정치.
2) 설비투자조정압력 = 제조업 생산지수 증감률 - 제조업 생산능력 증감률.

○ 제조업 재고율은 올해 들어 반도체 등 ICT 업종의 재고율이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안정된 수준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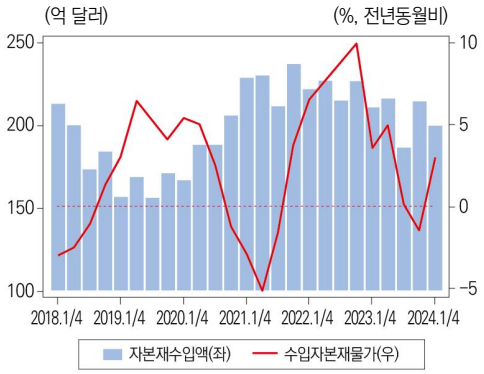
· 제조업 재고율 추이(%): (2023. 2/4) 116.8 → (3/4) 116.5 → (4/4) 110.5 → (2024. 1/4) 111.2

〈그림 1-20〉 재고율과 자본재수입

(a) 주요 업종별 재고율



(b) 자본재수입액 및 수입자본재물가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재고율 = (계절조정재고지수/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2) 재고율은 3개월 중심항 이동평균.
3) 자본재수입액은 달러 기준, 수입자본재물가는 원화 기준.

- 1분기 수입 자본재 물가는 최근에 상승 전환되었고, 자본재의 수입 의존도[1]가 높은 구조를 감안하면, 최근의 원화 약세는 수입 자본재 가격의 상승을 야기하여 설비투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 2024년 설비투자는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다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고금리 기조 유지에 따른 높은 자금조달 비용 부담과 여전히 큰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제한적인 증가세를 보일 전망

- 반도체 업황 개선 등의 영향으로 주요 IT 기업들과 그리고 친환경 분야에 대한 자동차 업체들의 설비투자가 이어질 전망[2]이나 향후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느리거나 불확실성이 확대된다면 계획된 투자 집행이 늦어질 가능성 존재

〈표 1-11〉 설비투자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설비투자	5.3	-3.9	0.5	0.2	4.5	2.3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주: 2024년부터 산업연구원 전망치.

3) 건설투자

○ 건설투자는 지난해 건설자재 가격 안정화에 힘입어 일시적 반등을 보인 후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 부진과 PF 부실 우려 등으로 지난해 4분기부터 침체가 지속되는 모습

- 2024년 1분기 건설투자는 전기 대비 2.7% 증가했으나, 이는 직전 분기의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가 상당 부분 작용했을 가능성

1) 총자본재에서 수입 자본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31.6%(2024년 2월 기준, 통계청 제조업 국내공급지수).
2) 주요 기업들의 2024년 1분기 컨퍼런스콜에서의 설비투자 계획에 대한 언급
・SK하이닉스 "빠르게 성장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대응과 M15X에 대한 투자로 연초 계획보다 증가할 계획"
・삼성전자: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설투자 및 R&D 투자를 꾸준히 이어갈 방침"
・현대자동차그룹: "2026년까지 3년간 국내에서 8만 명을 채용하고, 68조 원을 투자"

- 건설기성액은 건물건설이 지난 4분기부터 부진했으나, 토목건설이 올해 1분기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반등세를 보임.

  · 건설기성액(불변, 전년동기비, %): (2023. 3/4) 10.1 → (4/4) 0.6 → (2024. 1/4) 5.3

  * 건물건설부문(불변, 전년동기비, %): (2023. 3/4) 11.6 → (4/4) 0.6 → (2024. 1/4) 0.8

  * 토목건설부문(불변, 전년동기비, %): (2023. 3/4) 5.3 → (4/4) 0.8 → (2024. 1/4) 8.9

〈표 1-12〉 건설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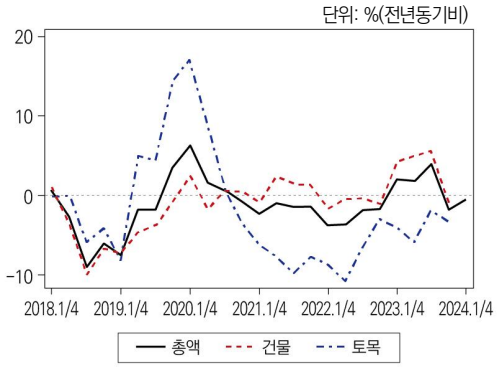
단위: %

		2022	2023					2024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건설투자		-2.8	1.9 (1.3)	1.7 (-0.8)	3.8 (2.1)	-1.9 (-4.5)	1.3	-0.6 (2.7)
형태별	건물건설	-1.0	4.2 (2.6)	4.8 (1.4)	5.5 (1.2)	-1.3 (-6.3)	3.3	
	주거용 건물	-3.0	5.7 (4.0)	5.2 (4.7)	5.6 (-1.2)	0.2 (-7.0)	4.1	
	비주거용 건물	0.9	2.7 (1.2)	4.5 (-1.7)	5.5 (3.6)	-2.6 (-5.6)	2.5	
	토목건설	-7.4	-4.3 (-2.1)	-6.0 (-7.1)	-1.9 (4.8)	-3.5 (1.0)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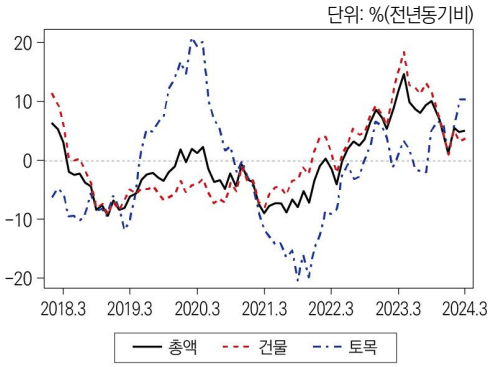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주: 1) 2024년 1분기는 잠정치.
2) ( ) 안은 계절조정계열의 전기비 증감률.

〈그림 1-21〉 건설투자와 건설기성액 추이

(a) 건설투자 증감률(한국은행)



(b) 건설기성액 증감률(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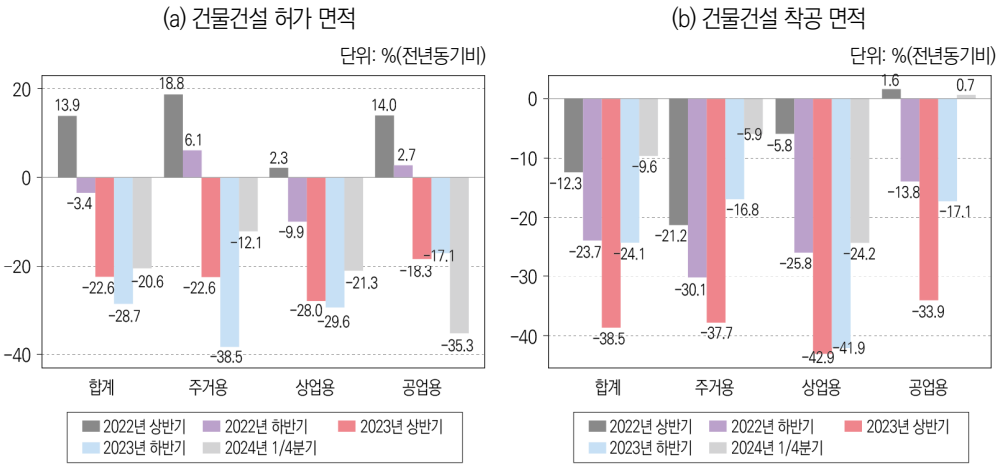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주: 건설기성액(불변)은 3개월 중심항 이동평균.

○ 건물건설의 허가 및 착공 면적 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황으로 부동산 경기 위축 분위기가 지속되는 모습

- 2024년 1분기 허가 면적은 전년동기 대비 20.6%, 착공 면적은 9.6% 감소하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

〈그림 1-22〉 건물건설 인허가 · 착공 추이



자료: 통계청.
주: 건설기성액(불변)은 3개월 중심항 이동평균.

○ 건설투자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은 최근 건물건설의 감소폭이 줄어들었으나 토목건설이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지난해의 부진이 이어지는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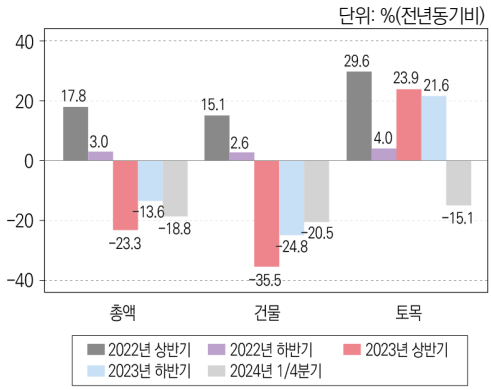
- 부동산 심리지수는 최근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으나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PF 문제 등의 하방요인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

○ 2024년 건설투자는 건설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지만, 금리 인하 시점 지연, 부동산 경기 둔화와 신규 인허가 · 착공 감소 등을 감안할 때 지난해보다 감소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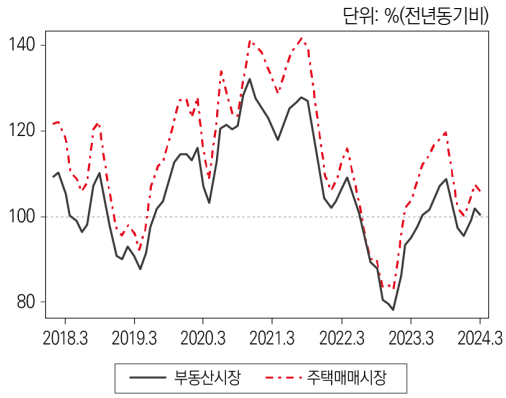
- 건설투자는 금리 인하 시점 지연, 신규 인허가 및 착공 위축, 부동산 심리 부진, 건설 관련 선행지표 악화 지속 등으로 하방 압력이 큰 상황

〈그림 1-23〉 건설투자 선행지표 추이

(a) 건설수주액 증감률



(b) 부동산 심리지수



자료: 통계청, 국토연구원.

〈표 1-13〉 건설투자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건설투자	1.8	0.8	1.3	-1.3	-1.8	-1.5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주: 2024년부터 산업연구원 전망치.

4) 수출입(통관기준)

□ 2024년 수출입 동향: 반도체 경기 회복, 자동차의 견조한 성장세로 4월까지 무역수지 흑자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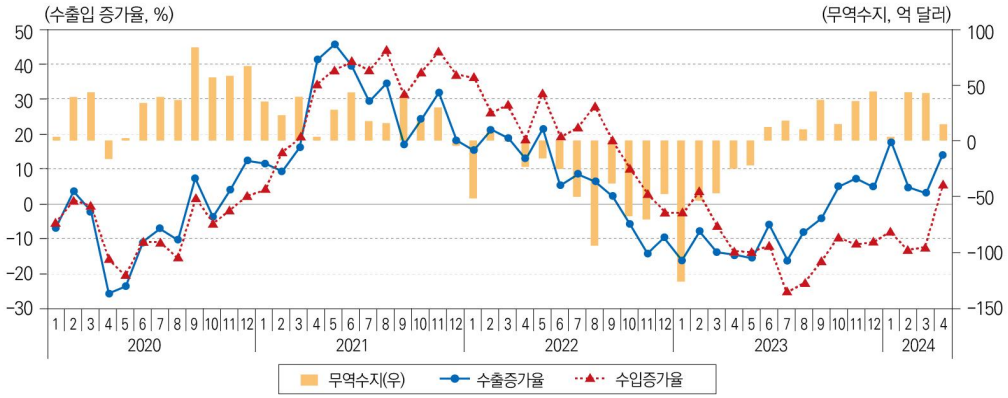
○ 2024년 수출은 전년 말부터 이어진 반도체 회복세에 더하여 자동차 역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무역수지 흑자 지속

- 국가 간 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반도체 경기의 강한 회복세로 전년도 10월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수입은 4월 반등하긴 했으나 그동안 누적된 감소세를 보이면서 무역수지는 4월까지 누적 100억 달러를 돌파

  · 수출(전년동기비, %): (2022년) 6.1 → (2023. 4/4) 5.7 → (2024. 1/4) 8.3 → (4월) 13.8

  · 수입(전년동기비, %): (2022년) 18.9 → (2023. 4/4) -10.7 → (2024. 1/4) -11.1 → (4월) 5.4

〈그림 1-24〉 수출입 증가율과 무역수지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 수출을 단가와 물량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최근의 수출 회복세 물량 변동이 주도한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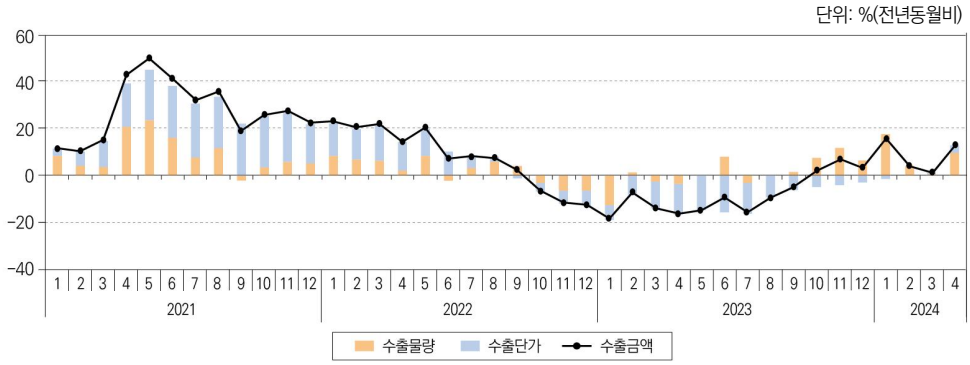
- 지난해 9월까지는 수출금액의 변화는 단가요인이 우세했으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수출 증가세는 단가요인보다 물량요인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

  · 수출물량(전년동기비, %): (2022년) 1.8 → (2023. 4/4) 8.6 → (2024. 1/4) 6.8 → (4월) 9.8

  · 수출단가(전년동기비, %): (2022년) 5.0 → (2023. 4/4) -4.1 → (2024. 1/4) -0.3 → (4월) 3.1

  · 무역수지(억 달러): (2023. 2/4) -34 → (3/4) 64 → (4/4) 95 → (2024. 1/4)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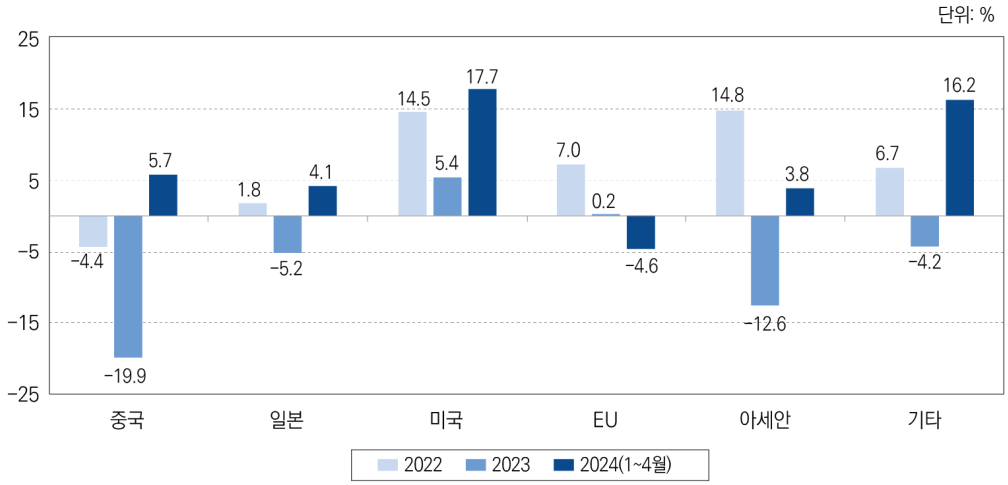
〈그림 1-25〉 수출 물량 및 단가, 금액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저자 작성.

○ 지역별 수출을 보면, EU를 제외한 국가들에서 수출 회복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특히 대미 수출 증가율이 높은 양상

〈그림 1-26〉 지역별 수출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 대(對)중국, 대아세안 수출은 2023년 각각 19.9%, 12.6% 감소하면서 큰 감소폭을 보였으나, 반도체 경기 회복 등 주력 수출품목의 실적 개선으로 2024년 들어 반등하기 시작
- 대미 수출은 지난해 견조한 모습을 보였던 자동차에 더해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반도체 수출 증가가 나타나면서 2024년 들어서 17.7%나 증가

○ (품목별 수출) 자동차 수출의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 회복세가 강하게 관측

- 자동차 수출은 2024년 1/4분기 2.7% 증가한 데 이어 4월에도 10.3% 증가하면서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
- 반도체는 2023년 3분기부터 시작된 회복세에 더해 전년도 기저효과가 겹치면서 2024년 1/4분기 50%가 넘는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고 4월에도 56.1%로 증가세가 유지
- 무선통신기기, 섬유의 경우, 1/4분기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4월 수출은 반등하였고, 철강은 2023년부터 시작된 수출 감소가 2024년에도 4월까지 이어지는 모습

〈표 1-14〉 산업별 수출 증가율

단위: 전년동기비,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3/4	4/4	12월	1/4	1월	2월	3월	4월
자동차	16.4	31.1	17.1	19.6	17.8	2.7	24.7	-7.9	-5.0	10.3
자동차부품	2.4	-1.6	0.4	-3.9	-10.8	-0.5	10.2	-3.1	-6.8	2.9
선박류	-20.9	19.9	-5.7	58.7	46.6	64.3	76.0	27.8	101.9	5.6
일반기계	2.0	4.6	6.7	8.5	2.1	0.8	14.1	1.2	-10.4	1.5
철강	5.7	-8.5	-5.5	-5.9	-5.2	-5.6	2.0	-10.1	-7.9	-5.7
석유화학	-1.4	-15.9	-13.8	2.2	4.0	-0.1	4.5	-2.6	-1.8	12.3
석유제품	64.9	-17.3	-27.4	1.5	-4.0	4.3	13.7	-3.7	3.6	18.9
섬유	-4.0	-11.3	-11.8	-6.3	-10.1	-7.0	8.0	-11.9	-14.3	1.7
가전	-7.4	-1.0	7.0	7.5	2.9	2.0	14.1	-4.5	-2.4	9.4
무선통신기기	-10.4	-10.2	-8.4	0.4	-3.0	-9.7	-14.2	-16.6	5.1	11.4
컴퓨터	-4.7	-53.3	-48.1	-31.6	-34.5	26.4	37.3	18.5	24.5	76.2
반도체	1.0	-23.7	-22.6	10.4	21.7	50.7	56.2	66.7	35.7	56.1
디스플레이	-1.1	-12.1	1.2	10.8	10.9	12.5	2.1	20.2	16.2	16.3

자료: 한국무역협회.

○ 수입은 2023년 들어 수입단가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하반기부터는 물량 역시 감소 전환하면서 수입금액 감소세가 뚜렷한 모습

〈표 1-15〉 가공단계별 수입

단위: 억 달러, %

	2023			2024(1~4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비중
총수입	6,426	-12.1	100	2,094	-7.3	100
1차산품	1,464	-19.1	22.8	482	-4.5	23.0
(원유)	862	-18.7	13.4	295	2.3	14.1
중간재	3,268	-12.0	50.9	1,066	-9.1	50.9
자본재	829	-7.0	12.9	267	-6.3	12.8
소비재	839	-4.0	13.1	271	-6.4	12.9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24년 수출입 전망: 수출 8.3%, 수입 1.4% 증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연간 무역흑자 달성 전망

○ 2024년 수출은 반도체를 필두로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산업의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전년 대비 8.3% 증가할 전망

- 반도체는 최근 50%를 넘는 강한 회복세를 보였으며, 연말까지 1,3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출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지역별로도 그동안 큰 감소세를 보였던 중국 및 아세안 지역에 대한 수출이 반도체 업황 회복과 함께 반등하며 향후 수출 전망은 긍정적

- 유가와 환율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지만 그 변화폭은 크지 않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 물량 측면에서는 반도체 및 개도국에 대한 수출을 중심으로 하반기 회복세가 기대

○ 2024년 수입은 국제유가 소폭 인상과 수출 업황 개선에 따른 중간재 수입 증가, 환율 등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1.4% 증가 예상

- 유가의 소폭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 업황 개선으로 중간재 수입도 증가하면서 물량요인에서 기인한 수입 증가 예상

○ 2024년 무역수지는 수입을 상회하는 수출의 견조한 증가에 힘입어 연간 335억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3년 만에 연간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

〈표 1-16〉 2024년 수출입 전망

단위: %, 억 달러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통관기준 수출	6,836 (6.1)	3,070 (-12.4)	3,252 (-2.4)	6,322 (-7.5)	3,345 (9.0)	3,503 (7.7)	6,848 (8.3)
통관기준 수입	7,314 (18.9)	3,333 (-7.7)	3,093 (-16.4)	6,426 (-12.1)	3,208 (-3.7)	3,305 (6.8)	6,513 (1.4)
무역수지	-478	-263	159	-103	137	198	335

자료: 한국무역협회, 산업연구원.
주: 2024년부터 산업연구원 전망치.

〈참고〉 수출의 구조적 요인의 영향 변화 분석과 시사점

□ (장기 추이) 장기적으로 한국 수출의 성장은 자동차와 반도체가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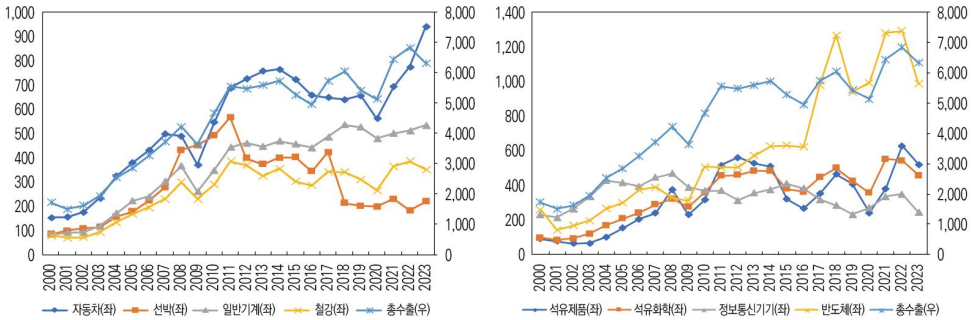
○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 수출 규모가 약 네 배로 커진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산업별로 반도체와 자동차(부품 포함)가 큰 기여

- 석유제품, 석유화학, 철강은 2010년 초반까지는 총수출 확대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으나, 중국과의 경쟁이 본격화된 2010년 중반부터 성장세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조선은 2010년 이후 수출액이 확연히 축소

- 정보통신기기는 생산 거점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수출액이 꾸준히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일반기계는 장기간에 걸쳐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

산업별 수출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무역협회.

□ (최근 현황) 최근 1~2년간의 수출 역시 반도체와 자동차가 이끄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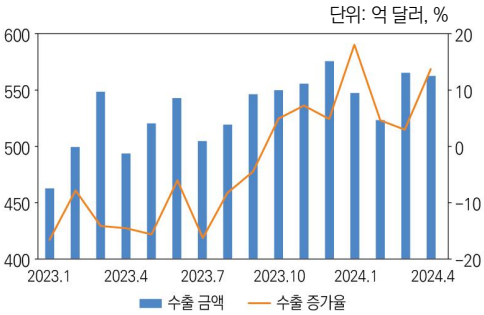
○ 올해 들어 4월까지 수출액은 전년동기비 9.6% 증가한 2,20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 최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모습

- 작년 수출은 세계경기 회복 지연, ICT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부진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남.

- 특히 2024년 1~4월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의 수출 금액은 동 기간 총수출의 33.2%에 달하는 약 730억 달러로 역대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면서 한국 수출 성장을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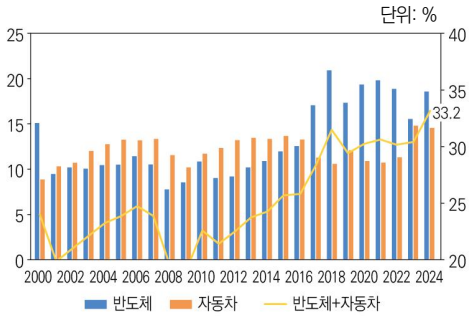
- 반도체는 IT 경기 회복과 AI 반도체 수요가 확대되면서 2023년의 수출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자동차는 전년에 이어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는 중(2024년 4월 현재)

수출 추이(2023년 1월~2024년 4월)



자료: 무역협회.

자동차+반도체 수출 비중 추이



자료: 무역협회.
주: 1) 자동차 = 완성차 + 자동차부품.
2) 2024년은 1~4월 기준.

□ 수출수요의 변화 요인을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으로 분해

○ 수출수요모형에서 전 세계 소득(산업별, IHS)에 대한 반응의 정도인 소득탄력성이 변한다는 점은 경기적 요인과는 구별되는 구조적 변화로 볼 수 있음.

○ (소득탄력성) 소득이 변함에 따라 우리 제품의 수요가 변화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이는 제품 경쟁력 혹은 수요자의 선호도로 해석 가능하며 이러한 경쟁력과 소비자의 선호는 시간에 따라 변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 우리 수출의 소득탄력성이 높아지면(낮으면), 우리 제품의 경쟁력과 소비자들의 선호 정도가 커지는(작아지는) 것을 의미 → 세계 소득이 증가할 때 우리 수출이 증가하는 정도는 과거보다 더 확대(축소)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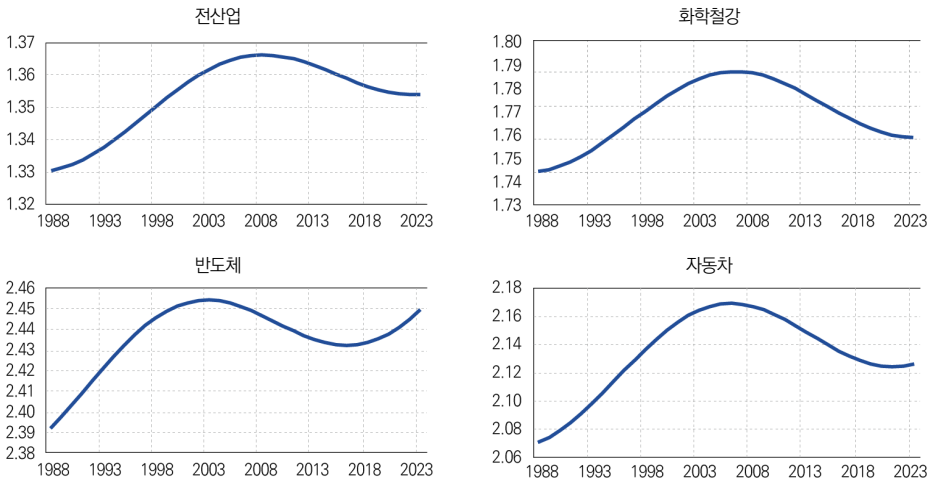
□ 산업별 소득탄력성 비교: 최근 반도체는 상승하나, 다른 산업들은 하락하는 추이

○ (최근 추이 비교) 반도체의 탄력성 수준이 가장 높은 가운데, 반도체와 자동차는 최근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 가능

- 연간 탄력성의 전 기간 평균은 반도체가 2.4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동차가 2.13, 화학/철강이 1.77의 순이며 전산업은 1.35로 추정

- 탄력성이 2000년 중후반까지 상승한 이후 하락하는 현상은 공통적이나, 전산업과 화학/철강은 최근 하락세가 완만해지고, 반도체는 2016년부터, 자동차는 2022년부터 미약하나마 상승으로 전환

산업별 시간변동 소득탄력성 추정 결과



주: 저자 작성, 자세한 설명은 부록 참고.

□ 소득탄력성의 변화는 산업의 경쟁력 변화와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확대, 해외 현지생산 확대와 세계경제 분절화 등에 의한 대외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최근에 나타난 전산업과 화학/철강의 소득탄력성 하락은 중국 중간재 수요의 축소, 해외 현지생산 확대 추세 등에 따른 구조적인 변화로 판단

- 반도체: 2015년경부터 상승하는 것은 제품 경쟁력 향상에 따라 독점력이 강화되고, 미국의 중국 견제가 본격화되면서 얻게 된 반사이익도 일정 정도 작용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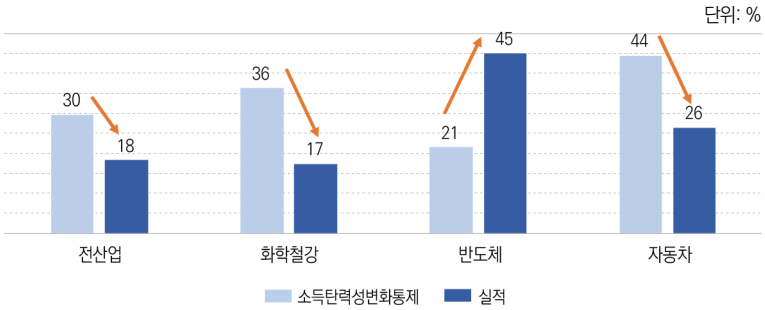
- 자동차: 2022년과 2023년 소득탄력성 상승은 대미 수출이 최근 확대되는 현상과 맞물리는 결과로서 전반적인 우리 자동차 제품에 대한 선호도 향상이 반영된 것

□ 구조요인(소득탄력성)에 의한 변화 추정

○ 2015년 대비 2023년의 산업별 수요 증감률에서 추정된 소득탄력성에 의한 변화를 통제한 변화와 실적의 변화를 비교

- 구조적 변화가 없었을 경우의 2015년 대비 2023년의 증감률과 실적을 비교함으로써 경기적 요인 이외에 우리 제품의 경쟁력 변화 혹은 선호도 변화와 같은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수요 변화분을 정량적으로 파악 가능

구조변화(소득탄력성 변화) 통제 수요 vs 실적 수요: 2015년 대비 2023년 증가율



주: 저자 작성, 자세한 설명은 부록 참고.

○ 화학/철강, 자동차, 전산업: 2023년의 소득탄력성이 2015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추정되어 "소득탄력성 변화가 통제된 수요변화"가 "실적 수요변화"보다 크게 나타남.

- 만일 2015년의 소득탄력성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2023년 전산업 수출은 2015년 대비 30% 증가 → 선호도 하락(소득탄력성의 하락)으로 실제로는 18%만 증가

○ 반면, 반도체는 "소득탄력성 변화가 통제된 수요변화"는 21%로 추정된 반면, 실적은 45%로 나타나 소득탄력성 상승의 영향이 약 24%포인트로 매우 크게 나타남.

○ (평가) 우리 전산업 수출은 소득탄력성 하락이 수출 증가세를 둔화시키고 있는 반면 반도체는 소득탄력성이 높아지면서 수출 확대 효과가 크게 실현

- 최근 반도체 부문의 수출 호조세는 반도체의 소득탄력성 증대 효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세계적 탄소중립 기조, 해외 생산의 추세적 확대, 경쟁 품목에서의 중국의 수출 경쟁력 증대, 중국의 중간재 내재화 등은 소득탄력성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할 요인들

○ (세계적 탄소중립 기조)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같이 탄소 다배출 산업의 비중이 큰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세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불리한 환경

○ (해외 생산의 추세적 확대) 세계 경제 분절화에 대응하는 공급망 확보,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해외로의 설비투자 확대 추세

- 단기적으로는 소재부품 제품들의 수출 증대 요인이나 장기적으로는 우리 수출을 축소(소득탄력성 하락)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제조업 생산 공동화, 일자리 축소, 기술 유출과 같은 부정적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 (경쟁 산업의 중국의 경쟁력 확보, 중국의 중간재 내재화) 중국의 산업 경쟁력 확보로 철강, 석유화학, 전기자동차, 디스플레이 일부 품목(LCD)은 이미 우리의 기술 수준을 추월한 것으로 평가 → 중국의 중간재 내재화로 인한 우리 중간재 수출 위축

□ 구조적 요인들에 대응하여 우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야

① (RE100에 부합한 환경 조성) RE100은 당장 2030년부터 기준이 적용될 것

- RE100 달성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재생 에너지 조달에 대한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함으로써 국내 투자 유치를 적극 유도

② (첨단 전략산업에서의 기술 우위 확보를 위한 종합 대책 추진 필요) 반도체,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서 확고한 기술 우위를 확보하여 향후 예상되는 수입수요 증가가 새로운 수출성장 기회가 되도록 노력 요구

③ (공급망 재편을 기회요인으로 활용) 중국 의존도가 높은 현재의 공급망 체계를 정비하고 다양한 국가들을 이용한 안정적인 생산 네트워크 구축

〈부록〉 수출수요의 요인 분해 모형

○ 우리 수출과 소득 간에는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고, 그 관계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관계를 상정하는 시간변동계수 공적분 모형을 고려

$$\log(Y_t) = \alpha + \beta_t \log(X_t) + \gamma P_t + \varepsilon_t \quad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 (1)$$

- Y_t는 한국의 통관수출금액(한국무역협회), X_t는 세계소득(산업별 부가가치, IHS), P_t는 환율(한국은행), t는 연도로서 1983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간자료 사용

- Park and Hahn(1999)이 제시한 정준공적분회귀모형 추정법 활용[3)]

- 위의 식 (1)을 활용하여 기준연도(t=0) 대비 비교연도(t=1)의 변화를 다음의 식으로 우리 수출변화의 소득탄력성에 의한 변화와 대외요인들에 의한 변화로 구분

$$\begin{aligned}\log(Y_1) - \log(Y_0) &= \beta_1 \log(X_1) + \gamma \log(P_1) + \varepsilon_1 \\ &- \beta_0 \log(X_0) - \gamma \log(P_0) - \varepsilon_0 \\ &+ \beta_1 \log(X_0) - \beta_1 \log(X_0) \\ &= \beta_1 [\log(X_1) - \log(X_0)] \\ &+ \gamma [\log(P_1) - \log(P_0)] + (\varepsilon_1 - \varepsilon_0) \\ &+ (\beta_1 - \beta_0) \log(X_0)\end{aligned}$$

- 위 식에서 $(\beta_1 - \beta_0)\log(X_0)$가 기준연도(t=0) 대비 비교연도(t=1)의 변화분에서 소득탄력성 변화로 설명되는 부분

- 계수 추정치를 활용하여 소득탄력성 변화가 통제된 수요와 소득탄력성 변화를 포함하는 실적수요를 다음과 같이 표현 가능

  · 소득탄력성 변화가 통제된 변화: $\log(Y_1) - \log(Y_0) - (\hat{\beta}_1 - \hat{\beta}_0)\log(X_0)$

  · 실적 변화: $\log(Y_1) - \log(Y_0)$

3) Park, J. Y. and Hahn, S. B.(1999), "Cointegrating regressions with time varying coefficients", Econometric Theory, Vol. 15, pp. 664-703.

제2장

13대 주력산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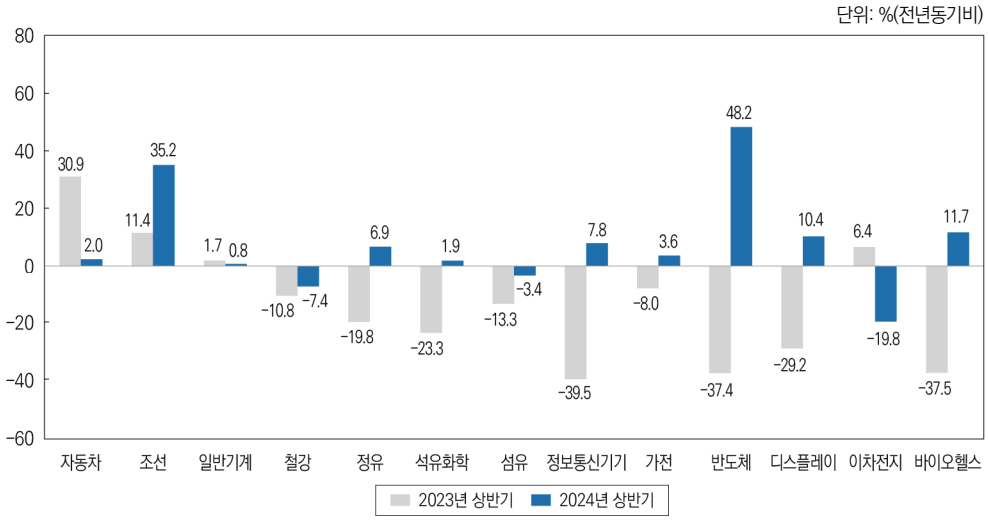
제2장 13대 주력산업 전망

1. 2024년 상반기 13대 주력산업 동향

□ 수출: 주요 IT 제품 단가 개선 및 대미 수출 호조세에 따라 11.8% 증가

○ 2024년 상반기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인플레 압력이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 등 IT 제품의 수출단가가 개선되고 대미 수출 호조세의 지속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11.8% 증가하며 전년동기의 실적 부진을 만회할 전망

〈그림 2-1〉 2024년 상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증감률 추정



주: 1) 달러화 가격 기준.
2)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 (기계산업군) 대미 수출 호조세와 공급제약의 개선에 따라 자동차(2.0%), 조선(35.2%), 일반기계(0.8%) 모두 증가하여 기계산업군 전체로는 전년동기비 5.3% 증가

- 상반기 자동차 수출은 전년동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미국시장 판매 호조에 따라 전년동기비 2.0% 증가한 482억 달러(자동차부품 포함)를 기록할 전망

  · 미국 시장은 전기차, SUV 등을 중심으로 우리 업체들의 수출이 증가, 유럽 시장은 전기차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증가하며 증가세 유지

- 조선 수출은 인력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면서 전년동기비 35.2% 증가 추정

- 일반기계는 대중국 수출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미주지역 건설 및 교통 인프라 투자 활성화와 중동지역 플랜트 투자 확대에 따른 기계류 수요 확대로 전년동기비 0.8% 증가 추정

○ (소재산업군) 수출 물량은 회복되고 있으나 수출단가 약세로 철강(-7.4%)과 섬유(-3.4%)의 수출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소재산업군 전체 수출은 전년동기비 0.8%의 제한적 증가 예상

- 상반기 철강 수출은 중국의 수출 확대와 동남아, 인도 등 신흥국의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수출 경쟁 심화 및 가격 약세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7.4% 감소 추정

  · 수출 물량은 대미국 및 대인도 수출이 큰 폭으로 확대되며 2.4% 증가하였으나, 수출단가 하락이 금액 기준 수출 감소에 영향

- 정유제품 수출은 국제 유가 상승, 러시아 제재 및 글로벌 휘발유 수요 확대에 따른 휘발유 수출 증가로 상반기 6.9% 증가한 것으로 추정

- 석유화학 상반기 수출은 공급과잉 영향 제품 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공급역량 확충과 수출대상국 수요 회복에 따른 수출물량 증가로 전년동기비 1.9% 증가 기록 예상

- 섬유산업 상반기 수출은 선진권의 의류 수요 위축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의류 생산기지향 섬유소재 수출의 동반 감소로 전년동기비 3.4%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IT신산업군) 글로벌 IT 수요의 개선세, 주요 수출 제품(SSD,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단가

상승에 따라 산업군 전체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28.7% 증가하며 국내 수출 증가를 견인

- 정보통신기기 상반기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부진했던 SSD 및 PC 수요가 개선되고 글로벌 SSD 가격 상승에 힘입어 전년동기비 약 7.8% 증가 추정

  · 단, 세계 시장에서 스마트폰 및 PC 보급률 포화와 교체주기 연장 추세는 수출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

- 가전제품의 상반기 수출은 최대 수출국인 미국 시장의 수요 회복과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3.6% 증가 예상

- 반도체 수출은 수요 회복, 재고 감소 및 단가 안정화에 따라 전년 하반기부터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4년 상반기 반도체 수출은 큰 폭의 실적 부진이 나타났던 2023년 상반기 대비 48.2%의 고성장을 기록할 전망

  · 2023년 4월까지 하락하고 있던 메모리반도체 단가가 9월까지 큰 변동 없이 유지되었고 10월부터는 상승세로 전환 추세

- 디스플레이 상반기 수출은 패널 가격 상승과 OLED 신규 수요에 따라 전년동기비 10.4%로 큰 폭 증가한 84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 이차전지 수출은 완성차업체(OEM)들의 전기차 재고 증가에 따른 이차전지 수요 감소, 배터리 광물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급감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19.8% 감소 전망

  · 독일(2024년 1분기, -66.6%) 등 유럽향 수출이 급감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주력시장인 미국향 수출(2024년 1분기, -33.7%)도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 바이오헬스 상반기 수출은 바이오시밀러 등 유럽, 미국향 의약품 수출과 일본향 의료기기 수출 호조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11.7% 증가 추정

  · 국내 기업의 경구용 콜레라 백신에 대한 독점적 지위도 상반기 수출 확대에 일조

□ 내수: 소비심리 위축, 부진한 투자로 주력산업의 내수 위축세 지속

○ 조선, 정유,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등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감소세(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가 심화되거나 감소 전환(자동차, 섬유, 정보통신기기, 이차전지)하는 등

2023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내수 부진이 상반기까지 이어지는 모습

○ (기계산업군) 국내 해운사의 인수물량 확대로 조선 내수는 확대 추세이나 국내 소비심리 위축과 설비투자 둔화 영향으로 자동차(-11.1%) 및 일반기계(-7.0%) 내수는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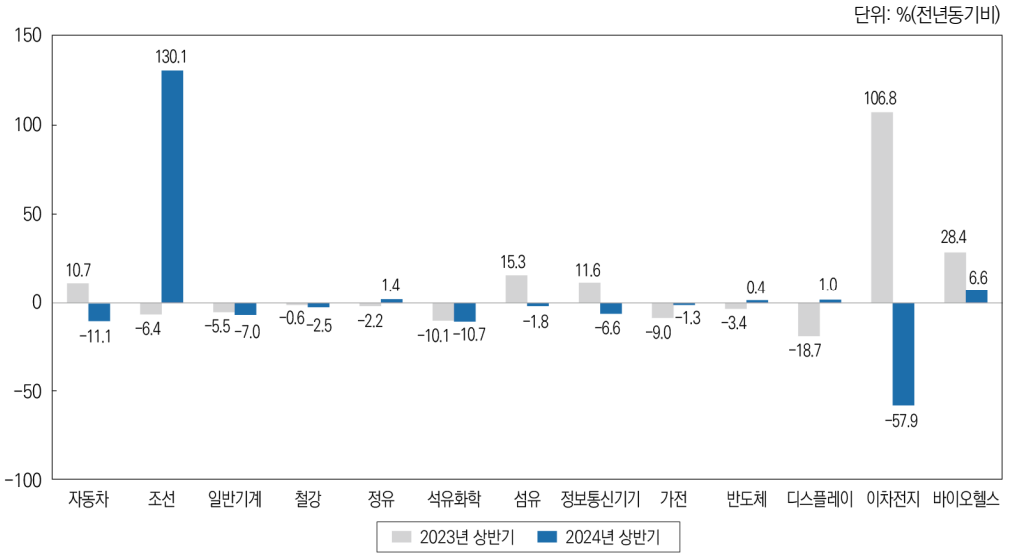
- 자동차 상반기 내수는 고금리, 고물가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전년동기 호실적에 따른 역기저로 전년동기 대비 11.1% 감소하면서 79만 5,000대를 기록할 전망

  · 내수 감소 속에 친환경차는 전년동기 대비 15%(1~4월 누적, 물량 기준) 증가하였으며 하이브리드차가 친환경차 판매를 견인

- 조선 내수는 국내 조선사로부터의 대량의 컨테이너선 및 가스운반선 인도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130.1% 증가한 168만 CGT로 추정

- 일반기계 상반기 내수는 수요산업 수출 부진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계류 설비투자 둔화로 전년동기비 7.0% 감소 추정

〈그림 2-2〉 2024년 상반기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증감률 추정



주: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 (소재산업군) 국내 수요산업의 위축 영향으로 정유(1.4%)를 제외한 철강(-2.5%), 석유화학(-10.7%), 섬유(-1.8%)의 상반기 내수는 부진할 전망

- 철강 상반기 내수는 건설투자 위축과 자동차, 기계 등 주요 수요산업의 생산 위축에 따른 봉형강류 및 판재류 수요 부진으로 전년동기비 2.5% 감소 예상

- 정유 내수는 환경규제 영향으로 경유 수요가 감소하였으나 항공유, 휘발유 등의 운송용 석유제품과 나프타 수요의 확대에 따라 전년동기비 1.4% 증가 전환 추정

- 석유화학의 상반기 내수는 주요 수요산업인 플라스틱 제조업, 생활소비재 제조업, 건설 관련 중간재 제조업 생산이 민간 소비 및 건설투자 위축 영향으로 둔화되면서 전년동기비 10.7% 감소를 기록할 전망

- 섬유 내수는 의류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원사, 직물 등 중간투입용 소재 수요 부진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1.8% 감소 예상

○ (IT신산업군) 고금리·고물가 지속에 따른 국내 내구소비재 수요 부진과 전기차 판매 위축 영향으로 바이오헬스를 제외한 대다수 산업의 내수는 전년동기비 감소 또는 부진 예상

- 정보통신기기 상반기 내수는 신규 스마트폰 및 PC 출시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와 컴퓨터·주변기기 시장 포화의 요인이 작용하면서 전년동기비 6.6% 감소 예상

- 가전 상반기 내수는 고물가·고금리 지속으로 인한 내구소비재 수요 부진이 2024년에도 이어지며 전년동기비 1.3% 감소 예상

- 반도체 상반기 내수는 반도체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전자기기 및 제품의 국내 수요 회복 지연으로 전년동기비 0.4%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디스플레이 내수는 OLED용 소재·부품 수요 증가 영향으로 1.0% 증가 예상

- 이차전지 내수는 국내 전기차(BEV) 판매 위축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57.9%의 큰 폭 감소를 기록할 전망

- 바이오헬스 내수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소비 부진과 의료파업 등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수요의 준수한 성장세가 유지되며 전년동기비 6.6% 증가 예상

□ 생산: 수출 확대 영향 수출의존도 높은 IT신산업군의 생산은 확대 추세, 내수 부진에 따른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 등 기계 및 소재산업군 주요 산업의 생산은 위축

○ (기계산업군) 조선(20.4%) 생산은 인력 부족 완화로 증가 추세가 지속, 자동차(-3.9%) 및 일반기계(-3.3%)는 내수 부진 영향으로 감소

- 자동차 상반기 생산은 전년동기 호실적에 따른 역기저효과와 내수 판매 부진으로 전년동기 대비 3.9% 감소한 211만 대를 기록할 전망

  · 시장 수요 변화 대응에 따라 업체별로 생산라인 조정을 위한 가동중단이 반복되었으며 상반기 내수 부진도 생산 감소에 영향

- 조선산업의 2024년 상반기 생산은 생산인력 부족 완화와 풍부한 수주잔량으로 전년동기비 20.4% 증가한 555만 CGT가 될 것으로 추정

- 일반기계는 생산지수와 기계수주가 2023년 3/4분기 이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나 주요 수요산업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내수 부진 장기화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3.3% 감소

○ (소재산업군) 석유화학(0.7%)과 정유(0.5%)는 수출 물량 확대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철강(-0.6%)과 섬유(-3.8%)는 국내외 수요 부진으로 생산물량 감소

- 철강 생산은 건설용 철근, 선재 등 봉형강류 수요 부진과 중국산 철강재 수입 확대가 생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전년동기비 0.6% 감소 예상

- 정유 생산은 1분기까지 지속된 정제마진 호조 및 수출 물량 확대 영향으로 국내 정제시설 가동률이 상향 조정되면서 전년동기비 0.5% 확대 예상

- 석유화학 생산은 국제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주요 석유화학제품 마진 회복에 따라 가동률이 상승하며 전년동기비 0.7%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섬유는 수출 및 내수 위축에 따른 수요 감소를 가동률 조정 등으로 대응하면서 전년동기비 3.8% 감소 추정

○ (IT신산업군) 수출 회복과 국내외 수요 확대 영향으로 반도체(50.2%) 및 바이오헬스(15.5%) 생산의 높은 실적 예상, 이차전지(-24.0%) 생산은 국내외 전기차 성장 둔화 영향으로 큰 폭 감소를 기록할 전망

- 정보통신기기 상반기 생산은 SSD 수출이 증가하고 스마트폰 및 스마트폰부품 수출이 개선되면서 전년동기비 약 2.7% 증가한 것으로 추정

- 가전 생산은 프리미엄 생활가전을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와 기저효과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증가(0.7%)했으나, 내수 부진과 해외 생산 확대로 증가폭이 제한적

- 반도체는 생산의 대부분이 수출되므로 수출 증가에 대응한 가동률 상승과 단가 상승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50.2% 증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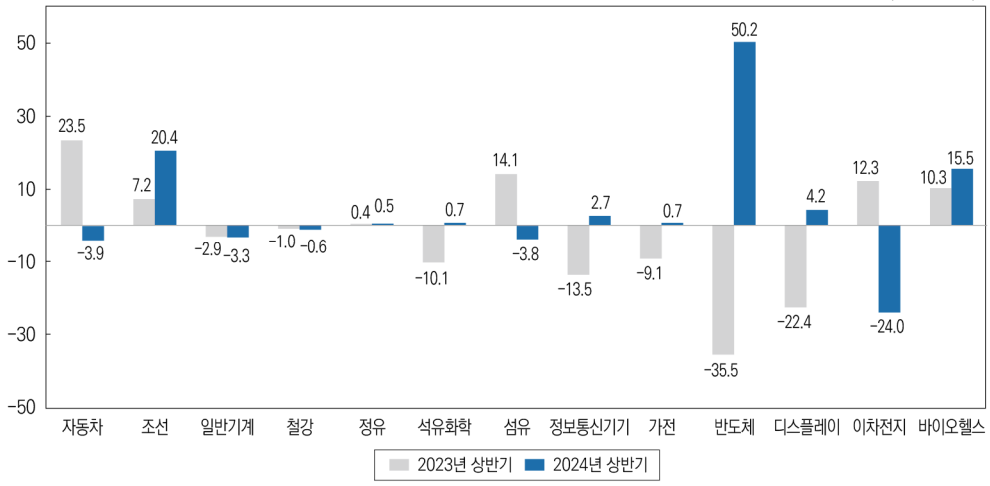
- 디스플레이 생산은 IT용 기기,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등 OLED 신규 수요 확대 영향으로 4.2% 증가(전년동기비) 전환 예상

- 이차전지 생산은 전기차용 이차전지 수출 감소세 심화와 내수용 전기차 생산 위축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24.0% 감소 예상

- 바이오헬스 상반기 생산은 국내외 수요 확대와 더불어 국내 선도기업·중견-대기업의 기술 및 생산 역량 강화에 따라 전년동기비 15.5% 증가 예상

〈그림 2-3〉 2024년 상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증감률 추정

단위: %(전년동기비)



주: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 수입: 국내 소비심리 위축과 주요 산업의 생산 둔화 영향으로 상반기 전체 수입은 전년동기비 1.7% 감소 추정

○ (기계산업군) 국내 내수 둔화 영향으로 일반기계(-4.1%), 자동차(-17.2%) 수입 감소 예상

- 자동차 상반기 수입은 고금리 여파로 인한 수입차 판매 감소와 완성차 생산 둔화에 따른 수입 부품 수요 감소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17.2% 감소한 104만 달러(자동차부품 포함)를 기록할 전망

- 조선 수입은 고부가가치 선박 생산 증가로 주요 기자재 수입이 확대되고 환경규제 대응 관련 불확실성 심화로 중고선 및 해외 선박이 유입되면서 전년동기비 56.5% 증가 예상

- 일반기계 상반기 수입은 기계류 투자 수요 부진 등 국내 수요여건 악화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4.1% 감소 예상

○ (소재산업군) 중저가 범용제품군을 중심으로 수입량이 증가추세이나 제품 단가 하락 영향으로 철강, 석유화학 수입은 감소 기록 예상

- 철강 수입은 중국산 중후판 수입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건설경기 부진 영향 봉형강류 수입 감소와 단가 약세, 전년 실적 증가의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비 7.1%(금액) 감소 추정

- 정유 상반기 수입은 전체 수입의 약 90%를 차지하는 석유화학용 나프타 및 LPG 수입이 석유화학 생산 증가 전환 영향으로 확대되면서 전년동기비 10.6%(금액) 증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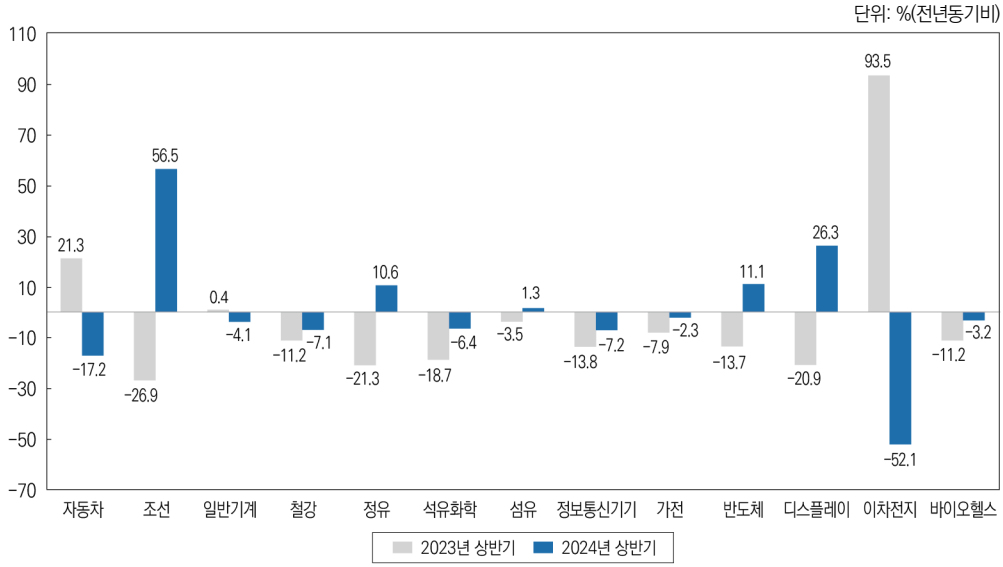
- 석유화학 상반기 수입은 중저가 범용제품군을 중심으로 수입물량이 증가하였으나 제품 단가 하락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6.4%(금액) 감소 추정

- 섬유 상반기 수입은 전년동기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및 중저가 의류 수요 확대로 1.3% 소폭 증가 추정

○ (IT신산업군) 내수 둔화로 인한 수입 수요의 둔화 추세 속에서 AI 확산 및 디스플레이 대형화 영향으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LCD) 수입은 큰 폭 증가

- 정보통신기기 수입은 고금리-고물가 지속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국내 PC·스마트폰 시장 포화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7.2% 감소한 것으로 추정

〈그림 2-4〉 2024년 상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증감률 추정



주: 1) 달러화 가격 기준.
2)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 가전 수입은 고환율로 인한 수입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전년동기비 2.3% 감소 전망
- 반도체 수입은 AI, 자율주행 자동차 등 첨단 기술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의 수입이 확대되며 전년동기비 11.1% 증가 예상
- 디스플레이 수입은 차량용 LCD 대형화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과 대형 디스플레이 수요처로 재수출을 위한 LCD 수입 물량의 확대에 따라 전년동기비 26.3% 큰 폭 증가 예상
- 이차전지 수입은 내수 · 수출용 전기차 생산 감소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52.1% 급감 예상
- 바이오헬스 수입은 내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및 원료 부족 사태를 겪은 미국·유럽 등의 자국 우선 공급 기조와 의료계 파업 여파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3.2% 감소 추정

2. 2024년 하반기 대내외 여건 변화와 산업별 영향

□ 대외 여건 변화: 글로벌 IT 수요의 회복과 주요국의 인프라 투자는 지속될 전망이나, 거시경제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보호무역 확대 기조는 부정적 여건

○ (세계 수요 여건) 하반기에는 주요 IT 제품의 교체주기 도래, 글로벌 기업의 IT 관련 설비 투자 확대로 세계 ICT 시장의 확대가 예상, 주요국 인프라 투자의 증가세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 회복 지연, 국제정세 불안 등의 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및 수출 경쟁의 심화는 부정적 외부 환경

- 코로나19 시기에 이뤄진 전자제품 판매 급증은 최근 2년간의 수요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나, 보유 제품의 교체시기 진입에 따라 IT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AI 기능(온디바이스 AI)을 탑재한 스마트 신제품, 새로운 웨어러블 기기, 혁신 신약 등의 신기술 및 신제품 출시는 시장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친환경화·디지털화 기조는 고기능성 제품(전동차, 수소 등 신에너지 관련 제품 및 소재) 수요 확대에 지속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기술·경제적 불확실성에 따른 친환경 전환에 대한 관망세도 나타나고 있어 이는 친환경 해운, 전동차 및 이차전지 수요 확대에 부정적 요인

- 중국 내 자국 제품 선호 현상에 힘입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등 첨단분야에서의 제품경쟁력이 강화되고 석유제품, 화학, 철강 등의 생산능력 확대 추세는 선진국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 심화, 남미 등 신흥 시장에서의 점유율 축소 등 우리 기업의 잠재적 위협 요소로 작용할 전망

- 한편, 중국의 공급과잉 심화와 수출 확대 속에서 미국 등 주요 수출 시장에서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강화 추세는 하반기 한국 수출 확대의 제약 요인

○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전망) 2024년 하반기 주요 수출국의 수요 여건은 디지털 및 인프라 구축과 ICT 수요 확산 영향으로 미국, EU,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수요 확대가 기대되나 주요국 제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라 수출 확대가 제한될 가능성도 존재

〈표 2-1〉 2024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세계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자동차	· 물가 및 금리 상승에 따른 경기 위축	☂
	·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
	· 전년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
조선	· 해운산업의 환경규제 대응 및 미국의 중국 견제에 대한 해운사의 관망세	☂
	· 높은 금리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 불안으로 인한 선박금융 조달 어려움	☂
	· 주요 우량 조선사의 풍부한 수주잔량과 긴 납기로 인한 고선가 선별 수주	☂
	·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 수요 확대	☼
일반기계	·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지속	☼
	· 중동지역 대형 EPC 프로젝트 발주, 중남미 등 신흥국 건설경기 호조세	☼
	· 지정학적 긴장 고조(러-우, 이란-이스라엘 전쟁)	☂
	· 고물가, 고금리, 통화긴축 기조 지속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세 미약	☂
철강	· 2024년 세계 경제성장 기조	☼
	· 중국 부동산 경기 부진 장기화	☂
	· 주요국의 인플레 안정을 위한 통화긴축 기조	☂
	· 인도, 아세안, 아프리카 등 신흥국의 성장세 확대	☼☼
정유	· 항공유 및 나프타 수요 확대 추세 지속	☼
	· OECD 국가의 경기 침체로 인한 석유제품 수요 감소	☂
	·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위축 지속	☂
	· 비OECD 국가의 석유 수요 확대 추세 지속	☼
석유화학	· 주요 수출대상국 경제성장률 제한적 성장	☼
	· 고유가, 고에너지 가격(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
	· 기저효과	☼
섬유	· 글로벌 고물가, 고금리 등에 따른 의류 및 산자용 섬유 수요 부진	☂
	· 디지털 전환 및 친환경화에 따른 고기능성 섬유 수요 확대	☼
	· 중국계 C-커머스의 성장	☂
정보통신기기	· 생성형 AI향 글로벌 기업의 데이터센터·서버 투자 확대로 SSD 수요 증가	☼☼
	· 소비자용 SSD 수요(거시여건 개선, PC 시장 회복, 재고량 개선 등) 증가	☼☼
	· 세계 PC 수요 개선(AI PC, 기업용·교육용 PC, 게임용 PC, 윈도 11 교체수요 등)	☼
	· 프리미엄 제품(AI폰, 폴더블폰 등) 중심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수요 개선 전망	☼
	· 파리 하계 올림픽이 스마트폰·태블릿PC 수요 개선에 소폭 긍정적 영향	☼
	· 러-우 사태, 이스라엘 사태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잠재	☂
	· 세계 경기 불확실성으로 기업 투자 위축 및 소비심리 저하 가능성 상존	☂

(계속)

	주요 요인	영향 정도
가전	· 소비심리는 회복세이나 고물가·고금리 지속으로 수요 회복이 지연	-
	· AI(인공지능) 탑재 가전 신제품 출시 확대	☼
	· 친환경·고효율 제품 수요 증가	☼
반도체	· PC, 스마트 폰 등 IT 기기의 필수 수요 발생	☼
	· AI 관련 제품 매출 증가	☼
	· 지정학적 위험요인 잔존	☂
디스플레이	· 글로벌 경기 회복세 진입	☼
	· 주요 제품 교체 주기 진입으로 인한 수요 상승	☼
	· OLED 탑재 IT 기기 신제품 출시	☼
이차전지	· 전기차 등 이차전지 수요부문의 시장규모 성장세 둔화	☂☂
	· 해외 주요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	☂
	· 주요 완성차 기업들의 전기차 신차 출시 계획	☼
바이오헬스	· 해외 출시 신약·신제품 매출 증가	☼☼
	· 특허만료 바이오시밀러 처방 확대	☼
	· 콜레라·매독·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등 전염병 확산	☼
	· 물가 및 금리 상승에 따른 경기 부진	☂

주: (전년동기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미국 시장에서는 빅테크 기업의 투자 확대, AI 서버 교체 및 자국 내 서버 구축(정보통신기기, 반도체), 건설·교통 인프라 투자 확대(일반기계, 가전), IRA 요건 충족 기준 강화(배터리) 등 수출 확대에 우호적인 여건이 존재하나 누적된 대기수요의 상반기 실현(자동차), 하반기 제조경기 위축국면 진입 가능성 등은 우리 수출 증가세의 제약 요인

- 유럽 시장에서도 제품 교체주기 도래(정보통신기기), 파리 하계올림픽(가전) 등에 따른 ICT 제품 수요 확대와 공급망 차질 및 대기수요 누적(자동차, 바이오헬스)에 따라 관련 산업의 수출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제조업 경기 부진 및 에너지 가격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수요 둔화(일반기계, 철강), 보조금 축소(자동차, 이차전지)는 수출 확대의 부정적 요인

- 중국 시장에서는 소재부품 수요 정체(일반기계, 철강, 섬유)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 소비 부양책 효과 및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정보통신기기, 반

〈표 2-2〉 2024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전망

	국가	비중[1)]	상반기	하반기	국가	비중	상반기	하반기	국가	비중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미국	40.6	☼	☁	EU	19.8	☼	☁	중국	1.6	☁	☁
일반기계	미국	33.0	☼☼	☼☼	중국	11.7	☂☂	☂☂	유럽	11.6	☂☂	☂☂
철강	아세안·인도	26.9	☼	☼	일본	13.3	☔	☔	EU, 러시아	12.6	☁	☁
정유	아시아 (중국 제외)	71.4	☼☼	☼	미국	11.1	☂☂	☂	중국	8.0	☂☂	☂
석유화학	중국	40	☂	☁	아세안	15	☂	☁	기타	45	☂	☁
섬유	베트남	20.2	☔	☁	중국	13.6	☁	☔	미국	13.2	☁	☁
정보통신기기	중국	37.7	☂	☼	미국	17.9	☁	☼☼	EU	13.3	☼☼	☼☼
가전	미국	50.2	☁	☁	일본	6.5	☔	☔	중국	5.5	☼	☼
반도체	중국	36.6	☼☼☼	☼☼	홍콩	18.3	☼☼☼	☼☼☼	베트남	12.9	☼☼☼	☼☼
디스플레이	베트남	66.3	☔	☁	중국	22.7	☼☼☼	☁	기타	-	-	
이차전지	미국	48.8	☁	☁	독일	6.9	☂☂	☂	중국	5.1	☁	☁
바이오헬스	EU	28.8	☼☼☼	☼☼	미국	18.2	☼☼☼	☼☼	일본	8.7	☂☂	☂

주: 1) 전체 수출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2023년 기준).
2) (전년동기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도체, 가전 등 주요 IT산업의 수출 여건이 개선되고 중국의 저자급률 제품군에서의 석유화학 수출 증가도 예상

- 인도 시장은 도시화, 도로 등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제조업 성장에 따라 철강, 석유화학 및 석유 제품에 대한 높은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있으며 생산기지가 집중되어 있는 베트남 등 아세안 시장의 경우 전자제품, 의류 등의 생산 확대에 따라 디스플레이, 섬유, 반도체 등의 관련 소재·부품 수출의 증가가 예상

○ (해외 생산 전망) 2024년 해외 생산의 연중 확대 기조 속에서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라 하반기에는 특히 반도체(미국), 가전(미국, 신흥국), 일반기계(미국, 신흥국), 조선(베트남) 산업에서의 해외 생산이 보다 확대될 전망

- 자동차는 전동화 진전 영향 해외시장 수요가 변화되면서 일부 해외 생산설비의 생산차량 조정이 진행 중, 미국의 경우 기존 세단 대신 하이브리드 SUV로 생산 차종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일부 라인에서 전환 작업이 지속

- 조선은 컨테이너 생산을 위한 중국 블록공장과 해외 인도물량 증가로 인한 베트남 조선소의 생산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일반기계 해외 생산은 미국, 인도,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및 교통 인프라 확충,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기계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확대될 전망

- 철강은 전기차 전용 SSC 등 주로 북미 지역에서의 현지 수요 대응용 투자가 이뤄짐에 따라 관련 지역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석유화학은 글로벌 석유화학시장 내 공급 과잉 상황 속에서도 신흥국 중심의 수요 회복에 따라 아세안(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지역 생산 확대가 예상되나 해외 생산시설(중국 및 아세안 지역)의 축소 및 매각도 검토 중

- 섬유산업은 생산기지의 탈중국 현상 지속, 다양한 무역협정 활용 경쟁력 제고 목적의 베트남 생산기지의 생산 확대가 예상

- 가전은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 각지의 수요가 회복되면서 하반기에는 수요 지역 인근의 해외 공장 가동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

- 반도체는 중국 생산의 확대는 제한적이나 메모리반도체뿐만 아니라 시스템반도체 수요도 회복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큰 폭의 생산 증가 예상

  · 2023년 10월 미국 상무부가 중국에 가동 중인 우리 반도체 제조 공장을 검정된 최종 사용자(VEU: Validated End User)로 승인하여 당분간 중국 내 반도체 제조 장비 조달은 가능하지만, 대규모 생산설비를 확장하는 것은 불가능

- 디스플레이는 프리미엄 TV 시장의 수요 회복에 따른 패널 수요 증가로 중국 광저우 현지 생산이 완만하게 증가할 전망

- 이차전지는 해외 생산거점에 대한 지속적인 신·증설 투자 확대와 기존 해외 공장의 수율 개선에 따라 해외 생산의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유럽 생산거점의 경우 유럽 완성차 업체의 보수적 재고 정책의 영향으로 하반기 가동률 하락 전망

- 바이오헬스는 신규 생산공장 설립 또는 기술이전, 현지 기업 인수합병으로 글로벌 생산망 확대를 적극 추진 중으로 이에 해외 생산이 연중 증가할 것으로 예상

〈표 2-3〉 2024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해외 생산 전망

	해외 생산기지(생산 전망)	하반기	연간
자동차	중국(☼), 미국(☁), 브라질/멕시코(☁), 러시아/체코/슬로바키아(☁), 튀르키예(☁), 인도(☼)	☁	☁
조선	중국(☼), 베트남(☼☼☼)	☼☼	☼
일반기계	중국(☂☂), 미국(☼☼), 인도(☼), 중남미(☼)	☼	☼
철강	유럽(☂), 아세안(☁), 북중미(☁), 중국(☂)	☁	☁
석유화학	중국(☁), 아세안(말레이시아 등)(☁), 미국(☁)	☁	☂
섬유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	☁
정보통신기기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중국(☼)	☼	☼☼
가전	동남아(☼), 동유럽(☼), 중남미(☼), 중국(☁) 미국(☼)	☼	☁
반도체	중국(☁), 미국(☼☼)	☼☼	☼☼
디스플레이	중국(☼)	☼	☼
이차전지	미국(☼), 유럽(☂), 중국(☁)	☁	☁
바이오헬스	미국(☼), 중국(☼), 동남아(☼)	☼	☼

주: (전년동기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 국내 여건 변화: 소비심리 위축의 부정적 영향은 지속되나 IT 수요 및 설비투자가 회복되고 친환경·유망 분야로의 미래를 대비한 투자는 지속

○ (국내 수요 여건) 하반기 IT 제품 수요가 확대되고 국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 관련 투자 및 수출 증가는 국내 수요를 진작할 것으로 예상되나 자산가치 하락, 고물가 및 고금리 지속에 따른 미약한 소비 증가세가 본격적인 회복의 제약 요인

- 2024년 하반기에는 자동차, ICT 수출 호조에 따라 설비투자가 증가하면서 일반기계, 석유화학, 철강 등의 내수가 점진적으로 개선 흐름을 보일 전망이나 고물가 및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 영향으로 기업의 금융조달 부담이 가중되고 건설투자 부진의 심화 등으로 대규모 투자 수요 및 내수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국내 기업들의 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 투자, AI 도입 등 디지털 전환 투자와 IT 신제품 출시는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등의 내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표 2-4〉 2024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국내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자동차	· 물가 상승 및 고금리 지속 등 소비심리 위축	☂
	· 차량 구매 할부금융 및 차량 가격 인상	☂
조선	· 해운산업의 환경규제 대응 및 미국의 중국 견제에 대한 해운사의 관망세	☂
	· 높은 금리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 불안으로 인한 선박금융 조달 어려움	☂
	· 주요 우량 조선사의 풍부한 수주잔량과 긴 납기로 인한 고선가 선별 수주	☂
	·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 수요 확대 및 한국형 선주사업 추진	☼
일반기계	· 하반기 수요산업 경기개선 기대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 전망	☼
	·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첨단 기계 · 장비, 친환경 고효율 기기 투자 수요 지속	☼
	· 제조업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기계류 투자 수요 둔화	☂
	· 세계 성장률 둔화 등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요산업 회복세 제약	☂
철강	· 설비투자 등 국내 거시경제 지표	☼
	· 조선용 수요 견조	☼
	· 자동차용 수요 개선	☼
	· 부동산 경기 부진 지속	☂
정유	· 항공유 수요 확대	☼
	· 석유화학 제품용 나프타 및 LPG 수요 회복	☼
	· 유류세 환원 및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	☂
	· 정부의 경유차 규제 강화	☂
	·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가정용 및 산업용 수요 침체	☂
석유화학	· 국내 경제 성장률 둔화(민간소비, 건설)	☂
	· 국내 수요산업의 경기 회복	☼
	· 기저효과	☼
	· 제품가격 하락	☂
섬유	· 외부 활동 증가로 의류 소비 증가세 유지	☼
	· 자산가치 하락, 고물가 및 고금리 등 소비심리 위축	☂
	· 수출 확대 등 국내 제조활동 활성화에 따른 산업용 섬유 수요 확대	☼
	· 경기 부진에 따른 불황형 소비 확대로 중저가 의류 소비 증가	☼
	·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등 고기능성 섬유 수요 확대	☼
정보통신기기	· 폴더블폰, PC 등 신제품 중심의 교체 수요 증가	☼☼
	· 국내 기업의 AI 도입 등 디지털 전환 수요(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 증가	☼☼
	·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저하	☂
	· 프리미엄 제품 가격 및 통신비 부담	☂

(계속)

	주요 요인	영향 정도
가전	· 가전 렌탈 및 구독 서비스 수요 증가	☼
	· 고물가 및 고금리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
	· 프리미엄 제품 수요 증가	☼
반도체	· 물가 및 금리 안정세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
	· AI 등 신기술 적용 제품 확산	☼
	· PC 부품 등 수출 증가	☼
디스플레이	· 차량용 패널의 대형화로 인한 단가 상승	☼
	· OLED 생산 확대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규모 확대	☼
이차전지	· 국내 전기차 판매량 감소 추세 지속	☂☂
	· 물가 상승 및 고금리 기조 유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
바이오헬스	· 물가 및 금리 상승 등 소비심리 위축	☂
	· 의료파업 장기화로 인한 의약품 처방 차질	☂
	· 비만치료제 및 당뇨병 치료제 수요 확대	☼☼

주: (전년동기비) 단가 변화, ☂☂ 큰 폭 하락, ☂ 다소 하락, ☼ 다소 상승, ☼☼ 큰 폭 상승.

- 민간소비의 미약한 회복세, 가계부채 증가, 고령층 소비자 증가 등 자동차 등 최종재 구매와 관련된 부정적 여건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차 판매량 증가율 둔화 추세가 2024년 하반기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국내 이차전지 수요는 부진할 전망

  · 전기차(BEV)의 경우 전기차 도입이 본격화된 이후 처음으로 2023년 판매량(15만 7,823대)이 전년(15만 7,906대) 대비 하락

- 친환경 관련 규제 강화는 고기능성 섬유 등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있으나 반면 전통 범용 소재 및 석유 관련 중간재의 내수 확대에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

- 한편, 비만치료제의 품귀현상 해소 및 국내 출시가 이뤄지고 의료 파업 문제가 하반기 해소될 경우 지연된 의약품·의료서비스 수요는 회복될 것으로 기대

○ (공급능력 여건) 생산시설 확충에 따른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헬스의 공급능력 증가가 예상되며 철강, 정유, 섬유, 반도체 등에서 미래 유망 분야 경쟁력 강화 목적의 설비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 자동차는 SUV 하이브리드차 수요 급증에 따른 공급부족 현상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예상이며 중견 완성차업체들의 경우 실적 만회를 위한 가동률 상승 예상

· 설비투자는 기존 생산설비를 전기동력차 전용 설비로 교체하는 투자와 신규 생산모델 생산에 따른 생산라인 조정 위주의 투자 예상

- 조선은 2023년 대규모로 증가한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 향상 및 내국인 공급의 증가로 하반기에는 생산의 온전한 정상화가 기대

· 투자는 LNG운반선 생산량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한 안벽 확대 관련 생산설비 투자와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기계화·자동화·스마트화 중심으로 증가 예상

- 철강은 판매 부진에 따른 철강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영향으로 공급능력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향후 저탄소 공정전환을 위한 전기로 확대, 전기차용 무방향성 전기강판, 이차전지파우치용 도금강판 등 친환경 유망제품의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는 지속될 전망

- 정유는 코로나19로 축소된 정제설비 가동률의 상향 조정 및 공정개선을 통한 공급능력의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석유화학 부문으로의 사업다각화 및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연·원료 생산설비에 대한 설비투자는 확대 추세

- 석유화학은 계획된 국내 생산시설 신증설 완료로 공급역량이 이미 크게 개선되었으며, 생산시설 가동률도 상향 조정하고 있으나, 제품 스프레드 회복이 더뎌 하반기 공급능력 증가폭은 제한적

- 섬유산업은 화학섬유산업의 범용제품에서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첨단 섬유소재의 수요 확대에 대응해 슈퍼섬유 관련 대규모 설비 증설 투자가 진행되어 관련 품목의 생산능력은 지속 확대 예상

- 정보통신기기, 가전은 수요 회복에 따라 해외 생산 공장 가동률이 상승할 전망이나 해외 생산 체제 확립으로 국내 공급능력의 변화는 제한적

- 반도체는 미세공정 전환 진행, 첨단 기술 개발을 통한 생산능력 향상 등으로 공급능력의 확대가 지속될 전망

· HBM은 현재 D램 시장 대비 10% 수준이나 향후 D램 시장을 주도하는 품목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 중

〈표 2-5〉 2024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공급능력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자동차	· SUV HEV 수요 급증에 따른 공급능력 부족	☂
	· 중견 완성차업체 실적 부진 만회를 위한 적극적인 신규 모델 투입	☼
	· 하반기 이후 누적 이연수요 실현에 따른 차량 수요 감소 예상	☂
조선	· 급격히 증가하는 건조 물량에 대응한 설비투자 확대	☼☼
	· 인력 부족에 따른 기계화·자동화·스마트화 기술 및 설비 확대	☼
	· 외국인과 내국인 유입으로 생산 정상화에도 순연된 일정에 따른 일부 영향 지속	☂
	· 외국인, 비숙련 인력 증가에 따른 숙련 형성 시간 필요와 안전 강화 노력에 따른 영향	☂
철강	· 기업 수익성	☂
	· 유망 신제품 생산 및 친환경 공정전환 위한 신증설	☼
정유	· 공정개선 및 정제설비 가동률 상향 조정	☼
	· 내수 및 수출 물량 동반 확대	☼
	· 글로벌 정제마진 감소	☂
석유화학	· (국내) 생산시설 신증설 완료	☼
	· 생산시설 가동률 평년 수준 회복	☼
	· 제품 스프레드 위축	☂
섬유	· 첨단소재 설비투자 확대	☼
	· 생산 효율화(생산시스템 개선)	☼
	· 섬유 경기 불황에 따른 감산 및 폐업 등 공급능력 감소	☂☂
	· 국내 생산설비 해외 이전	☂
정보통신기기	· 수요 회복으로 해외 생산 공장 가동률 상승 전망	☼☼
	·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PC) 등 해외 생산처 확대로 글로벌 공급 역량 안정화	☼
	· 기업용 및 소비자용 SSD 신제품을 출시하는 글로벌 시장 경쟁력 유지	☼
	· 해외 생산 확대의 영향으로 국내 생산 물량 축소	☂
가전	· 프리미엄 신제품(일체형 세탁건조기 등) 중심의 국내 생산	-
	· 글로벌 수요 회복에 대응한 해외 생산 확대(국내 생산능력은 꾸준히 감소)	☂
반도체	· 미세공정 전환	☼
	· 첨단 제조 기술 개발	☼
디스플레이	· LCD 감산 마무리 및 OLED 신규 투자	☂
	· 대형 OLED 양산 수율 증가	☼
이차전지	· 원통형 배터리 공장 산증설	☼
	· 국내외 이차전지 수요 위축에 따른 국내 공장 가동률 저하	☂
	· 주요국의 역내 배터리 공급망 구축 추진에 따른 투자여력의 해외 집중화	☂
바이오헬스	·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수요 증가에 대비한 생산시설 확대	☼☼
	· 제약·바이오기업의 R&D 역량 개선	☼

주: (전년동기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디스플레이는 LCD 설비 폐쇄에 따라 전체 공급능력의 축소가 지속되고 있으나 수율 상승에 따른 대형 OLED의 공급능력은 소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이차전지는 원통형 배터리 공장 가동 본격화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국내 공급능력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할 전망이나 미국의 IRA, EU 배터리법 등 주요국의 자국 주도 배터리 공급망 구축 정책 영향으로 향후의 설비투자는 해외 생산거점 확장에 집중될 가능성
- 바이오헬스는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생산시설 확대로 공급능력의 높은 증가가 예상

3. 2024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 부문별 전망

□ 수출: IT산업군 수출의 고성장, 자동차 등 기계산업군의 수출 호조세 지속과 소재산업 수출의 회복세 전환에 따라 하반기 수출도 높은 증가세(9.3%) 시현 예상

○ 2024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글로벌 IT 수요 확대, 주요 수출국 경기 및 수출단가의 개선에 따라 정유와 이차전지를 제외한 대다수 산업에서 증가하여 상반기(11.8%)의 증가 추세가 하반기(9.3%)에도 지속될 전망이며, 이에 13대 주력산업의 2024년 수출은 전년 대비 10.5% 증가 예상

○ (기계산업군) 미국 등 주요 수출시장 수요의 견조한 성장으로 하반기 수출은 전년동기비 3.8% 증가할 전망, 특히 자동차(3.3%)는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조선(11.5%)은 하반기에도 증가 기조를 이어가 전년에 이어 높은 연간 수출 증가율(21.5%) 기록 예상

- 자동차 하반기 수출은 주요 자동차 시장 수요의 견조한 성장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하이브리드차 경쟁우위 확보 등의 요인으로 전년동기비 3.3% 증가한 480억 달러(자동차부품 포함)를 기록할 전망
  - 이에 따라 2024년 자동차산업 수출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963억 달러(자동차부품 포함)로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할 전망

- 조선 수출은 2021년 고선가에서 수주한 대량의 선박 인도 영향으로 하반기에도 11.5% 증가하며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21.5% 증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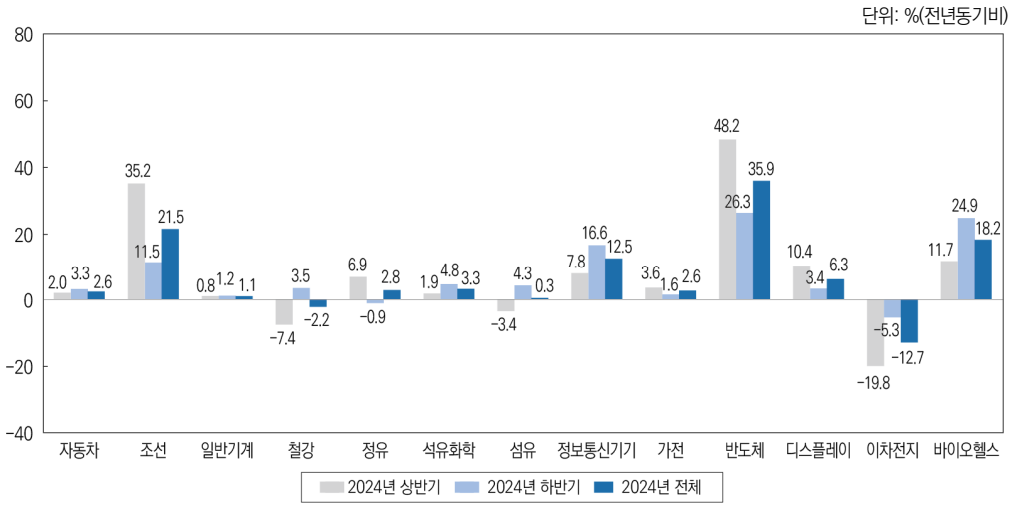
  · 2023년 대규모로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예상보다 많은 생산과 수출이 가능할 전망

- 2024년 일반기계 수출은 미주지역 인프라 투자 확대 지속과 2023~2024년 상반기 중동지역 대규모 프로젝트 계약 체결 영향으로 하반기에도 소폭 증가(1.2%) 기조를 이어가며 연간으로는 1.1% 증가 전망

○ (소재산업군) 수출단가 개선에 따라 정유(-0.9%)를 제외한 철강(3.5%), 석유화학(4.8%) 등 대부분 산업의 하반기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되거나 상반기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어 산업군 전체로는 전년동기비 2.3% 증가할 전망

- 철강 수출은 주요 수출지역의 제한적 수요 증가와 공급과잉 영향으로 전년도 수준(물량)을 유지할 전망이나 하반기 철강 단가 상승 전환에 따라 상반기 부진을 일부 만회하여 연간으로는 2.2% 감소(금액)를 기록할 전망

〈그림 2-5〉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증감률 전망



주: 1) 달러화 가격 기준.
2)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 정유 하반기 수출은 중국, 인도 및 중동 국가와의 수출 경쟁 심화로 물량 확대가 제한되고 유가 및 정제마진 감소로 인한 단가 하락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0.9% 감소할 전망이나 연간으로는 2.8% 확대 예상

- 석유화학은 수출량 증가세 지속과 수출단가 회복에 힘입어 점진적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하반기 수출은 전년동기비 4.8%, 연간으로는 3.3% 증가 전망

  · 2023년까지 지속된 아시아 석유화학시장 내 공급과잉이 생산시설 가동률 하향 조정과 수요 회복으로 인해 제한적이나마 개선되면서 수출단가는 소폭 상승할 전망

- 섬유는 미국 섬유 내수 개선, 아시아 K-패션 활성화 및 아라미드, 탄소섬유와 같은 고기능성 소재 증설 영향으로 하반기 4.3% 증가 전환하여 연간으로는 0.3% 증가 전망

○ (IT신산업군) 글로벌 수요 확대, IT 제품 단가 상승 영향으로 정보통신기기(16.6%), 반도체(26.3%), 바이오헬스(24.9%) 등 대다수 산업의 수출이 상반기 대비 개선됨에 따라 IT신산업군의 수출은 하반기 19.6%,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23.7% 증가 전망

- 정보통신기기는 글로벌 PC·서버 수요 회복에 따른 소비자용·기업용 SSD 수요 확대 영향으로 하반기 수출이 16.6% 증가할 전망이며, 연간 기준 수출은 전년 대비 12.5% 증가 예상

  · 하반기에 AI향 데이터센터·서버 투자 확대로 SSD 수요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은 전년동기비 약 28.8% 증가가 예상

- 가전은 세계 수요가 회복세에 접어드는 가운데, AI를 탑재한 스마트가전 신제품 출시와 고효율 제품 수요 증가 등으로 프리미엄 제품 수출이 확대되며 하반기 1.6%, 연간으로는 2.6% 증가 전망

- 반도체는 주력 품목인 메모리반도체 단가 상승과 IT 기기 수요 개선 및 AI 관련 반도체 수요 증가로 하반기에도 높은 성장세(26.3%)를 이어갈 전망이며, 이에 연간 수출은 전년 대비 35.9% 증가 전망

- 디스플레이는 경기적 요인으로 인한 수요 확대와 OLED 채택 태블릿 신규 출시 영향으로 하반기에도 수출의 증가(3.4%)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며, 이에 연간 수출은 전년 대비 6.3% 증가 예상

〈표 2-6〉 2024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자동차	· 주요 수출시장 수요 견조한 성장 예상 · 국내업체 브랜드 이미지 제고 ·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등 친환경차 경쟁업체 대비 우위 지속	· 중국업체 글로벌 판매 전략 강화 · 일본업체 경쟁우위 차종인 하이브리드차 수요 증가·	· 미국, 유럽시장 수요 견조한 성장세와 친환경차 분야 경쟁우위 확보에 따른 시장점유율 확대
조선	· 2021년 이후 대량 수주 물량의 인도 · 고가의 LNG운반선 인도 증가 · 2021년 이후 선가 상승한 수주 물량의 수출 · 2023년 대규모로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 향상	· 인력 또는 숙련 부족으로 생산능력 확대 제한	· 생산 인력 증가, 숙련 향상으로 생산이 정상화되고, 2021년 이후 높은 선가에서 대량 수주한 LNG운반선의 지속 인도로 증가
일반기계	· 미국 건설·교통 인프라 투자 활성화로 기계류 수요 확대 · 해외플랜트, EPC 수주 지속(2024년 1분기 기준 전년동기비 50.9% 증가)으로 관련 기자재의 대중동 수출 증가세 지속 · 멕시코, 브라질 등 중남미 지역 인프라 및 산업설비 투자 확대	·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수출국 경기 회복 흐름 약세(제조업 PMI 50선 횡보)에 따른 수요 둔화 · 통화 긴축기조 장기화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 대중국 수출 부진 지속 · 지정학적 긴장 고조, 고금리 기조 등 수요산업 경기 하방 압력 요인 지속	· 대미 수출의 양호한 흐름이 하반기까지 이어지면서 일반기계 수출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 수출국 경기 회복세 미약, 지정학적 불안 등의 부정적 요인이 성장세를 제약할 전망
철강	· 인도의 고성장 · 미국의 경기호조에 따른 투자 확대 · EU 내 재고소진 및 전년도 기저영향 · 아세안지역 내수 개선 · 하반기 글로벌 철강가격 소폭 상승 · 미주 및 주요 신흥국에서의 대중국 보호무역주의 확대	· 주요 수출대상국인 중국, 일본의 내수 회복 부진 · 인도, 아세안 등 신흥국의 설비능력 확대에 따른 대세계 수출경쟁 심화	· 인도, EU 및 미국을 중심으로 수출물량은 소폭 상승이 전망되나 제한적인 단가 상승과 글로벌 경기 회복 불확실성으로 전년도 수준 유지 전망
정유	· 항공유 중심의 석유제품 수요 확대 · 비OECD 중심의 수요 증가	· 국제유가 하락 · 선진국의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정체 · 글로벌 공급 확대에 따른 정제마진 하락	· 수출물량은 소폭 확대되는 반면 단가 하락 및 기저효과로 감소
석유화학	· 정기보수 종료로 국내 공급 역량 확대 · 주요 수출대상국 전방산업 경기 회복(중국, 인도, 아세안향) · 수출단가 소폭 상승	· 중국 석유화학시장 내 자급률 향상 · 주요 수출대상국 시장 내 시장점유율 하락 우려	· 수출물량 증가 · 수출단가 소폭 증가로 수출액도 증가
섬유	· 물가안정, 금리 인하 등 경기 안정화 및 수요 개선 · 슈퍼섬유 등 고기능성 섬유 수요 확대 · 한류 열풍에 따른 한국산 의류 소비 증가 · 전년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 대중 섬유소재 수출 증가	· 고물가, 고금리 등 통화정책 전환 지연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으로 의류 소비 둔화 · 러-우 사태, 이-팔 전쟁 등 불확실성 병존 · 글로벌 산업생산 부진으로 산업용 섬유 수요 위축 · 해외 생산 확대로 국내 수출 대체 · C-커머스 급성장 등 가격 경쟁 심화	· 미국·EU 등 수요 개선, 고성능 섬유 수요 확대, K-패션 활성화로 수출 증가

(계속)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정보통신기기	· SSD 수요 증가(AI향 서버 및 PC시장 성장) · 신제품(폴더블폰 등) 출시 효과 · 스마트폰·PC 교체주기 도래 · 스마트폰 수요 회복으로 국산 부품 수요 증가 · 수출단가 상승(SSD 등) · 기저효과	· 해외 생산 확대 · 스마트폰 및 PC 시장 포화 ·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 심화 · 글로벌 경기 불안정 요인 상존	· 생성형 AI 확산 영향과 시장수요 회복, 특히 SSD 단가 상승에 힘입어 하반기 수출 증가 전망
가전	· 주요 수출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가전 수요 회복세 · AI 탑재한 스마트 신제품 출시 확대 · 고효율 및 친환경 제품 수요 증가	· 고물가, 고금리 지속으로 가전 소비심리 회복 지연 · 해외 생산 확대 · 프리미엄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 심화	· 스마트·고효율 신제품 출시 및 보급 확대, 국내 주요 기업의 경쟁력 우위로 수출은 증가할 전망이나, 해외 생산 확대로 증가폭은 제한적
반도체	· 메모리반도체 단가 상승 · PC, 스마트폰 등 IT 기기 수요가 감소에서 증가로 전환되어 소폭의 증가 · 지연되었던 서버 교체 수요가 일부 AI 서버로 전환 교체 · AI 반도체와 DDR5 등 고부가 제품 보급 확산	· 지정학적 리스크 잔존 · 개인 소비심리 회복 속도 지연	· 글로벌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영향으로 IT 경기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추세이며, AI 반도체 수요 증가 및 메모리반도체 단가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
디스플레이	· 태블릿용 OLED 시장 확대 · 프리미엄 전자기기 시장 회복 · 패널 단가 상승	· 중국 패널 기업 OLED 경쟁력 상승 · 중국 내 애국소비로 인한 점유율 축소	· 신규 수요 시장의 성장과 패널 단가 상승으로 인하여 수출 확대 전망
이차전지	· 최대 수출국 미국 시장에서 배터리 수요 증가세 유지 · 수출단가 감소세 완화 가능성	·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로 주요 OEM사의 전기차 생산목표 하향 조정에 따른 배터리 수요 하락 · 우리 기업의 해외 현지 공장에서 배터리 생산이 증가하면서 수출물량 일부가 현지 생산 물량으로 대체 가능성	· 글로벌 전기차 성장 둔화, 광물가격 하락에 따른 배터리 판가 급감 등의 영향으로 2024년 하반기 이차전지 수출 감소 전망
바이오헬스	· 미·EU 바이오시밀러 출시 및 장려 정책 시행 · 국내 CDMO 공장 생산역량 확대 · 대형 기술수출 증가	· 바이오시밀러·CDMO 가격경쟁 심화 · 미 대선 공약으로 약가 인하 압박 가중	· 바이오시밀러·위탁생산 중심으로 시장 수요 확대되며 수출 증가세 지속

- 이차전지는 상반기(-19.8%)에 이어 하반기(-5.3%) 수출도 역성장 추세를 이어가겠으나,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차용 배터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 감소폭이 상반기에 비해 낮아지며 연간으로는 12.7% 감소 예상

· 미국 및 유럽에서 신·증설된 해외 공장에서의 생산 확대, 배터리 핵심광물 가격 안정화, 유럽향 수출 감소 추세 심화가 하반기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

- 바이오헬스 하반기 수출은 미국, 유럽의 의약품 수요 증가에 따른 바이오시밀러, 임플란트, 톡신 등 주력상품의 실적 호조세와 전년도 실적 부진의 기저효과 영향으로 하반기 24.9% 증가, 연간으로는 18.2% 증가 전망

□ 내수: 하반기 설비투자 회복, 수출 확대, 신수요 발생 영향으로 소재 및 IT신산업군의 내수가 전년동기 대비 개선될 전망이나 자동차, 이차전지는 하반기에도 역성장세 지속 예상

○ (기계산업군) 스마트 및 친환경 설비투자 수요 확대로 일반기계(-0.3%) 감소세가 둔화될 전망이나 자동차(-4.8%)는 구매여건 악화에 따라 하반기에도 내수 감소세 지속 예상

- 자동차 하반기 내수는 고금리, 가계부채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신규 수요가 제한되면서 전년동기비 4.8% 감소 예상, 연간으로는 누적된 이연수요 실현과 차량 구매여건 악화 등의 부정적 요인이 우세하여 전년 대비 8.0% 감소한 160만 대 수준에 그칠 전망

- 조선 내수는 국내 해운사가 발주한 대량의 선박 인도로 전년동기비 64.3% 증가한 161만 CGT 예상

- 일반기계 내수는 스마트 장비 및 친환경 관련 설비투자 수요 확대 영향으로 전년동기(-19.7%) 대비 감소폭이 크게 완화된 -0.3%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연간으로는 3.8% 감소 전망

○ (소재산업군) 하반기 전방산업의 회복세에 따라 철강(1.7%), 석유화학(0.3%), 섬유(1.2%) 내수의 소폭 성장이 예상되나, 정유(-0.4%)는 환경규제 영향 등으로 감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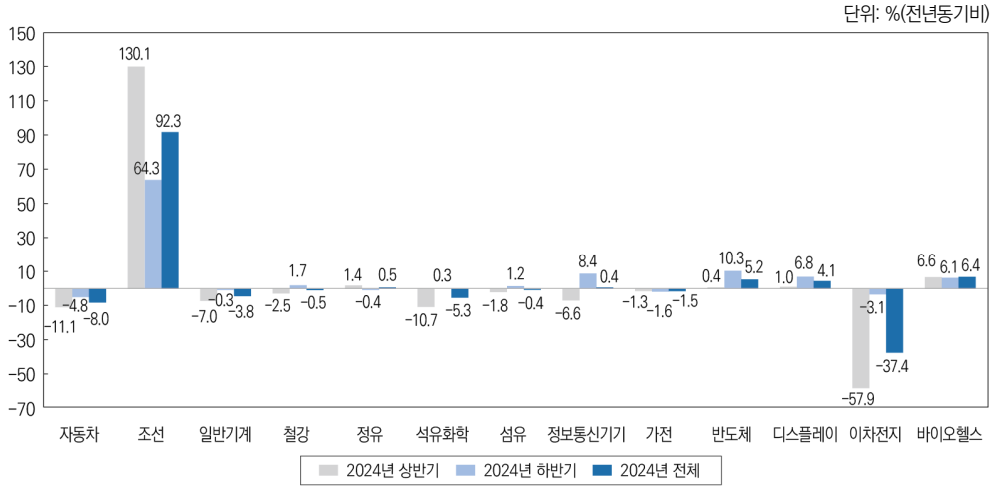
- 철강 내수는 하반기 설비투자 확대, 조선 등 수요 산업 생산의 개선세에 따라 1.7%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2024년 연간 내수는 전년 대비 소폭(0.5%)의 감소 예상

- 정유 내수는 운송용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용 나프타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의 대기환경개선특별법 시행 영향 1톤 경유 트럭의 신규 등록 금지 등의 규제 강화로 수요 감소가 가속화되며 하반기 0.4% 감소, 연간 0.5%의 증가를 기록할 전망

- 석유화학 내수는 전방산업의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 부진으로 인해 전년 대비 횡보(0.3%) 전망이며 이에 연간으로는 5.3% 감소를 기록하여 내수 부진의 장기화는 지속될 전망

〈그림 2-6〉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증감률 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주: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 2023년까지 연간 내수 규모가 1,000만 톤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내수 감소세가 장기화되면 1,000만 톤을 하회할 전망

- 섬유산업 내수는 하반기 의류 소비 증가 및 국내 수요산업의 생산 회복에 따른 산자용 섬유소재 수요 확대로 증가(1.2%) 전환 전망이며 연간으로는 소폭(0.4%) 감소 예상

○ (IT신산업군) IT 교체수요와 수출 호조로 정보통신기기(8.4%), 반도체(10.3%)의 내수가 회복되고 신약 공급 확대 영향 바이오헬스(6.1%) 내수의 성장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전망이며 이차전지(-3.1%) 내수는 하반기에도 역성장세는 지속되나 감소세는 둔화 예상

- 정보통신기기 하반기 내수는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신규 스마트폰(폴더블폰 등) 및 PC 교체수요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비 8.4% 증가 예상, 연간으로는 0.4% 증가 전망

- 가전 내수는 TV 등 프리미엄 대형가전 수요가 위축되고 고가의 신제품보다는 가성비가 높은 제품의 구매 비중이 증가하면서 하반기 1.6%, 연간으로는 1.5% 감소 기록 전망

- 반도체 하반기 내수는 주요 내수시장인 SSD 등 컴퓨터 부품 수출의 증가와 IT 기기 교체주기 연장으로 인해 정체되었던 수요가 회복되면서 전년동기비 10.3% 증가할 전망이며 연간으로는 5.2% 증가 예상

〈표 2-7〉 2024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자동차	·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활발한 신모델 출시	· 금리 인상에 따른 수요 위축 · 기술전환기 교체 수요 차량 구매 지연 · 누적된 차량 구매 대기수요 소진	· 누적된 대기수요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경기 둔화 지속으로 차량 구매 수요 위축되는 등 부정적 요인 우세
조선	· LNG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대량 인수 지속 · 중국으로부터 벌크선, PCC 등 선박 인수	· 인력 또는 숙련 부족으로 생산능력 확대 제한	· 국내로부터 고부가가치 선박, 해외로부터 범용 선박의 인수가 증가하면서 내수 물량 증가
일반기계	· 수요산업 수출경기 호전 · 설비투자 회복 · 자동화 및 친환경화에 따른 관련 설비투자 증가	·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설비투자 지연 및 축소 · 주택 가격 하락 및 민간 건설경기 위축 · 수요산업 경기 회복세 미약	· 수요산업의 점진적 경기 회복에 따른 기계류 투자 수요 확대로 감소세 완화 전망
철강	· 하반기 자동차 및 설비투자 개선에 따른 관련 철강재 수요 증가 · 조선용 후판 수요 증가 지속	· 부동산 경기 부진 지속 · 거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 위축	· 하반기 설비투자 및 자동차·조선용 수요 견조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부동산 및 거시경기 불확실성으로 증가폭은 제한될 전망
정유	· 항공유 및 휘발유 중심 운송용 수요 확대 · 국내 석유화학제품 생산 확대	· 정부 규제 강화로 인한 경유 수요 감소 · 유류세 환원 및 전기차 보급 확대 · 정제마진 변동성 확대에 따른 낮은 재고 수준 유지	· 항공유, 휘발유 및 나프타 수요는 확대되는 반면 경유 수요 감소로 전체적으로는 소폭 확대에 그침
석유화학	· 전방산업(자동차, IT) 업황 개선	· 건설 투자, 민간 소비 부진	· 전년 대비 횡보 · 내수 부진 장기화 우려
섬유	· 여행 정상화 및 외부 활동 증가에 의한 의류 수요 증가 · 온오프라인 거래 동반 확대 · 중저가 의류 및 섬유소재 수입 확대 · 고부가가치 차별화 제품 수요 확대 · C-커머스 국내 진출 가속화 · 주요 산업의 수출 증대에 따른 산자용 섬유소재 수요 확대	· 고금리, 고물가, 부동산 시장 불황 등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으로 의류 및 의류용 소재 수요 증가세 둔화	· 소비 개선 및 산업생산 확대,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에 따른 섬유 내수 소폭 증가
정보통신기기	· 신규 스마트폰 및 태블릿 출시 · PC 교체주기 도래 · 중고폰 시장 활성화 · 기업의 디지털 전환(서버 등) 투자	· 국내 PC·스마트폰 시장 포화 · 대출 부담, 고물가 등에 따른 소비심리 저하	· 신제품 교체수요 및 기업 투자 회복 등에 힘입어 증가 전망
가전	· 프리미엄 제품 수요 증가 · 가전 렌탈 및 구독 서비스 수요 증가	· 고물가 및 고금리로 수요 회복 부진	·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 감소세 유지
반도체	· PC 부품 등 수출 증가 · AI, IoT 기기 증가 · 중국으로부터 가공 중간 단계의 웨이퍼 수입 증가	· 국내 소비심리 개선 지연	· SSD 등 PC 부품에 사용되는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개인 소비도 감소에서 소폭 증가로 전환
디스플레이	· 차량용 패널 대형화 · OLED 생산 확대로 인한 소재·부품·장비 확대	· LCD 소재·부품·장비 축소 지속	· 패널 대형화로 인한 소재·부품·장비 내수시장 지속 확대와 차량용 패널 시장 성장으로 증가 지속

(계속)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이차전지	· 원통형 배터리를 중심으로 국내 이차전지 생산능력 제고 가능성	· 고금리 기조 유지, 전기차 국비보조금 규모 축소에 따른 국내 이차전지 수요 감소 ·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대체 수요 급증	· 국내 전기차 생산 감소에 따른 이차전지 수요 감소로 내수 -3.1% 기록 전망
바이오헬스	· 급여 확정된 혁신 신약 처방 기대 · 국내 출시를 앞둔 만성 질환 치료제 수요 증가	· 의료파업 장기화 의약품 처방 감소, 의료기구 수요 감소 · 수입 의약품 조달 어려움	· 종양 및 만성질환 관련 기술 진보와 혁신의약품·의료기기 수요 존재, 의료정상화는 불확실성 요인

- 디스플레이 하반기 내수는 OLED 패널의 대면적화 및 차량용 디스플레이 패널 확대 영향으로 전년 대비 6.8%, 연간으로는 4.1% 증가 전망

- 이차전지는 국내외 전기차 수요 둔화로 2024년 상반기 내수가 57.9% 감소를 기록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3.1%로 역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감소세는 크게 둔화

- 바이오헬스 내수는 건강보험 급여 책정 영향 혁신 신약 수요 증가, 비만치료제의 글로벌 공급 부족 해소에 따른 국내 소비 증가 영향으로 하반기 6.1%, 연간 6.4% 증가 전망이나 상반기에 발생한 의료계 파업 장기화는 잠재적 내수 위축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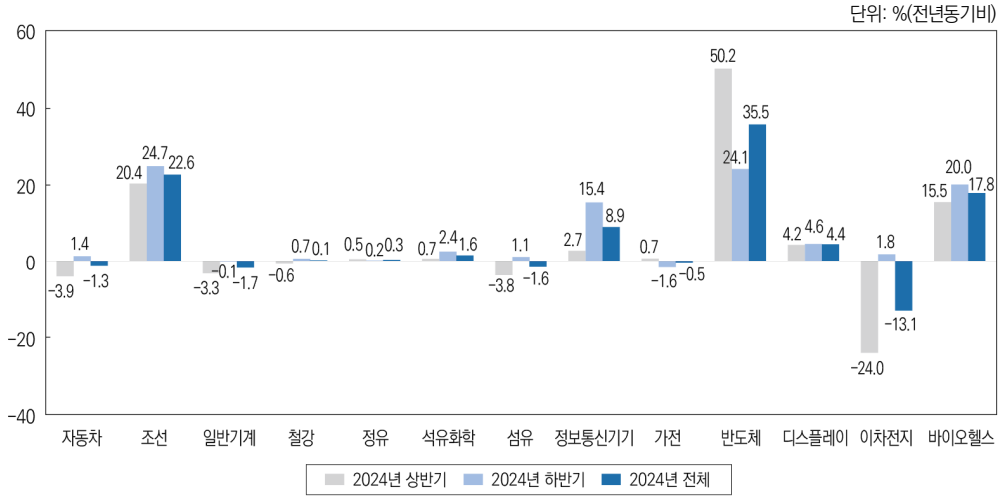
□ 생산: 수출 증가와 내수의 점진적 회복 영향으로 IT신산업군의 생산 호조와 소재산업군 생산의 소폭 증가 예상, 조선은 공급이슈가 개선되며 큰 폭 성장 기대

○ (기계산업군) 내수 부진 및 기저효과로 자동차(1.4%) 생산은 성장세 둔화 예상, 일반기계(-0.1%)는 내수 개선에 따라 생산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고, 조선(24.7%)은 외국인 근로자 숙련 향상에 따라 큰 폭의 생산 확대가 가능할 전망

- 자동차 생산은 부품공급망 불안정 해소에 따른 가동률 상승과 수출 호조세 지속에 따라 하반기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 연간으로는 전년 실적 호조에 따른 역기저 영향으로 1.3% 감소 전망

- 조선은 고기술이 필요한 LNG운반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생산이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 향상에 따라 하반기 생산이 전년동기비 24.7% 증가할 전망이며 이에 연간으로는 22.6% 증가 기록 예상

〈그림 2-7〉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증감률 전망



주: 자동차는 완성차, 조선은 건조량, 철강은 철강재, 정유는 석유제품,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의 물량 기준이고 여타 업종은 원화 가격 기준.

- 일반기계 하반기 생산은 수출의 증가세 유지, 내수 감소세 둔화로 전년동기비 0.1% 감소 전망, 연간으로는 전년(-7.8%) 대비 감소폭이 크게 축소된 -1.7% 증가율 기록 전망

○ (소재산업군) 신증설 및 수출 증가 영향으로 석유화학(2.4%) 생산은 증가세 확대, 철강(0.7%)과 정유(0.2%)는 전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나 섬유(1.1%)는 하반기 소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기반 약화 영향에 따라 연간 생산은 감소할 전망

- 철강 생산은 하반기 내수가 소폭 개선되나 건설투자 위축에 따른 봉형강류의 생산 부진과 저가 수입 철강재 확대 영향으로 하반기 0.7%, 연간 0.1% 증가하며 전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

- 정유는 국내외 항공유 및 나프타 수요 회복 영향으로 생산이 확대되나 정제마진 하락 및 변동성 확대에 따른 보수적 설비운영으로 하반기 0.2%, 연간 0.3%의 소폭 증가 전망

- 석유화학은 하반기 수출과 내수 증가로 생산 규모가 1,120만 톤을 상회하며 국내 석유화학 업황이 호조세였던 2022년 상반기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기대, 이에 하반기에는 전년동기비 2.4% 성장, 연간으로는 1.6% 증가 기록 예상

〈표 2-8〉 2024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자동차	· 공급망 정상화 · 중견업체 신규 모델 생산	· 전년 실적 호조에 따른 역기저 ·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해외 생산 확대	· 중견업체 가동률 향상에도 경기 둔화에 따른 내수 물량 감소로 생산 부진
조선	· 2021년 이후 대량 수주 물량의 본격 인도 · 고기술이 필요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LNG운반선의 대량 건조 지속 · 2023년 대규모로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 향상	· 인력 또는 숙련 부족으로 생산능력 확대 제한	· 2021년 이후 대량 수주한 물량의 본격 인도로 증가 · 인도 조정된 물량의 캐치업이 가능하다면, 더 많은 생산도 가능할 전망
일반 기계	· 주요국 건설·교통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수출 증가세 지속 · 에너지 및 친환경 인프라 투자 지속	·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 민간 건설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	· 수출 증가세 및 내수 개선으로 감소세 완화 전망
철강	· 자동차, 조선, 기계산업 내수 개선으로 인한 관련 강재 수요 증가 · 유망 수요 대응 신제품 출시	·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봉형강류 수요 감소 · 중국 부동산경기 회복 부진에 따른 저가 수입재 증가로 인한 판매 부진 · 상반기 포스코 포항 4고로 3차 개수로 인한 가동 중단	· 하반기 자동차, 조선, 기계 등의 내수 개선으로 인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수입재 확대 지속으로 생산 증가세 제약 예상
정유	· 항공유 중심의 내수 및 수출 확대 · 석유화학용 석유제품 수요 확대 · 비OECD 국가의 수요 회복	· 글로벌 경기 회복 둔화 · 글로벌 수출 경쟁 심화 · 정제마진 변동성 확대	· 내수 및 수출 물량은 확대되겠지만 정제마진 변동성 심화로 정제설비 가동률은 소폭 상향 조정
석유 화학	· 수출물량 증가 · 제품 마진 소폭 개선 · 생산시설 정기보수 종료 · 국제유가 하향 안정화	· 내수 부진 · 원료 조달 불안정성	· 생산량 증가
섬유	· 수출 및 내수 소폭 증가 · 디지털 전환, 친환경 트렌드 대응 고부가 제품 생산 및 투자 확대 · 냉감기능성 소재, 스판덱스 등 고기능성 섬유소재 및 의류 수요 증가	· 수입 원자재가 상승 등 수익성 악화 · 해외 생산 지속 확대 및 역수입 증가 · 국내 생산 중단 등 국내 생산 감소 · 해외 중저가 섬유소재 및 의류 수입 확대 · 리사이클 소재 수입 증가	· 수출 및 내수 개선 불구 국내 생산 기반 약화, 해외 생산 확대 및 수입 증대로 국내 생산 감소
정보 통신 기기	· 수출 및 내수 증가 · 신제품 및 부품 수요 증가	· 완제품 해외 생산 및 부품 현지조달 확대	· 하반기에도 신제품 수요 및 수출 증가로 생산 확대 전망
가전	· 수출 증가 · 프리미엄 제품 생산 비중 증가	· 내수 부진 · 해외 생산 확대 · 설비투자 및 생산능력 감소세 · 2023년 하반기 역기저효과	· 수출 증가에도 불구, 내수 부진과 해외 생산 확대로 생산은 감소세를 유지
반도체	· 수출 증가 · 미세공정 전환 및 제조 공정의 첨단화	· 없음	· 수출 증가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도 확대

(계속)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디스플레이	· OLED 침투율 상승 · 패널의 고부가화 지속	· LCD 규모 축소의 영향력 지속	· OLED 채택제품의 확대는 패널 수요 증가로 인한 생산 확대로 나타날 전망
이차전지	· 국내 기업(LG에너지솔루션 등)의 국내 생산 증가	· 전기차 등 수요산업의 성장 둔화로 수출용 배터리 생산 감소	· 2024년 하반기는 생산능력 확대에 따라 국내 생산의 소폭 증가 예상
바이오헬스	· 다국적 제약사 위탁생산 수주계약 체결 · 선도 CDMO 가동률 상승 · 첨단의약품 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전문인력 확대	· 원료의약품 조달 어려움 · 약가 인하 기조에 따른 생산 위축	· 바이오시밀러, 보톡스, 임플란트 등 주력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생산 증가세 유지

- 섬유 하반기 생산은 전년동기 실적 부진에 따른 기저영향으로 1.1% 증가할 전망이나 첨단소재 생산 및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기반 및 경쟁력 약화에 따른 해외 생산 및 수입 증가에 따라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1.6% 감소 기록 예상

○ (IT신산업군) 국내외 수요 회복으로 정보통신기기(15.4%), 반도체(24.1%), 바이오헬스(20.0%) 생산의 고성장 전망, 이차전지(1.8%)도 신증설 및 수요 둔화세 완화에 따라 하반기 생산은 증가 전환 예상

- 정보통신기기 하반기 생산은 수출과 내수 회복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비 약 15% 증가할 전망이며 스마트폰, 태블릿·노트북PC 등 주요 제품의 해외 생산도 확대될 전망

- 가전 하반기 생산은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과 해외 생산 확대, 역기저효과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1.6% 감소할 전망

- 반도체 생산은 반도체 단가 상승과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점진적 회복에 다른 수출 증가 영향으로 하반기 24.1%, 연간 35.5%의 큰 폭 성장이 예상

- 디스플레이 생산은 IT기기를 중심으로 OLED를 채택한 신제품 출시가 지속되면서 하반기 4.6%, 연간 4.4%의 증가를 기록할 전망

- 이차전지는 수출 감소세가 유지되나 세계 전기차 수요 둔화 추세의 완화 가능성, 원통형 배터리 공장 가동 영향으로 하반기 생산은 1.8% 증가 전환 예상, 연간으로는 13.1%의 감소 기록 전망

- 바이오헬스 생산은 글로벌 대형 제약사로부터의 수주 실적 개선과 주력 수출품목 관련 공급 확대에 따라 하반기 20.0%, 연간 17.8%의 높은 증가가 예상

□ 수입: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수입은 수출 증가, 환율 영향 단가 상승 및 저가 수입재 진입 등에 따른 반도체, 자동차 및 기초소재의 수입 확대로 전년동기비 7.9% 증가할 전망이며 연간으로는 3.0% 증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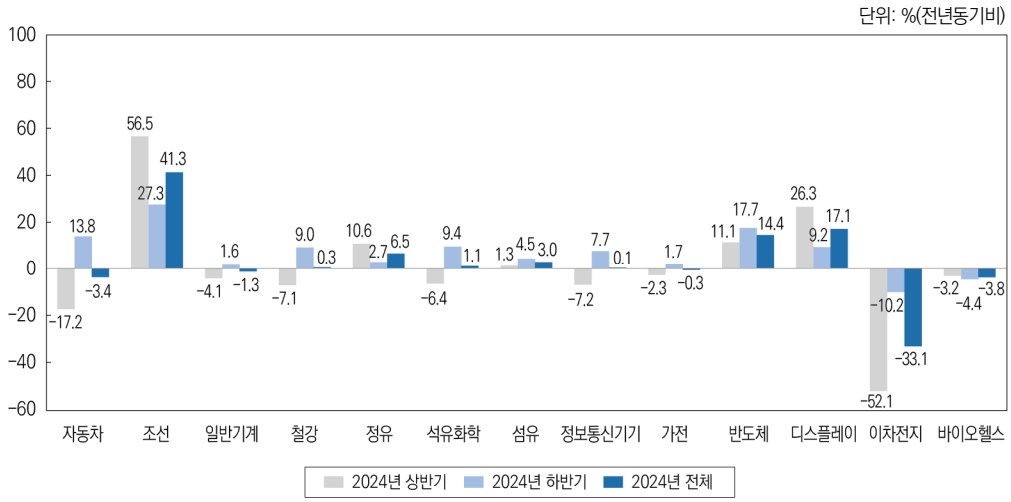
○ (기계산업군) 조선과 자동차는 수입단가 상승 및 부품 수입 확대로 큰 폭 증가, 일반기계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며 기계산업군 전체로는 하반기 7.6%, 연간 -0.3% 증가 전망

- 자동차 하반기 수입은 수입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원화 약세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과 부품 수입 증가로 전년동기비 13.8% 증가(자동차부품 포함)하나 연간으로는 3.4% 감소 전망

- 조선 수입은 해외 건조 선박 인수, 해외 기자재 탑재 비중이 높은 가스운반선 생산 증가 및 선체블록 등의 수입 확대로 하반기 27.3%, 연간으로는 41.3% 증가 전망

- 일반기계 하반기 수입은 제조업 전반의 내수 회복세 미약으로 증가가 제한적일 것이나

〈그림 2-8〉 2024년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증감률 전망



주: 1) 달러화 가격 기준.
2)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전년동기 수입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로 1.6% 증가 전환 예상

○ (소재산업군) 소재산업군 수입은 저가 범용재 확산, 중국 직구업체의 공격적인 시장 확대 영향으로 하반기 5.9% 증가, 연간으로는 2.9% 증가 전망

- 철강의 하반기 수입은 중국의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확대와 중국, 동남아 지역에서의 공급과잉 심화로 인한 저가 수입재 증가 기조가 유지되면서 전년동기비 9.0% 증가(금액), 연간으로는 0.3% 증가(금액) 예상

  · 물량 기준 수입도 전년동기비 3.6% 증가한 479만 3,000톤 예상, 2024년 연간 수입은 전년 대비 0.1% 증가한 991만 1,000톤 규모 전망

- 정유 수입은 석유화학제품 생산 확대에 따른 나프타 등의 석유제품 수입 증가로 하반기 2.7%, 연간으로는 6.5% 증가 예상

- 석유화학 수입은 범용제품군 중심으로 수입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입단가도 소폭 상승하며 하반기 9.4%, 연간으로는 1.1% 증가 전환 전망

- 섬유 수입은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저가 의류 및 섬유소재 수요의 확대, 중국 직구업체의 공격적인 시장 확대 및 국내 생산 중단 품목의 수입 대체 영향으로 하반기 4.5%, 연간으로는 3.0% 증가할 전망

○ (IT신산업군) IT신산업군의 하반기 수입은 국내 IT산업의 수출 및 내수 확대, 중국 제품의 국내시장 진입 등의 요인으로 9.1% 증가 전망이나 이차전지 및 바이오헬스 수입은 단가 하락 및 국내외 수입 여건 악화로 감소가 예상

- 정보통신기기 수입은 기저효과와 함께 신규 출시되는 스마트폰 및 노트북·태블릿PC 수요가 증가하면서 하반기 7.7%, 연간 0.1% 증가로 전환 예상

- 가전 하반기 수입은 고환율로 인한 수입제품 가격경쟁력 약화에도 불구하고 해외 생산 확대에 따른 역수입 증가, 중국 제품의 국내시장 진입 확대로 전년동기비 1.7% 증가, 연간으로는 -0.3% 증가할 전망

- 반도체 수입은 수출을 위한 웨이퍼 단계의 수입과 내수용 시스템반도체 수입 증가에 따라 하반기 17.7%, 연간 14.4% 증가 예상

〈표 2-9〉 2024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자동차	· 수입단가 상승 · 유럽업체 등 공급정상화 및 중국업체 국내 진출 · AS 및 OEM 부품 수요 증가	· 국내 완성차 고급브랜드 라인업 확대 · 고가 법인차량 전용 번호판 제도 시행	· 수입단가 상승과 AS 부품 수요 증가 등 긍정적 요인 우세
조선	· 수입 기자재 탑재 비중이 높은 LNG운반선 생산 증가 · 해외로부터 선박 및 해양플랜트 블록의 반입 증가 · 국내 해운사가 해외 조선사에 발주한 선박 및 중고선의 수입 증가	· 기자재 국산화 및 국산 기자재 탑재 노력을 통한 수입 감소	· 국내 해운사의 해외 선박 도입 확대, 기자재 수입 증가 예상
일반기계	· 반도체 경기 회복세로 관련 투자수요 회복 · 디지털·그린전환 대응을 위한 첨단제조 장비, 친환경 산업장비 및 기계류 투자 수요 확대	· 제조업 전반의 내수 부진 장기화로 기계류 설비투자 및 기계수주 실적 둔화	· 하반기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설비투자 회복세 및 기저효과로 소폭 증가 전환 예상
철강	· 하반기 내수 개선 · 중국 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 및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에 따른 저가 철강재 유입 지속	· 건설용 내수 부진에 따른 국내 수요 감소 · 하반기 국제 철강가격 상승	· 하반기 수입단가의 소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내수 부진에 따른 수출 확대로 저가 철강재의 국내 수입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정유	· 국내 석유화학 가동률 상향 조정 ·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수출 확대	· 국제유가 및 정제마진 감소로 인한 수입단가 하락	· 수입단가 하락이 수입액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석유화학	· 범용제품 중심 수입규모 증가 · 수입단가 소폭 상승	· 내수 부진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	· 수입량과 수입액 증가
섬유	· 해외 생산제품 역수입 증가 · 중저가 의류 수입 확대 · 중국 중저가 온라인 직구 확대 · 국내 공급이 감소한 PF 일반사 수입 확대 · 국내 공급이 부족한 리사이클 원사 수입 확대	· 고금리에 의한 이자 부담 증가, 인플레이션 등 민간소비 위축으로 의류 및 의류용 섬유소재 수요 감소 · 섬유 생산 위축으로 원부자재 수입수요 위축	· 중저가 의류 및 섬유소재 수입수요 확대, 국내 생산 중단 품목의 수입 대체 등으로 수입 증가
정보통신기기	· 외산 신제품 출시 및 수요 확대 · 해외 생산 제품의 역수입 증가	· 제품 가격 상승 · 부채 부담, 고물가 등으로 소비심리 저하	· 신제품 교체수요 및 기저효과로 증가 전망
가전	· 국내 경기 회복세 · 해외 생산 확대에 따른 역수입 증가 · 중국 브랜드(로보락, 메이디, TCL 등)의 국내 시장진입 확대 · 중국 이커머스의 적극적 국내 진입으로 중국산 제품의 해외직구 확대	· 고환율 및 국내 가전 소비심리 위축 · 프리미엄 제품, 렌탈·구독 서비스 중심의 국내 브랜드 경쟁우위	· 내수 회복 부진과 국내 브랜드 경쟁우위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세와 중국 브랜드의 국내 진입 확대로 수입은 하반기에 소폭 증가로 전환

(계속)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반도체	· AI 연구개발 증가 · IoT, 자율주행 자동차 등 신산업 발달 · 중국 공장에서 제조 공정 단계의 웨이퍼 수입	· 국내 전자기기 생산 축소 · 국내 경기 부진에 따라 소비심리 회복 지연 · 경기 부진에 따른 R&D 투자 축소	· 국내 경기 부진 및 전자기기 생산 축소로 수입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중국 공장에서 중간 단계 웨이퍼 및 신기술 개발 및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시스템반도체는 수입이 증가
디스플레이	· 재수출을 위한 LCD 수입 규모 상승 · 차량용 패널 대형화 · 패널 단가 상승		· 패널 대형화로 인한 가격 상승과 재수출을 위한 LCD 수입 물량 확대로 증가 예상
이차전지	· 수입단가 감소세 완화 가능성	· 2023년부터 지속된 광물가격 하락 현상이 수입단가의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 · 해외로의 전기차 수출 증가율이 감소하면서 수출용 전기차 국내 생산 대응을 위한 수입 배터리 수요 감소	· 수입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10.2% 감소
바이오헬스	· 건강보험 적용된 혁신 신약 수요 증가 · 비만치료제 품귀 일부 해소	· 전공의 파업 장기화로 의약품 처방 축소 · 중국·인도산 원료의약품 공급망 경색	· 의료서비스 위축과 조달 차질로 수입 감소

- 디스플레이 하반기 수입은 패널 가격 상승 및 LCD 재수출 물량 확대로 인해 전년 대비 9.2%, 연간으로는 17.1%의 큰 폭 증가를 기록할 전망

- 이차전지 하반기 수입은 광물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 영향으로 전년동기비 10.2% 감소가 예상되며 상반기 수입 급감의 영향으로 연간으로는 33.1% 감소를 기록할 전망

- 바이오헬스의 2024년 하반기 수입은 표적치료제와 같은 혁신 신약 관련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원료의약품 조달 차질과 의료현장에서의 처방 지연 영향으로 4.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으로는 3.8% 감소 전망

〈표 2-10〉 2024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전망(달러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77,383 (11.8)	47,272 (30.9)	46,546 (12.8)	93,818 (21.2)	48,219 (2.0)	48,073 (3.3)	96,292 (2.6)
조선	18,178 (-20.9)	9,183 (11.4)	12,609 (26.9)	21,792 (19.9)	12,414 (35.2)	14,054 (11.5)	26,468 (21.5)
일반기계	51,099 (2.0)	26,641 (1.7)	26,791 (7.6)	53,432 (4.6)	26,872 (0.8)	27,122 (1.2)	53,994 (1.1)
철강	38,448 (5.7)	18,508 (-10.8)	16,684 (-5.7)	35,192 (-8.5)	17,147 (-7.4)	17,264 (3.5)	34,411 (-2.2)
정유	62,873 (64.9)	24,577 (-19.8)	27,422 (-14.9)	51,999 (-17.3)	26,263 (6.9)	27,185 (-0.9)	53,447 (2.8)
석유화학	54,316 (-1.4)	23,207 (-23.3)	22,496 (-6.5)	45,703 (-15.9)	23,637 (1.9)	23,570 (4.8)	47,207 (3.3)
섬유	12,301 (-4.0)	5,612 (-13.3)	5,304 (-9.0)	10,915 (-11.3)	5,420 (-3.4)	5,530 (4.3)	10,950 (0.3)
정보통신기기	34,866 (3.9)	11,388 (-39.5)	12,935 (-19.4)	24,323 (-30.2)	12,276 (7.8)	15,078 (16.6)	27,355 (12.5)
가전	8,028 (-7.4)	4,003 (-8.0)	3,942 (7.2)	7,945 (-1.0)	4,146 (3.6)	4,005 (1.6)	8,151 (2.6)
반도체	129,220 (1.0)	43,208 (-37.4)	55,426 (-7.9)	98,634 (-23.7)	64,048 (48.2)	70,014 (26.3)	134,062 (35.9)
디스플레이	21,149 (-1.1)	7,654 (-29.2)	10,933 (5.8)	18,587 (-12.1)	8,448 (10.4)	11,304 (3.4)	19,752 (6.3)
이차전지	9,981 (15.1)	5,033 (6.4)	4,798 (-8.6)	9,831 (-1.5)	4,037 (-19.8)	4,544 (-5.3)	8,581 (-12.7)
바이오헬스	18,694 (-1.5)	6,966 (-37.5)	6,695 (-11.2)	13,661 (-26.9)	7,784 (11.7)	8,362 (24.9)	16,146 (18.2)
13대 합계	536,536 (7.1) 〈78.5〉	233,252 (-16.0) 〈76.0〉	252,581 (-2.5) 〈77.7〉	485,832 (-9.5) 〈76.8〉	260,711 (11.8) 〈77.9〉	276,105 (9.3) 〈78.8〉	536,816 (10.5) 〈78.4〉

주: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 〉 안은 전체 수출에서 13대 주력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2) 수치는 통관 기준.
3)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표 2-11〉 2024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수출 전망(물량, 원화 기준)

단위: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천 대)	2,300 (12.7)	1,421 (32.5)	1,345 (9.6)	2,766 (20.3)	1,425 (0.2)	1,420 (5.6)	2,845 (2.8)
조선 (만 CGT)	650 (-25.2)	393 (10.1)	371 (26.6)	764 (17.5)	401 (2.0)	425 (14.6)	826 (8.1)
일반기계 (십억 원)	66,389 (15.9)	34,500 (6.9)	35,276 (3.4)	69,776 (5.1)	35,957 (4.2)	35,619 (1.0)	71,576 (2.6)
철강 (천 톤)	25,680 (-5.3)	13,513 (2.8)	13,828 (10.3)	27,341 (6.5)	13,834 (2.4)	13,824 (0.0)	27,658 (1.2)
정유 (십만 배럴)	4,970 (11.3)	2,421 (3.5)	2,515 (-4.4)	4,937 (-0.7)	2,500 (3.3)	2,565 (2.0)	5,065 (2.6)
석유화학 (천 톤)	36,883 (-4.1)	17,989 (-6.0)	18,781 (5.8)	36,770 (-0.3)	19,570 (8.8)	19,542 (4.1)	39,112 (6.4)
섬유 (십억 원)	16,410 (12.0)	7,269 (-9.2)	7,061 (-16.0)	14,330 (-12.7)	7,172 (-1.3)	7,124 (0.9)	14,297 (-0.2)
정보통신기기 (십억 원)	48,492 (26.4)	14,751 (-36.6)	17,190 (-31.8)	31,941 (-34.1)	16,427 (11.4)	19,837 (15.4)	36,264 (13.5)
가전 (십억 원)	10,683 (7.7)	5,185 (-3.7)	5,190 (-2.0)	10,375 (-2.9)	5,547 (7.0)	5,260 (1.4)	10,807 (4.2)
반도체 (십억 원)	172,175 (17.4)	55,967 (-34.5)	72,979 (-15.9)	128,947 (-25.1)	85,703 (53.1)	91,949 (26.0)	177,652 (37.8)
디스플레이 (십억 원)	27,282 (11.1)	9,914 (-25.7)	14,395 (3.3)	24,310 (-10.9)	11,304 (14.0)	14,846 (3.1)	26,150 (7.6)
이차전지 (십억 원)	13,419 (35.3)	6,520 (11.3)	6,318 (-16.5)	12,837 (-4.3)	5,405 (-17.1)	5,968 (-5.5)	11,372 (-11.4)
바이오헬스 (십억 원)	24,153 (11.3)	9,098 (-36.9)	8,744 (-10.3)	17,841 (-26.1)	10,319 (13.4)	11,085 (26.8)	21,405 (20.0)

주: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수치는 통관 기준.
3)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표 2-12〉 2024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내수 전망

단위: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천 대)	1,686 (-2.3)	894 (10.7)	846 (-3.8)	1,739 (3.1)	795 (-11.1)	805 (-4.8)	1,600 (-8.0)
조선 (만 CGT)	140 (-35.2)	73 (-6.4)	98 (58.1)	171 (22.1)	168 (130.1)	161 (64.3)	329 (92.3)
일반기계 (십억 원)	125,135 (9.3)	56,405 (-5.5)	52,592 (-19.7)	108,997 (-12.9)	52,449 (-7.0)	52,444 (-0.3)	104,892 (-3.8)
철강 (천 톤)	51,297 (-8.5)	27,568 (-0.6)	24,867 (5.6)	52,435 (2.2)	26,890 (-2.5)	25,283 (1.7)	52,173 (-0.5)
정유 (십만 배럴)	11,140 (0.4)	5,470 (-2.2)	5,779 (4.2)	11,250 (1.0)	5,545 (1.4)	5,757 (-0.4)	11,302 (0.5)
석유화학 (천 톤)	10,955 (-3.5)	5,235 (-10.1)	4,989 (-2.8)	10,224 (-6.7)	4,676 (-10.7)	5,002 (0.3)	9,678 (-5.3)
섬유 (십억 원)	64,020 (2.5)	34,423 (15.3)	30,947 (-9.4)	65,370 (2.1)	33,793 (-1.8)	31,312 (1.2)	65,106 (-0.4)
정보통신기기 (십억 원)	47,284 (-6.3)	27,276 (11.6)	23,662 (3.6)	50,938 (7.7)	25,487 (-6.6)	25,651 (8.4)	51,138 (0.4)
가전 (십억 원)	32,729 (3.7)	15,420 (-9.0)	16,526 (4.7)	31,946 (-2.4)	15,218 (-1.3)	16,265 (-1.6)	31,483 (-1.5)
반도체 (십억 원)	69,568 (10.0)	31,726 (-3.4)	30,152 (-17.9)	61,879 (-11.1)	31,858 (0.4)	33,251 (10.3)	65,109 (5.2)
디스플레이 (십억 원)	30,449 (-16.2)	12,730 (-18.7)	14,308 (-3.2)	27,038 (-11.2)	12,853 (1.0)	15,287 (6.8)	28,140 (4.1)
이차전지 (십억 원)	6,700 (34.4)	6,207 (106.8)	3,717 (0.5)	9,924 (48.1)	2,613 (-57.9)	3,601 (-3.1)	6,214 (-37.4)
바이오헬스 (십억 원)	45,551 (41.0)	25,358 (28.4)	27,133 (5.2)	52,490 (15.2)	27,037 (6.6)	28,793 (6.1)	55,831 (6.4)

주: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수치는 통관 기준.
3)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표 2-13〉 2024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생산 전망

단위: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천 대)	3,757 (8.5)	2,198 (23.5)	2,046 (3.4)	4,244 (13.0)	2,112 (-3.9)	2,075 (1.4)	4,187 (-1.3)
조선 (만 CGT)	782 (-25.7)	461 (7.2)	461 (31.0)	922 (17.9)	555 (20.4)	575 (24.7)	1,130 (22.6)
일반기계 (십억 원)	150,320 (10.7)	70,425 (-2.9)	68,181 (-12.3)	138,606 (-7.8)	68,110 (-3.3)	68,113 (-0.1)	136,223 (-1.7)
철강 (천 톤)	67,918 (-7.8)	35,813 (-1.0)	34,067 (7.3)	69,880 (2.9)	35,606 (-0.6)	34,314 (0.7)	69,920 (0.1)
정유 (십만 배럴)	12,440 (6.9)	6,111 (0.4)	6,355 (0.0)	12,466 (0.2)	6,140 (0.5)	6,365 (0.2)	12,505 (0.3)
석유화학 (천 톤)	22,133 (-1.8)	10,654 (-10.1)	10,986 (6.8)	21,640 (-2.2)	10,728 (0.7)	11,248 (2.4)	21,976 (1.6)
섬유 (십억 원)	53,641 (-4.5)	30,084 (14.1)	24,810 (-9.0)	54,894 (2.3)	28,950 (-3.8)	25,090 (1.1)	54,040 (-1.6)
정보통신기기 (십억 원)	50,626 (-1.9)	23,696 (-13.5)	22,546 (-2.9)	46,243 (-8.7)	24,344 (2.7)	26,022 (15.4)	50,366 (8.9)
가전 (십억 원)	32,007 (2.6)	15,258 (-9.1)	16,461 (8.1)	31,719 (-0.9)	15,367 (0.7)	16,193 (-1.6)	31,560 (-0.5)
반도체 (십억 원)	141,256 (1.2)	47,841 (-35.5)	61,557 (-8.3)	109,398 (-22.6)	71,835 (50.2)	76,403 (24.1)	146,238 (35.5)
디스플레이 (십억 원)	52,890 (-8.1)	20,507 (-22.4)	26,161 (-1.1)	46,668 (-11.8)	21,368 (4.2)	27,365 (4.6)	48,733 (4.4)
이차전지 (십억 원)	11,872 (10.9)	6,485 (12.3)	4,752 (-22.1)	11,237 (-5.3)	4,928 (-24.0)	4,837 (1.8)	9,765 (-13.1)
바이오헬스 (십억 원)	39,644 (16.2)	20,361 (10.3)	22,076 (4.2)	42,437 (7.0)	23,510 (15.5)	26,487 (20.0)	49,997 (17.8)

주: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수치는 통관 기준.
3)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표 2-14〉 2024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전망(달러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22,133 (8.0)	12,654 (21.3)	10,117 (-13.5)	22,772 (2.9)	10,479 (-17.2)	11,518 (13.8)	21,997 (-3.4)
조선	3,165 (-13.2)	1,195 (-26.9)	1,303 (-14.9)	2,498 (-21.1)	1,870 (56.5)	1,659 (27.3)	3,529 (41.3)
일반기계	31,662 (0.7)	15,815 (0.4)	14,951 (-6.0)	30,766 (-2.8)	15,168 (-4.1)	15,190 (1.6)	30,358 (-1.3)
철강	24,947 (2.0)	12,262 (-11.2)	10,293 (-7.5)	22,554 (-9.6)	11,392 (-7.1)	11,221 (9.0)	22,613 (0.3)
정유	26,709 (10.9)	11,163 (-21.3)	11,998 (-4.2)	23,161 (-13.3)	12,349 (10.6)	12,317 (2.7)	24,666 (6.5)
석유화학	14,317 (-2.3)	6,413 (-18.7)	5,781 (-10.0)	12,194 (-14.8)	6,003 (-6.4)	6,323 (9.4)	12,326 (1.1)
섬유	19,901 (8.8)	8,962 (-3.5)	9,914 (-6.6)	18,876 (-5.2)	9,080 (1.3)	10,360 (4.5)	19,440 (3.0)
정보통신기기	32,464 (-0.3)	14,152 (-13.8)	13,747 (-14.3)	27,899 (-14.1)	13,131 (-7.2)	14,806 (7.7)	27,937 (0.1)
가전	8,547 (-5.1)	4,128 (-7.9)	3991 (-1.9)	8,119 (-5.0)	4,034 (-2.3)	4,060 (1.7)	8,094 (-0.3)
반도체	74,763 (21.8)	30,767 (-13.7)	31,575 (-19.3)	62,342 (-16.6)	34,172 (11.1)	37,156 (17.7)	71,328 (14.4)
디스플레이	3,767 (30.7)	1,650 (-20.9)	1,931 (14.9)	3,581 (-4.9)	2,084 (26.3)	2,108 (9.2)	4,192 (17.1)
이차전지	6,089 (66.1)	4,818 (93.5)	4,012 (11.5)	8,830 (45.0)	2,308 (-52.1)	3,603 (-10.2)	5,911 (-33.1)
바이오헬스	23,266 (33.9)	10,792 (-11.2)	10,567 (-4.9)	21,359 (-8.2)	10,445 (-3.2)	10,102 (-4.4)	20,546 (-3.8)
13대 합계	291,730 (9.5) 〈39.9〉	134,771 (-7.9) 〈40.4〉	130,180 (-10.5) 〈41.1〉	264,951 (-9.2) 〈41.2〉	132,515 (-1.7) 〈41.3〉	140,424 (7.9) 〈42.5〉	272,937 (3.0) 〈41.9〉

주: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 〉 안은 전체 수입에서 13대 주력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2) 수치는 통관 기준.
3)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표 2-15〉 2024년 하반기 13대 주력산업의 수입 전망(물량, 원화 기준)

단위: %

	2022	2023			2024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자동차 (천 대)	302 (1.5)	134 (-3.0)	153 (-6.0)	288 (-4.6)	124 (-8.0)	150 (-2.1)	274 (-4.9)
조선 (만 CGT)	8 (-75.8)	5 (0.0)	8 (166.7)	13 (62.5)	14 (180.0)	11 (37.5)	25 (92.3)
일반기계 (십억 원)	41,204 (14.6)	20,480 (5.6)	19,686 (-9.7)	40,166 (-2.5)	20,296 (-0.9)	19,949 (1.3)	40,245 (0.2)
철강 (천 톤)	9,058 (-4.5)	5,268 (11.7)	4,629 (6.6)	9,896 (9.3)	5,118 (-2.9)	4,793 (3.6)	9,911 (0.1)
정유 (십만 배럴)	3,671 (-6.4)	1,781 (-3.5)	1,940 (6.3)	3,721 (1.4)	1,905 (7.0)	1,957 (0.9)	3,862 (3.8)
석유화학 (천 톤)	9,077 (-11.2)	4,650 (-4.5)	4,429 (5.3)	9,079 (0.0)	4,704 (1.2)	4,768 (7.7)	9,472 (4.3)
섬유 (십억 원)	26,789 (27.8)	11,608 (1.0)	13,199 (-13.7)	24,807 (-7.4)	12,016 (3.5)	13,347 (1.1)	25,362 (2.2)
정보통신기기 (십억 원)	45,150 (21.3)	18,331 (-9.8)	18,306 (-26.3)	36,637 (-18.9)	17,571 (-4.1)	19,465 (6.3)	37,036 (1.1)
가전 (십억 원)	11,405 (10.9)	5,347 (-3.6)	5,255 (-10.3)	10,602 (-7.0)	5,399 (1.0)	5,332 (1.5)	10,731 (1.2)
반도체 (십억 원)	100,487 (42.9)	39,852 (-9.7)	41,575 (-26.2)	81,427 (-19.0)	45,726 (14.7)	48,797 (17.4)	94,523 (16.1)
디스플레이 (십억 원)	4,841 (46.4)	2,137 (-17.0)	2,543 (12.2)	4,680 (-3.3)	2,789 (30.5)	2,768 (8.9)	5,557 (18.7)
이차전지 (십억 원)	8,247 (96.8)	6,241 (102.5)	5,283 (2.3)	11,524 (39.7)	3,090 (-50.5)	4,732 (-10.4)	7,822 (-32.1)
바이오헬스 (십억 원)	30,060 (51.2)	14,094 (-10.3)	13,801 (-3.9)	27,895 (-7.2)	13,847 (-1.8)	13,392 (-3.0)	27,238 (-2.4)

주: 1) (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가율.
2) 수치는 통관 기준.
3)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포함(MTI 741, 742).

〈참고〉 2024년 글로벌 IT산업의 주요 동향과 전망

□ 2024년 세계 IT 시장은 생성형 AI 확산과 수요 회복 등에 힘입어 성장 예상

○ 2023년에 부진했던 IT 기기(스마트폰, PC·태블릿) 수요가 회복되고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 시장이 지속 성장하면서 2024년 세계 IT 시장은 전년 대비 약 8% 성장할 전망

- 세계 IT 기기 시장은 글로벌 경기 회복과 생성형 AI 기능을 탑재한 IT 기기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2023년 부진에서 벗어나 3.6% 증가세 전환이 예상

- 데이터센터 시장은 생성형 AI향 서버에 대한 수요에 힘입어 전년 대비 약 10% 성장 전망

세계 IT 시장 전망

단위: 십억 달러,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IT 시장 전체	4,515	4,691	5,089	5,606	6,060	6,596	7,104
	2.6	3.8	8.0	10.0	8.8	8.4	7.8
통신서비스	1,439	1,487	1,551	1,629	1,697	1,759	1,814
	-0.4	3.3	4.3	5.0	4.2	3.7	3.1
데이터센터	227	236	260	287	312	337	359
	19.7	4.0	10.0	10.5	8.8	7.9	6.5
IT 기기	730	664	688	751	788	833	875
	-10.7	-9.1	3.6	9.1	5.0	5.6	5.1
IT 서비스	1,306	1,385	1,520	1,707	1,901	2,095	2,283
	7.5	6.1	9.7	12.3	11.3	10.2	9.0
소프트웨어	812	915	1,042	1,195	1,361	1,545	1,749
	10.8	12.6	13.9	14.7	13.9	13.5	13.2

자료: Gartner(2024. 5), Forecast Alert: IT spending worldwide, 1Q24 update.
주: IT 기기(Devices)는 휴대폰, PC(데스크톱, 노트북), 태블릿 기준임.

□ 하반기에 세계 스마트폰 및 PC, 가전 시장의 회복세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

○ 글로벌 경기 개선과 신제품 출시 효과 등으로 소비심리가 상승하면서 2024년 세계 스마트폰·PC 시장은 성장세로 전환될 전망

- 불안한 국제 정세와 미국의 대중국 초강력 관세 부과 명령(2024. 5) 등 미·중 분쟁 심화, 고물가·고유가 지속 여부 등 IT 경기 회복의 제약 요인은 상존

○ 2024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AI 기능을 탑재(온디바이스 AI)한 스마트폰 및 폴더블폰 등 신제품으로의 교체수요가 증가하면서 2~4% 정도 성장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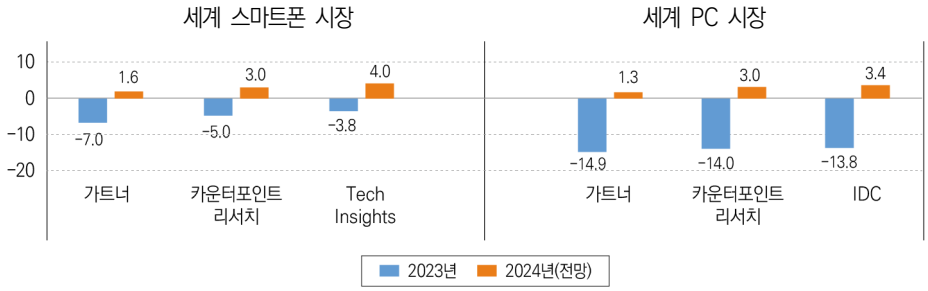
- 그러나 세계 스마트폰 시장 포화 및 교체주기 연장[4], 중고폰(리퍼폰) 시장 확대 추세 등은 스마트폰 시장 성장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

○ 세계 PC 시장은 교체주기가 도래하고 기업용 PC 수요 증가에 힘입으면서 2022년 이후의 침체국면에서 벗어나 전년 대비 3%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

- AI PC[5] 출시와 윈도 10 지원 종료(2025년 10월)에 따른 교체 수요가 긍정적 작용 전망

  • 2023~2027년 세계 노트북 시장은 연평균 3% 성장하는 반면, AI 노트북 시장은 59% 성장 전망(카운터포인트리서치, 2024. 5)

2024년 세계 스마트폰 및 PC 시장 전망



자료: Gartner(2024. 5), IDC(2024. 1), 카운터포인트리서치(스마트폰 2024. 4, PC 2024. 5), Tech Insights(구 Strategy Analytics 2024. 5).
주: 출하량 기준.

○ 세계 가전 시장도 글로벌 경기 개선 및 수요 회복에 힘입어 성장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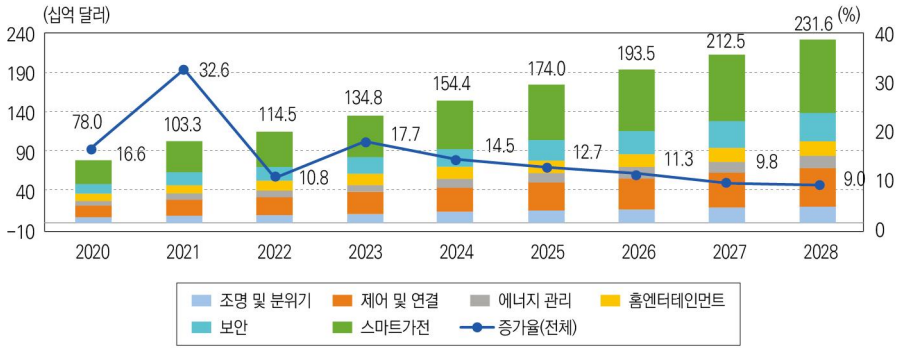
- 글로벌 가전 기업들이 AI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신제품 출시를 확대하고 스마트홈 통신표준 '메터' 기반의 제품 보급 등으로 교체수요가 시장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 세계적인 환경 규제(탄소중립) 등으로 친환경·고효율 제품 수요가 증가 추세

  • 스태티스타(2024. 3)에 의하면, 세계 가전 시장은 2023년 5.1% 성장한 데 이어 2024년 4.3% 성장하고, 스마트홈 시장은 2024년 14.5%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 스마트폰, PC, TV 등 IT산업의 회복으로 2023년 부진했던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도 2024년 전년 대비 7% 성장할 전망(옴디아, 2024. 3)

세계 스마트홈 시장 전망



자료: Statista(2024. 3).

□ 세계 PC·스마트폰 시장 회복과 서버 수요가 증가하면서 SSD 시장의 높은 성장이 전망

○ 생성형 AI 수요 확산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AI향 서버 투자가 확대되고 기업용 SSD 수요가 증가할 전망

- 2024년 세계 서버 시장(매출)은 전년 대비 12.6% 증가하고 출하량은 2023년 18.6% 감소에서 벗어나 약 7.1% 증가로 전환될 전망(가트너, 2024. 3)

세계 서버(Servers) 시장 전망

단위: 백만 달러, 천 대,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매출액	124,038	127,610	143,660	160,366	175,548	190,531	203,266
(증가율)	24.7	2.9	12.6	11.6	9.5	8.5	6.7
출하량	13,827	11,259	12,055	13,031	14,083	15,135	15,916
(증가율)	7.0	-18.6	7.1	8.1	8.1	7.5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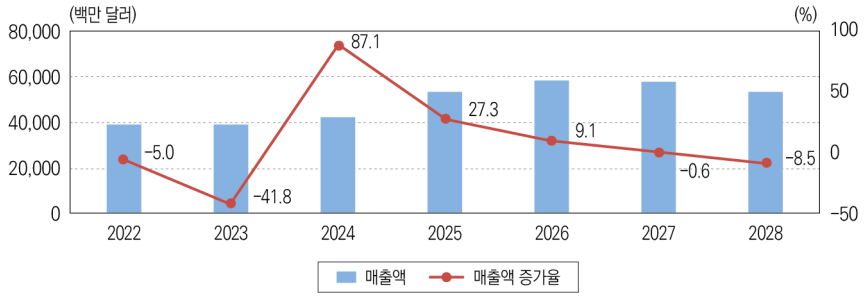
자료: Gartner(2024. 3), Forecast: Servers, All Countries, 2022~2028.

- 이에 따라 세계 SSD 시장(매출)은 2024년 전년 대비 87.1% 증가하고 출하량 기준으로는 4.6% 증가 전망

· SSD 시장의 성장은 2023년 낸드플래시 반도체 기업들의 감산 및 재고 조정의 영향에 따른 SSD 단가 상승에도 크게 기인

- 세계 PC·노트북 시장의 회복세 전환에 따라 소비자용 SSD 수요도 증가할 전망

세계 SSD 시장(매출액) 전망



자료: Gartner(2024. 5).

세계 SSD 출하량 및 평균단가(ASP) 전망

단위: 천 개, 달러, %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출하량	432,069	427,123	446,970	482,306	510,990	514,960	512,543
(증가율)	-5.9	-1.1	4.6	7.9	5.9	0.8	-0.5
SSD 단가	89.8	52.9	94.6	111.6	114.9	113.3	104.2
(증가율)	0.9	-41.1	78.8	18.0	3.0	-1.3	-8.1

자료: Gartner(2024. 5).

□ 2024년 세계 반도체 시장은 IT산업의 수요 회복과 생성형 AI 확산 등에 힘입어 큰 폭 성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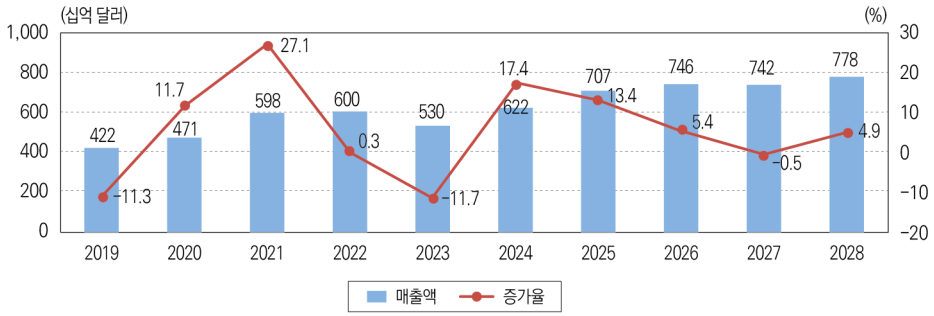
○ 세계 IT 시장 회복과 2023년 공급과잉이 해소되면서 2024년 세계 반도체 시장은 전년 대비 17.4%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서버의 AI 기능 채택과 SSD 수요 증가, 생성형 AI 기능을 탑재한 PC·스마트폰 시장 확대, 전기차·자율차 수요 증가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생성형 AI 도입 등 디지털 전환이 확산되고 데이터량이 급증하면서 차세대 메모리 수요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 증가가 예상

· 가트너(2024. 5)에 의하면, 2024년 세계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70.5% 성장하고 비메모리반도체 시장은 6.2% 성장할 것으로 예측

세계 반도체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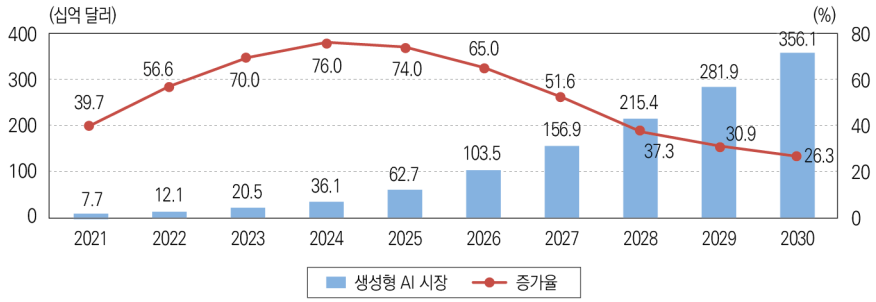


자료: Gartner(2024. 5), Worldwide semiconductor Revenue Forecast.

○ 세계 생성형 AI 시장은 2023~2030년 동안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고,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약 76%의 고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제조, 금융, 운송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자동화·최적화 및 생산성 향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AI 도입이 가속화되고 이는 산업 혁신 및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

세계 생성형 AI 시장 규모 전망



자료: Statista(2024. 3).

4) 스마트폰의 교체주기 연장은 제품의 상향 평준화와 높은 스마트폰 가격 등에 주로 기인.
5) NPU(신경망 처리장치), 생성형 AI 지원 기능 탑재 등 AI·머신러닝 등을 처리하는 데 적합한 HW 및 SW를 갖춘 PC.

연구진

거시경제 전망

총괄 및 국내경제	박성근 동향분석실 연구위원
	변창욱 동향·통계분석본부 선임연구위원
세계경제	민성환 동향분석실 선임연구위원
물가 및 금리	이원복 동향분석실 부연구위원
유가 및 환율	이소라 동향분석실 부연구위원
	강성우 동향분석실 연구원
소비	김현석 동향분석실 부연구위원
투자	김태훈 동향분석실 부연구위원
수출	김정현 동향·통계분석본부 전문연구원
	한정민 동향분석실 연구원

13대 주력산업 전망

총괄	이재윤 소재·산업환경실 연구위원
자동차	김경유 시스템산업실 선임연구위원
조선	이은창 시스템산업실 연구위원
일반기계	박상수 기계·방위산업실 연구위원
철강	이고은 소재·산업환경실 전문연구원
정유	최동원 소재·산업환경실 부연구위원
석유화학	조용원 소재·산업환경실 연구위원
섬유	이임자 소재·산업환경실 연구위원
정보통신기기	김종기 신산업실 선임연구위원
가전	심우중 신산업실 전문연구원
반도체	김양팽 신산업실 전문연구원
디스플레이	남상욱 신산업실 부연구위원
이차전지	황경인 시스템산업실 부연구위원
바이오헬스	정지은 신산업실 부연구위원

KIET 경제·산업 전망 2024-01(1)

2024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발 행 일 2024년 5월 30일
발 행 인 주현
발 행 처 산업연구원
등 록 1983년 7월 7일 제2015-000024호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287-3114
팩 스 044-287-3333
문 의 044-287-3146
인 쇄 처 거목정보산업(주)

ISSN 2983-0338
내용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역재를 금합니다.